



160 main street
Stoneham, MA02180
781.438.6170
www.songkimlaw.com

보스톤코리아

BOSTONKOREA.com



백영주
부동산
주택 / 콘도
비즈니스 / 건물
617.921.6879
clarapark@ownnewengland.com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161 Harvard Avenue, Suite 13, Allston, MA 02134 전화: 617-254-4654, 광고문의 전화: 617-903-3010 ISSN 1554-6942



올스톤 크리스마스. 올스톤은 새학기가 시작되는 9월 1일에 가장 많은 이사가 이뤄지면서 많은 가구들을 무료로 얻는 기회이기 때문에 올스톤의 크리스마스라고 한다. 올스톤 소재 식품점 비프레쉬는 독특한 홍보전략으로 9월의 크리스마스 캐롤을 부르며 이를 기념했다.

한인 유학생 지속적으로 감소세

미 전체 한인 유학생 7만여명
2010년에 비해 3만여명 줄어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미국내 전체 한인 유학생 수가 지난해 7월 대비 7.9% 줄은 71,719명으로 꾸준히 감소세를 이어갔다. 이와 반대로 미국 내 전체 외국인 유학생 수는 지난해 7월보다 4.99% 증가한 1,524,327명으로 늘었다.

미이민세관단속국(USICE)이 8월 30일 발표한 2016년 7월 학생 및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SEVP)자료에 따르면 한인 유학생 수는 71,719명으로 지난 3월에 78,489명에 비해서도 무려 7천여명이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인 유학생이 가장 많았던 것은 2010년으로 10만1,248명이었다. 이후 유학바람은 뚜렷한 퇴조세를 나타내고 있다. 지난 2014년 8월에 88,461명이던 한인 유학생 수는 2015년 한 해 동안 7% 줄었으나 올해 들어서도 꾸준히 감소세가 급증하는 추세다. 이 같은 감소세는 뚜렷한 반등 요인이 없는 한 계속될 것으로 추정된다. >>2면으로 계속

보스톤이 처음인 사람들이 실수하기 쉬운 것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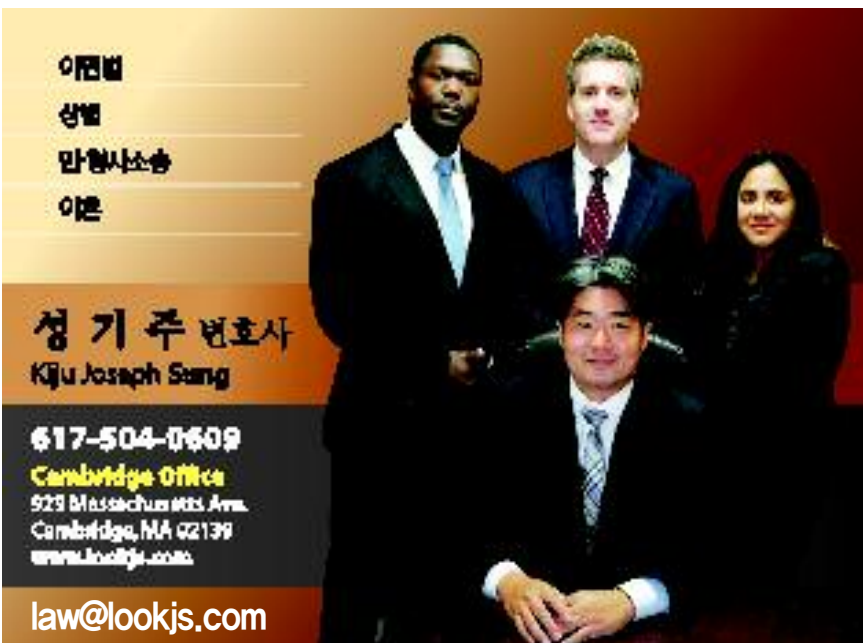
실수, 다른 문화 적응 고통이 아닌 금전적인 손해로 귀결
한국과 다른 교통법규, 렌트 계약 문화에서 실수 많아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더위와 함께 한가했던 보스톤의 거리가 아침 저녁 찬바람과 함께 학생들로 북적댄다. 또 다시 시작이다. 보스톤의 가장 아름답고 풍성한 가을로 들어가는 길목인 지금 누군가에게 보스톤은 신세계일 것이다. 우리는 이들을 초보 보스톤이안이라 칭하겠다. 물론 벌써 익숙해져 고향에 돌아온 느낌인 사람들은 제외다.

초보 보스톤이안들이 겪어야 하는 고통은 어쩌면 미국땅의 다른 문화에 접하면서 당연한 것일지 모른다. 그러나 그 고통이 발전을 위한 고통이 아니라 금전적인 손해로 돌아간다면 결코 외면할 수 없다.

보스톤코리아는 매년 10년이 넘게 “보스톤이 처음인 사람들이 알아두면 좋은 8가지”를 소개해 오고 있다. 이번에는 >>6면으로 계속

보스톤이 처음인 사람들이 알아두면 좋은 8가지 >>6면으로 계속



이민법
상업
만행사소송
이혼

성기주 변호사
Kiju Joseph Sang

617-504-0609
Cambridge Office
929 Massachusetts Ave.
Cambridge, MA 02139
www.lookjs.com

law@lookjs.com



보스톤-인천 왕복항공권

From \$1160

대한항공 (연속 왕복)

본 금액은 세금과 유류보충료가 포함된 가격입니다.

1.617-424-8956

항공권은 1인 1실 11월 27일까지, 보스톤-인천 왕복 14일 전후는 안락합니다. 해당 날짜까지 미리 수는 한정되어 있으며, 가격상승, 항공사 가격 변동 따라 가격이 유동할 수 있습니다.

상업사실: 월요일-토요일 / 24시간 24시간 고객 센터
콜센터: 800-818-8222 (무료) / 617-424-8956
웹사이트: www.iace-travel.com 예약문의: 아이다 보스톤코리아
보스톤 사무실: 1-877-424-8222 (미국, 캐나다, 한국에 한함)

항공권여행 전문 IACE TRAVEL



BERKSHIRE HATHAWAY | N.E. Friess Properties
Real Estate Services

에나 정

최고의 전문가로서
부동산 부문의
전문가로서
정말 믿고 싶게 만듭니다

주택 · 콘도 · 비지니스 · 상업 · 렌트
MA, NH Licensed
Million Dollar Guild
CLHMS, CRS, GRS, SRES, ABR

617.780.1675
aenajung@ownnewengland.com



JEI 재능교육

JEI English JEI Reading & Writing
JEI Math JEI Problem Solving Math
Pre-K부터 초등까지

FDart 학문명예 뒤져
www.jeilearning.com

JEI Burlington

11 Adams St. Burlington, MA 01803
TEL: 781.362.9777
EMAIL: Burlington@jeilearning.com



Premier Realty Group
REAL ESTATE

나원태 Realtor
Direct: 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경험과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책임지겠습니다

제이슨 전 Realtor
Direct: 617.642.5670
jason@bostonpremierrealty.com

오바마 행정부 5년간 체류 허용 창업비자 제정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미국에서 창업을 해 충분한 투자를 이끌어 내거나 이에 준하는 사업 계획서를 증명할 수 있는 경우 최대 5년간 미국 내에 머물 수 있는 소위 '창업비자'가 연방 관보에 게재됐다.

미 의회에서 2013년부터 창업비자 법안이 논의됐지만 3년이 지나도록 다른 이민법안과 한데 묶여 결실이 없자 오바마 행정부가 직접 창업가들을 위한 비자프로그램을 만든 것이다.

미 이민서비스국은 지난 26일 자체 내에서 창업비자와 유사한 프로그램으로 의회의 승인 없이 기존 법안의 테두리 안에서 진행할 수 있는 5년간의 국제 기업 법안(International Entrepreneur Rule.)을 발표했다. 미 당국은 이번 법안으로 매년 약 3천명의 기업인들이 이 프로그램의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국토안보부는 인도적인 이유 또는 미국 국익에 상당한 기여를 하는 경우 케이스별로 영주권이나 취업비자 없이 미국 내에 머물 수 있는 이민유예 정책을 쓸 권한이 있다. 백악관은 외국 기업가들이 투자유치와 일자리 창출 기준에 부합한다면 충분히 국익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이번 정책을 추진한 것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최대한 5년까지 미



국내 체류기간을 허용해주며 미 국토안보부가 언제든지 이 체류허용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따라서 5년 이전에 영주권을 신청하거나 다른 비자로 변경해야 한다.

소위 창업비자 자격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최소 미국 내 창업 기업의 15%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고 중요한 역할을 맡아야 하며 미국 내 충분한 성공투자 사례를 보유한 투자사로부터 \$345,000 이상을 유치해야 한다. 또는 미국 내 연방, 주, 타운 정부로부터 \$100,000이상의 투자유치를 끌어내야 한다. 이외에도 미국 내에서 성공할 수 있으며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충분한 증거 즉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가능하다. 일단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국토안보부는 2년간 머물 수 있는 비자를 발행하며 이후 충분히 일자리를 창출했다는 증거를 보이면 3년을 연장해준다.

오바마 행정부는 현재 이를 연방 관보에 기재해 45일간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후 이번 법안에 대한 조정을 거쳐 최종안이 올해 연말까지는 완성이 되어야 한다. 법안은 최종 법안이 연방 관보에 게재되어야 효력을 발휘한다. 오바마 대통령 임기 마감 이전에는 최종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hsb@bostonkorea.com



수년전만해도 많은 한인 유학생이 찾았던 올스턴 거리에서 이제는 한인 유학생을 찾아보기 힘들게 되었다

MA주 한인 유학생 수는 3,954명 중국인 유학생은 매년 늘어

▶▶1면에 이어서

이민세관단속국은 2016년 7월 자료에서는 각 주별 한인 유학생들의 변동 추이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아 MA주 유학생의 변동폭은 파악되지 않았다. 다만 지난 3월 말까지 한인 유학생 수는 3,954명이었다.

매사추세츠 주의 외국인 유학생 수는 65,187명으로 미국 내에서 캘리포니아, 뉴욕, 텍사스에 이어 4번째로 유학생들이 선호하는 유학 지역으로 나타났다. 최근 유학생

들에게 적극적으로 문호를 개방해 급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는 노스이스턴 대학은 총 10807명의 유학생들이 재적하고 있어 미국 내 대학 중 NYU, USC에 이어 미국 내 3번째로 많은 유학생이 재학 중이다.

중국인 유학생은 매년 늘고 있으며 지난해 7월 대비 7.2% 증가한 323,186명을 기록했다.

hsb@bostonkorea.com

<진료 과목>
 *일반 치과 *잇몸 질환 치료
 *신경 치료 *보철 전문
 *보복스&필러

주요 보험
 Delta, BCBS, Aetna,
 Cigna, MetLife,
 MassHealth,
 etc.

케임브리지 덴탈

큰 웃음을 드립니다

Cambridge Dental Associates
 126 Inman Street
 Cambridge, MA 02139
 (617) 492-8210
 한국어 진료 상담 가능

**형사법
 상법/회사법
 유언장/ 상속
 민사법
 부동산법**

스티븐 김 변호사
 보스톤 검사 경력
 (Steven S. Kim)

617.879.9979
 stevenkimlaw.com

The Law Office of Steven S. Kim
 2001 Beacon Street, Suite 101,
 Boston, MA 02135
 Steven@stevenkimlaw.com

2016 매사추세츠 최고 공립고등학교

보스톤 매거진 선정...도버셔본, 렉싱턴, 웨스턴 순
SAT 평균점수, MCAS 점수 1위 보스톤 라틴 18위 선정 가우똥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보스톤 매거진이 8월 말 발표한 2016년 주내 최고 공립고등학교는 지난해와 큰 차이 없이 도버-셔본(Dover-Sherbon), 렉싱턴(Lexington), 웨스턴(Weston) 순으로 나타났다.

매해 매사추세츠 내 최고 공립고등학교를 선정해 발표하는 보스톤 매거진은 SAT 평균점수, 10학년 MCAS 평균점수 그리고 학급당 학생수, 교사대 학생 비율 등을 중심으로 가중점수를 주어 학교를 선정했다.

도버-셔본은 보스톤 매거진의 선정에서 3년째 1위를 고수하고 있다. 미국 내 주요 언론이 평가하는 공립고등학교 순서에서 단골 1위를 차지하는 렉싱턴 학교는 지난해 웨스턴에 2위를 내줬다 다시 웨스턴을 끌어내리고 2위로 올라섰다.

4위는 웨일랜드(Wayland)가, 5위는 뉴튼 사우스(Newton South)가, 6위는 웰슬리(Wellesley), 7위는 차터스쿨인 브롬필드 스쿨이 차지했다. 8위는 액튼박스보로, 9위는 메드포드, 10위는 윈체스터가 각각 올랐다. 지난

해 6위였던 콩코드 칼라일(Concord-Carlisle)은 올해 12위 권으로 쳐졌다. 한가지 흥미로운 점은 미국 전체 고등학교 평가에서 매사추세츠 내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해왔던 보스톤 라틴은 2014년 16위, 지난해에는 순위 산정에서 제외됐다. 올해 순위에서는 다시 18위에 랭크되어 순위의 공신력에 대한 우려를 낳게했다.

특히 보스톤 라틴은 2016년 SAT 평균점수에서 읽기(636), 쓰기(628), 수학(656)으로 렉싱턴 (626, 626, 656)보다 더 뛰어난 성적을 기록했으며 10학년

MCAS 점수에서도 전체 학교 중 1위를 차지했다. 다만 AP 평균점수에서만 주요 상위권 학교들에 비해 조금 떨어지는 수준이었다.

보스톤 매거진은 올해 순위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학급당 학생수, 교사대 학생비율이 낮으며 상담교사당 학생수, 그리고 스포츠 팀당 학생수가 낮은 학교를 선호했다고 공개적으로 밝혀 일부 부유층 학군에 지나치게 편중된 점수를 주고 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특히 보스톤 매거진은 지난해 사립고등학교 순위 선정에서 오류를 범해 이에 대해 공식사과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hsb@bostonkorea.com



2016년 매사추세츠 주내 최고 공립고등학교로 선정된 도버-셔본 공립 고등학교



2015년 9월에 개최되었던 서울대 동창회 가을 आयु회 모습

서울대학교 동창회 가을 आयु회 및 임시총회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서울대학교 뉴잉글랜드 동창회는 9월 10일 토요일 오후 12시 ~ 3시에 뉴턴에 소재한 어번데일 파크에서 가을 आयु회 및 임시총회를 연다. 이번 आयु회 및 임시총회에서는 차기 회장 선임, 자기 소개, 점심, 게임 등의 행사가 마련되어 있으며 점심은 한식부페가 서비스 된다.

서울대 동창회 정태영 회장은 “비가 올 경우 장소를 렉싱턴 소재 성요한교회 (주소: 2600 Massachusetts Avenue, Lexington, MA 02421)로 변경하여 진행한다” 고 밝히고 “오랜만에 열리는 동문 모임이니 만큼 많은 동문들이 적극 참여

해달라” 고 당부했다. 이에 앞서 뉴잉글랜드 동창회의 운영진은 지난 8월 27일 모임을 갖고 가을 आयु회 및 임시총회 준비 사항을 점검하고, 동창회 운영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이날 모임에는 정태영, 이영인, 김제성, 서병철, 남궁범진 동문이 참석하여 각각 업무를 맡아 수고를 하기로 하였다.

아유회 문의는 문의 978-908-0196 또는 이메일 snuaane@gmail.com. 장소는 Auburndale Cove Picnic Area (Auburndale park)다. GPS 주소는 199 West Pine St. Auburndale, MA 02466이다. bostonkorean@hotmail.com

맞춤식 교육 Mathematics • Verbal • Testing Skill

SAT Plus

SAT I 및 SAT II 준비 전문학원

TEL: 781-398-1881

2 Winter Street Suite 104, Waltham, MA 024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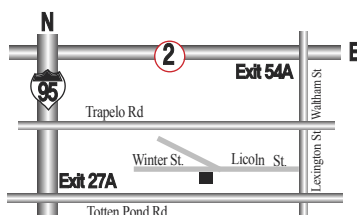
SAT Plus Fall Schedule 2016

Saturday Class Start September 10, 2016

Class	Time	
PSAT / SAT prep	9:00 AM – 11:00 AM	11th Grade
SAT prep	11:30 AM – 1:00 PM	10th Grade
SAT prep	1:30 PM – 3:00 PM	9th Grade
SAT I prep	4:00 PM – 6:00 PM	12th Grade



Rocky Hill School 과학 및 수학교사 Disciplinary Committee
MIT 생물학 학사학위
Who's Who Teachers of America-1992년 선출
Tandy Award Finalist(수학 및 과학분야 우수교사 표창)
지난 10년간 SAT I 및 SAT II 개인교습



“항상 Tutoring이 가능합니다!!”

English Writing, Biology, History, Chemistry, Math, Physics

10년 이상의 지도경력으로 우수한 학생을 배출하신 한상훈 선생님이 항상 지도하시고 계십니다.

뉴햄프셔 한인회 두달째 교회방문 한인 현안 논의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한인교회를 방문해 한인들의 현안과 동포사회 발전 방향을 논의 하고 있는 뉴햄프셔한인회가 8월 28일 다섯번째 일정으로 레바논 소재 레바논교회를 방문했다.

이날 교회 방문에는 조은경 회장을 비롯해, 김수홍 부회장, 화정승 이사, 김석중 이사 그리고 박선우 고문이 함께 했다.

방문했던 당일은 권혁진 담임목사가 시무하고 있는 레바논 교회가 현재 장소에서 예배를 마지막으로 다른 새 교회로 이전하게 되는 날이었다. 레바논 교회는 지난 11년간 이 교회에서 예배를 봉헌했다.

조은경회장은 한인회의 웹사이트를 소개하면서 동포들의 상호교제 및 동포사회의 권익보호와 위상제고 등 한인회에서 하는 주요 활동 및 봉사업무를 알렸다. 얼마 전 레바논에서 버몬트 주의 하트포드로 연결되는 다리가 이제 “Korean War Veterans Memorial Bridge” 로 명명되기로 결정해졌음을 공포하였다. 조 회장은 한인회가 미국의 “한국전 참전용사회” 와 주정부와 함께 긴밀한 조율을 거쳐 이뤄낸 성과임을 알렸다.

뉴햄프셔 한인회는 지난 7월 31일 뉴햄프셔 장로교회를 시작으로 한인교회를 방문하고 있으며 지난 8월 14일에



지난 일요일에 뉴햄프셔한인회에서 레바논교회를 방문한 모습

는 베드포드에 위치한 문은호 담임목사가 시무하는 뉴햄프셔 한인교회, 8월 21일에는 내슈아 소재 최지원 목사가 담임으로 시무하는 한마음교회 방문회 한인회 활동을 알렸다.

뉴햄프셔 한인회는 동포들을 위한 신년하례회, 생활법률세미나, 영사지원업무안내, 광복절 기념식 및 교민체육대회를 진행해 왔다. 또한, 한국의 자유평화독립을 수호하기 위해 희생한 미군 참전용사들을 위한 보은행사도 해마다 지속적으로 진행해 왔다.

뉴햄프셔 한인회 교회방문 일정은 11일 그린랜드 연합 감리교회를 마지막으로 마감한다.

뉴햄프셔 한인회 조은경 회장은 “동포들이 다양한 행사에 참여, 회원가입을 하고, 후원금 혹은 재능 기부를 하는 등 여러 방식으로 한인사회에 기여할 수 있으며, 차세대가 한인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밝은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해 작은 힘이나마 보탬 수 있다” 고 지원을 당부했다.

bostonkorean@hotmail.com

로드아일랜드 한인회 다문화 축제에 한국 소개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로드아일랜드 한인회는 로드아일랜드에 거주하는 각 나라의 문화를 소개하는 행사 로드아일랜드 주 헤리티지 축제에 참가해 한국을 소개한다.

프로비던스 소재 로저 윌리엄스 내셔널 메모리얼에서 열리는 이 행사는 “하루만에 세계를 여행하세요” 라는 주제로 각 나라별로 음식, 전통 무용 및 음악 공연, 미술 등이 소개되는 축제로 올해로 39회째

를 맞는다. 로드 아일랜드 한인회의 윤광옥 이사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 행사에는 지난 한인회 행사에서 가야금 연주로 주목을 받았던 오정희 씨와 그레이스 박 씨가 가야금을 연주를 선보인다. 또한 로드 아일랜드 대학(URI) 사물놀이 팀이 출연해 사물놀이 공연을 할 예정이다. 또한 해남달남 식당에서 한국음식을 소개한다.

bostonkorean@hotmail.com

로드아일랜드 한인회 건축기금 모금 골프대회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로드아일랜드 한인회관 건축위원회는 9월 5일 월요일 노동절 당일 12시 크랜스톤 소재 그랜스톤 컨트리 클럽에서 건립모금을 위한 골프대회를 개최한다.

골프대회 참가비는 1인당 \$100이다. 비용에는 중식, 석식 및 골프 카트비용이 포함된다. 등록은 12시부터이며 1시에 샷건 방식으로 일

제히 시작한다. 문의는 이동수 위원장 (401-556-4224), 이종민 (401-323-3293)씨에게 하면 된다.

이동수 위원장은 “비록 골프대회 참가는 못하더라도 기부 의사가 있는 분은 위의 연락처로 연락해 기부해주시면 고맙겠다” 고 밝혔다.

bostonkorean@hotmail.com

나쁜 치아를 만났다면 좋은 의사를 만나야 합니다.



진료과목
일반치과
신경치료
잇몸질환치료
보철전문
보톡스&필러

주요 보험
Delta, BC/BS,
Aetna, Cigna,
Metlife, etc...

한국인
진료 상담 가능
응급치료 가능


캠브리지 덴탈 어넥스
Cambridge Dental Annex

617.871.1482

Tel 617.871.1482
Fax 617.871.1483

bostonhanjin.com

여러분 가까이 있습니다!



한진

175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T: 617.782.2424 F: 617.782.2421

귀국이사 / 로컬이사 / 포워딩 / 택배 서비스

여권사진 / 이벤트 사진 / 영상 촬영 및 편집
그래픽디자인 서비스 / 디지털 포토 & 포토샵 튜터링

Nabis Studio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 교사연수회 개최

주제는 '함께 고민해 보는 2세들의 효과적인 뿌리교육'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세벽 기자 = 뉴턴 소재 뉴잉글랜드 한국학교는 9월 10일 오전 교사연수회를 개최하며 오후 2시부터 2016학년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한다.

'함께 고민해 보는 2세들의 효과적인 뿌리교육' 이란 주제로 열리는 제 5회 교사연수회는 강당 및 각 강의실에서 7개 강좌가 개설된다. 교사연수회는 2세 교육에 관심을 가지는 학부모 및 지역의 한국학교 교사들이 무료로 참가할 수 있다. 참가를 원하는 학부모 및 교사는 9월 7일까지 남일 교장(508-523-5389)에게 참가요청을 해야 한다.

교사연수회 7개 강좌는 아래와 같다

전체1강(강당): 지각과 생각을 키우는 작문교육(이정설 강사)

전체2강(강당): 한국학교 학생들의 동기유발을 위한 방안(류장한 강사)

전체3강(강당): 좋은 사진 & 예쁜 사진 촬영의 정석(사진작가 홍순창 강사)

전체 4강(강당): 척추건강의 올바른 이해(보스톤건스레드 카이로프랙틱)

개별1-1강(RM 124): 기초1-2 한글 교육의 방안 연구(김희현 강사)

개별1-2강(RM 126): 초급 이상의 한글교육의 방안 연구(홍순주 강사)

개별2-1강(RM 105): 기초3-4 한글 교육의 방안 연구(김혜련 강사)

개별2-2강(RM 104): 초급이상 중급단계 2세 교육 방안 연구(황규라 강사)

폐회 및 점심: 1시 30분

지역 최대 규모의 뉴잉글랜드 한국학교는 현재 뉴턴의 오크힐 중학교에 위치하고 있으며, 2세 반인 기초준비반부터 성인반까지 6개 과정으로 나눠 교육하고 있다. 남일 교사가 교장으로 재직 중이며 남일, 학부모회는 이미경 회장 이사회는 윤경숙 이사장이 이끌고 있다. 각 과정의 리더는 김희현 이성희 주민정 김소희 김영순 김민정 김현정 신민영 김정자 교사이다.

성인 및 이중언어를 요하는 자녀들의 한글교육은 물론 역사교육과 작문 교육, 음악교육과 함께 서예반, 사물놀이반 등의 전통문화 교육도 과정별로 각각 진행되고 오후에는 태권도와 동양화반, 미술교육, 발레, 펜싱팀, 서예반과 기초 중국어반 수업이 진행된다.

9월 10일(토) 오후 2시부터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행사를 갖고 9월 17일 새



뉴턴 소재 뉴잉글랜드 한국학교는 9월 10일 오전 교사연수회를 개최하며 오후 2시부터 2016학년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한다

학기를 시작하는 뉴잉글랜드 한국학교는 기초준비반 및 기초1-2과정 등의 경우 선착순으로 등록을 받는다.

남일 교장은 "2세들의 뿌리교육에 함께 동참할 교사를 이번 연수회에 초청한다" 고 뜻있는 교사들의 지원을 당부했다. 등록 및 교사신청은 아래의 연락처를 이용하면 된다.

1. 학교 주소: 130 Wheeler Rd.

Newton, MA 02459

2. 연락처: 남일 교장
(508) 523-5389

이메일 주소:
ksneusa@verizon.net
Homepage:
www.ksneusa.org

hsb@bostonkorea.com

보스톤코리아
BOSTONKOREA.com

영의 QR 마크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시면
보스톤코리아
홈페이지로
자동 연결됩니다



Publisher & C.E.O
장명술 Myong Sool Chang

Writer
한세벽 SaeByuk Han
정성일 Sungil Jung
박현아 HyunAh Park
김시훈 Sihun Kim
정선경 Sun Kyung Jung

Graphic Designer
정환웅 HanWoong Chung

Marketing
최성우 SeongWoo Choi

Web Master
정환웅 HanWoong Chung

Contribution part
신영각 YoungGak Shin
공정원 JungWon Gong
김은한 EunHan Kim
백영주 YoungJoo Paik
성기주 KiJoo Sung
신영 Young Shin
윤희경 HeeKyung Yoon
이명덕 MyoungDuck Lee
앤드류락 Andrew Koak
앤젤라럼 Angela Um
정준기 JoonKi Jung
이선영 SunYoung Lee
소피아 Sophia
홍하상 HaSang Hong
이명원 Myung Won Lee
장동희 Donghee Jan
김화옥 HwaOk Kim
송동호 Dongho Song

& TV 사업국
617-955-9112

정류업체 | 연합뉴스 | 미션원 회원사 | 세한연 회원사



Frank Y. Shin, DMD
현 **Tofts** 치과대학 부교수



신영목치과

- 치아 이식 수술 [Implants]
- 금속 없는 크라운
- 미용 치료 (잃어버린 웃음을 찾아 드립니다)
- 응급 환자 당일 치료
- 토요일도 진료함
- 각종 보험 지정 병원

www.drfrankshin.com

617.265.5606

1428 Dorchester Ave. Boston, MA 02122



가주 순두부

한식&일식

2013, 2014년 보스톤 매거진 선정 한식 1위 "가주 순두부"
업스톤점과 캠브리지점 두곳에서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영업시간은
오전10시~ 밤10시까지 입니다.



업스톤 지점
56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617) 208- 8540

캠브리지 지점
57 JFK st. Cambridge, MA 02138,
(617) 864- 6868

단체 예약과 문의 가능

보스톤이 처음인 사람들이 실수하기 쉬운 것들

▶▶1면에 이어서

왔다. 그러나 매년 반복되는 정보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보스톤인들에게는 익숙한 것일 수도 있다. 올해는 접근 방법을 바꿔 실수하기 쉬운 것들을 골라 이런 실수가 금전적인 피해로 돌아가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는 보스톤인 문화 백신을 처방토록 한다.

운전

초보 보스톤인들이 가장 실수하기 쉬운 것은 바로 (운전하기)일 것이다. 운전이야 미국 공통이지만 나라와 미국내 주별로 조금씩 다르다. 바로 이 미세한 차이가 커다란 벌금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게 바로 운전이다. 가장 우선적으로 적응해야 하는 것은 도로 단위가 킬로미터가 아닌 마일(1마일=1.6킬로미터)이란 점이다.



노턴온레드(No turn on red) - 한국에서 빨간불이면 우회전이 허용된다. 보스톤에서는 허용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 빨간불에서 우회전할 때는 반드시 주변에 (노턴온레드)사인이 붙어있는지 살펴야 한다. 다시 말해 빨간불에서는 반드시 정지하고 사인이 없는 경우에만 달려오는 차를 피해 우회전해야 한다. 경찰에게 걸리는 경우 벌금티켓(\$100-150)은 물론 6년동안 운전 기록에 남아 보험료 인상도 주의해야 된다.

스탑(Stop)과 양보(Yield) - 신호등은 없지만 원형의 빨간 스탑 사인이 있는 경우 반드시 차를 정지라인에서 정지하고 좌우를 살핀 후 차가 없는 경우 건너야 한다. 먼저 온 차가 정지해 있는 경우에는 먼저 가도록 양보한다. 역삼각형의 양보 사인이 있는 경우 차를 서행해야 하며 때로는 정지해서 진입하고자 하는 도로에서 진행하는 차량에게 우선진행권(Right of way)을 양보해야 한다. 위반시 벌금티켓(\$100-\$150)

로터리 운행(Rotary or Circle) - 한국에 흔치 않은 원형 로터리에 진입할 때 당황할 수 있지만 로터리 진입시에는 반드시 진입 전에 양보 사인이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다시 말해 서행해서 차를 멈추고 진입하려고 하는 원형 길에서 진행하는 차에게 우선 진행토록 권리를 양보하고 차가 없을 경우 진입하면 된다. 로터리에 진입할 경우 반드시 안쪽 차선에 있는 차가 진행 우선권(Right of way)을 가진 것을 알고 양보한다. 자기가 원하는 출구에서는 오른쪽 방향지시등을 넣고 오른쪽으로 빠져나간다. 만약 출구를 놓친 경우 원을 한바퀴 다시 돌아 출구에서 나간다.

보행자 우선 - 신호가 없는 횡단 보도(Cross Walk)에서는 무조건 보행자가 우선이다. 보행자 우선 표지판의 여부와 상관없다.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진입해 있는 경우 반드시 차를 멈춰야 한다. 다시 말해 횡단보도가 있으면 속도를 줄이고 보행자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를 어겨 경찰에 걸리는 경우 벌금티켓(\$200)을 받는다. 보험금 인상도 있다.

고속도로 추월선 - 2차선 이상의 고속도로에서 왼쪽 주행선은 추월선이다. 다중 차선인 경우 맨 왼쪽 차선이 추월선이다. 2차선에서 추월할 차가 없는데도 왼쪽 차선으로 운전하면 벌금티켓을 받는다.

국제운전면허 및 운전면허 교환 - 한국에서 국제운전면허를 받아 온 경우 운전할 때 반드시 국제운전면허, 한국면허증, 그리고 여권 세가지 증명서를 동시에 지참해야 한다. 한국 운전면허가 있는 경우 적절한 준비서류를 통해 매사추세츠 차량국(RMV)에 신청하면 미국 면허로 시험 없이 교환할 수 있다.

주차 - 보스톤에서 주차는 돈과 직결된다. 주거지의 주차는 거리 표지판을 살펴서 거주민 허가 주차 한정(Resident permit only)의 경우 보스톤 시청에 신청해 허가를 받은 차만 주차해야 한다. 그외에 거리 주차는 코인 또는 크레딧 카드로 미터기에 결제해야 한다. 2시간 주차 한정인 경우 2시간이 지난 후 차를 다른 블록으로 또는 다른 미터기로 옮겨야 한다. 특히 주의해야 하는 것은 스트리트 클리닝(Street Cleaning)이다. 매달 특정 주 특정 요일 특정 시간에 스트리트 클리닝을 한다는 이 표지가 있으면 이 시간에 차를 주차해서는 안된다. 개인 소유 주차장(Private Parking) 주차와 함께 견인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견인 - 스트리트 클리닝 또는 개인소유 주차장에 차를 주차했는데 차가 없다면 견인됐

다고 생각하면 된다. 공공 도로에서 견인된 경우 보스톤 경찰에 전화해 견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개인 주차장의 경우 견인 회사 전화번호가 주차장 견인 경고 표지와 함께 있으므로 여기에 전화한다. 견인된 차량은 벌금과 단체 보관 주차장 주차비용(현금)을 동시에 물어야 한다. 교통을 위반해 견인됐을 경우 티켓 벌금에 차 보관 주차장까지 가는 교통비까지 물어야 하는 고통을 당해야 한다.

트럭 진입 금지 도로 - 보스톤의 두 강변도로인 스토로우(Storrow)와 메모리얼(Memorial) 드라이브는 이삿짐 차량이 진입해서는 안된다. 주요 교각이나 터널의 높이가 낮아 이삿짐 트럭의 통과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구글맵 등을 이용할 경우 이 같은 경고가 없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렌트

렌트 계약 실수 - 렌트 계약 실수는 초보 보스톤인들의 가장 빈번한 실수 중의 하나다



. 아파트나 주택을 렌트하면 리스 계약서를 작성한다. 문서로 이뤄진 리스 계약서는 법률적으로 효력을 갖는다. 리스 계약서에 따라, 각종 권리나 책임이 규정 ▶▶7면으로 계속

617-739-2888

- 한국, 아시아, 미국내, 유럽, 남미 등
- KE, UA, DL, AA 등 모든 항공사 취급
- 항공권 특별 할인 제공
- 통역, 번역 서비스



유니버스 여행사
대표 최한길

Universe travel services
Tel 617.739.2888 / www.utsboston.net

정진수
CPA/MBA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 IRS문제 상담 및 해결
-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 회계처리 및 감사
-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 용자 상담 및 재무재표 작성
- ▶ 급여(Payroll)서비스

TEL 781-849-0800, 508-580-3946 (한인전용)
FAX 781-849-0848
220 Forbes Rd., suite 206, Braintree, MA. 02184



-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회계정리

미 연방정부로부터 공인된 세무전문가
Licensed to Practice Before the IRS



TEL: (781)935-4620 FAX: (781)935-4187
165-M New Boston St, Suite 278, Woburn, MA 01801

▶6면에 이어서



한국에서 온 유학생들의 경우 팁 문화가 낯설다. 보스톤의 경우 팁 문화가 제도화 된 곳이다. 팁이 주 수입원인 웨이터, 웨이트레스의 경우 최저임금이 일반 근로자보다 훨씬 낮다. 따라서 팁은 호의가 아니라 거의 의무에 가깝다고 보면 된다.

팁을 얼마나 줄 것인지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지만 레스토랑의 경우 세금전 총액에 20%가 기본이다. 얼마전까지 15%가 보통이었으나 최근 들어서는 서비스가 별로 좋지 않았다는 표시로 여긴다. 단체로 갔을 경우 팁을 어렵다면 팁을 계산해주

된다.

따라서 꼼꼼히 읽고 작성해야 한다. 특히 돈이 지출되는 부분은 더욱 그렇다. 계약 만료기간 이전에 집을 비울 경우 남은 기간 양도 가능여부, 유지 보수 책임, 렌트비 연체시 연체료 여부 등을 일일이 확인해야 한다. 자연재해로 개인 물품에 피해가 났을 때 보상, 렌트보험 가입 의무화 여부 등도 확인한다.

모든 통보는 문서로 한다. 계약기간도 최초 입주 일자와 계약이 만료되는 최종 일자가 명확히 표기되어야 한다. 거주를 연장하지 않을 경우 퇴거 통보는 계약 만료 한달 전으로 계약서에 있으므로 이도 확인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렌트 계약시, 첫째달, 마지막달 그리고 보증금을 포함 3달치를 지불하는 경우가 많다.

반드시 확인할 것-렌트할 룸을 눈으로 확인한다. 층간 소음도 미리 확인할 부분이다. 가장 조심해야 할 부분은 빈대(Bed bug)다. 또한 쥐의 출몰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보스톤에서 버려진 물건은 챙기지 않는 게 빈대의 유입을 막는 길이다.



는 앱(App)을 사용하면 된다.

발레파킹의 경우 2-4불 정도가 보통이다. 택시의 경우 10-15%가 관례다. 미용실이나 이발도 10-15% 정도다. 호텔의 짐의 경우 가방 당 1불 정도가 적당하다. 레스토랑을 제외한 서비스는 고마움을 표시하는 에티켓이라고 여길 수 있다. 팁으로 민족성을 논하는 경우도 있으니 민간 외교관이라는 마음가짐으로 팁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된다.

editor@bostonkorea.com

팁(Tip)



지난 2012년 1월부터 2016년 8월 28일까지 베드버그 신고 총 1,822건을 표시하고 있다. (이미지 출처: 보스톤 글로브, 자료 출처: City of Boston)

길거리 가구를 줍기 전에 알아야 할 것

이사시즌 맞아 버려진 가구 베드버그 주의보

(서울 = 보스톤코리아) 정선경 기자 = 매년 9월 1일, 수천 명의 학생들이 도시로 몰려온다. 이 시기는 아파트에 새로운 주민이 들어오고 나가는 이사시즌이기도 하다. 이사시즌을 맞아 수많은 가구들이 보도에 남겨지게 되는데, 이때를 기회삼아 몇몇 주민들은 그 가구들을 주워다가 자신의 집에 들여놓는다. 이러한 현상 때문에 학생과 젊은 층 밀집 거주지역인 울스톤에는 “울스톤 크리스마스”라는 별칭까지 생겨났다.

하지만 울스톤의 길거리에서 길보기에 멀쩡해 보이는 가구를 발견해 주위다 쓰려고 생각한다면, 베드버그 분포지역을 나타내는 지도를 먼저 한번 확인해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시 공무원들은 매트리스, 이부자리, 커피 테이블을 비롯한 가구들을 길거리에서 주워 사용하는 행동은 베드버그를 퍼트리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길거리에서 가구를 주울 때 간지러운 느낌이 난다면 다시 재고해봐야 한다고 말한다. 그렇지 않으면 원치 않는 룸메이트를 들이게 될 것이라고 말이다. 한번 베드버그가 집에 들어오면 박멸하는 것은 매우 어려우며 비용 또한 많이 든다.

매년 이맘때 즈음, 시 공무원들은 도시의 거리를 점검하면서 베드버그가 있는지 모르는 가구에 밝은 오렌지 스티커를 부착하고 있다. 베드버그에 대한 경고를 담은 정보지 또한 주민들과 학생들, 학생의 부모들에게 배포되고 있

다.

보스톤 시당국은 매해 베드버그와 관련하여 몇 백건의 신고를 접수받는다. 작년만해도 베드버그와 관련해 총 427건의 신고를 접수받았다. 이는 2012년 이후로 가장 높은 수치이다. 2014년에는 398건의 신고가 있었고, 2013년에는 336건, 2012년에는 412건의 신고가 접수되었다. 올해는 (지난 28일 기준) 총 249건의 신고가 있었다.

베드버그는 병을 옮기지 않는 않지만 물리면 알레르기 반응과 더불어 2차적인 피부 감염을 가져올 수 있다. 미 환경보호국에 따르면 이는 정신 건강에도 유해하다. 베드버그가 있는 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불안, 불면 증세와 각종 부작용이 나타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sun@bostonkorea.com

Kim Law Offices, L.L.C.

성심을 다해 변호하겠습니다

Yeon J. Kim, Esq.

주요 경력

- 前미연방 이민국 심사관
- Boston지사 에서 만여건의 영주권 시민권 심사
- 前 미연방 세관 특별수사관
- NY지부 연방 범죄 관련 직접 수사
- 前 미국 육군 심문관

업무분야

이민법 / 상법
형사법 / 가정법

Tel:(781)932-0400 Fax: (781)932-0403
3 Baldwin Green Common, Suite 210 Woburn, MA 01801

Attorney at Law

장우석 변호사

사과 상해
파산 보호
비즈니스/리스

IRS/DOR/UI
신용카드 채무조정
이민법

전화: (781)712-1700 CHANG & ASSOCIATES, P.C.
67 South Bedford Street, Suite 400 West, Burlington, MA 01803

한미선 공인회계사
Master of Science in Taxation

IRS, MA DOR 와의 세금 문제 해결
사업체 세무보고 및 회계/경영 자문

- 회사의 설립 및 해체/ 회계처리/회계 감시
- QuickBooks Set-up - 비즈니스의 성격 및 구조에 맞는 기본설치 및 운영상담
- Payroll 서비스 및 고용주의 세금납세 내빙

개인 세무 보고

- 해외 소득, 임대소득, 주식 등 투자, Self-employed 사업자, 자산 처분, Clergy, Military, FI, JI Visa holders - 한국과의 Tax Treaty 하에 있는 분 등

각종 세금 공제 및 절세를 위한 세무 상담

Tel: 617-792-2355 Fax: 617-849-5852
E-mail: monelohan.cpa@gmail.com
www.mhancpa.com
Cambridge Office (Alewife Station)
125 Cambridge Park Dr, Suite 301
Cambridge MA 02140

가을이 오기 전 뉴잉글랜드에서 하면 좋을 7가지 활동

(서울 = 보스톤코리아) 정선경 기자 = 학기가 다시 시작되고 해는 짧아졌다. 여름의 기운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기에 가족과 함께 2016년 마지막 여름 추억 만들기에 나서자는 것은 어떨까. 대자연의 품으로 주말여행을 떠나거나, 하루 동안 역사탐방을 하는 등, 가을이 오기 전에 하면 좋을 7가지 활동을 뉴보스턴포스트가 소개했다.

도시 역사탐방: 보스톤 유명 투어

해가 어둑어둑해지면 랜턴 불을 든 가이드가 보스톤 커먼 근처 구불구불한 도로를 돌며 도시의 가장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전해준다. 식민시대부터 지금에 이르는 이 이야기들은 보스톤 역사의 가장 핵심적인 사건들과 연관되어



있다. 보스톤 유명 투어(Boston Ghost Tour)는 밤 8시에 시작하여 90분 동안 진행된다.

메인 주 자연탐방: 아카디아 국립공원

뉴잉글랜드에는 멋진 국립공원들이 즐비하다. 그중 1916년 설립된 아카디아 국립공원은 미국 내 가장 오래된 국립공원 중의 하나로 애틀랜틱 바다의 파노라마 경치와 더불어 다양한 난이도의 산악코스를 즐길 수 있는 곳이다.



멋진 자연경관을 즐긴 후에는 인근에 있는 바하버(Bar Harbor)에 가서 신선하게 잡아 올린 랍스터를 즐기거나 메인 주의 또 다른 명물인 블루베리 파이를 맛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항구마을 여행: 포틀랜드, 캐스코 만에 위치한 "리틀 보스톤"

아카디아 국립공원이 너무 멀다면 조금 더 남쪽에 위치한 포틀랜드는 어떨까. 포틀랜드는 메인 주에서 가장 큰 도시로 캐스코 만에 위치해 있다. 보스톤 노스엔드와 같은 정취를 가지고 있지만 대도시의 혼잡함은 없는 곳으로도 잘 알려진 이곳에서 부두를 따라 걸거나 오래된 항구에 위치한 독특한 가게들을 방문해보자. 20년간 운영해온 베키스 디너(Becky's Diner)와 라이브 뮤직과 함께 화려한 색깔의 칵테일을 즐길 수 소니스 레스토랑(Sony's Restaurant and Bar)도 인근에 위치해 있다. 해가 질 무렵 해변 산책로에서 멋진 풍광을 보는 것으로 하루를 마무리 한다면 완벽한 무박여행이 될 것이다.



다채로운 일상: 파머스 마켓

장을 보는 건 일상의 소소한 일거리지만, 뉴잉글랜드에는 가족여행으로 함께 둘러봐도 좋을 만큼 활기찬 장터가 많이 열린다. 가령 버몬트 주의 벌링턴에 있는 '여름 파머스 마켓(Summer Farmer's Market)'은 30년 동안 계속되어온 시장으로 90개가 넘는 가판대 위로 제철농산물 비롯해 막 구워낸 빵과 솜씨 좋은 수공예품이 가득하다. 지역 음악가들이 펼치는

라이브 무대가 활기를 더한다. 버몬트 특산물인 메이플 시럽을 챙겨오는 것도 잊지 말자.



바다 밑 탐험: 미스틱 아쿠아리움

커네티컷 주에 위치한 미스틱 아쿠아리움(Mystic Aquarium)은 여름 바다 탐험 분위기를 내기에 제격인 곳이다. 아프리카펭귄에게 먹이를 주는 것을 구경하거나 심지어 직접 가오리에게 먹이를 줄 수도 있다. 더 모험적인 경험을 원한다면, 아쿠아리움에서 제공하는 "상어의 만남" 전시를 방문해보자. 상어의 등을 직접 손으로 쓰다듬어 볼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아쿠아리움의 구조 클리닉에서는 동물을 다시 야생으로 돌려보내는 작업이 한창이니 이곳 또한 놓치지 말고 둘러보자.



동심 탐험: 스토리 랜드

뉴햄프셔 주 글렌(Glen)에 위치한 스토리 랜드(Story Land)는 루스와 밥 모렐(Ruth and Bob Morrell)이 오픈한 이후 60년 동안이나 유지되어온 테마파크다. 디즈니랜드 캐릭터들을 비롯한 다양한 동화 속 주인공들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스텝 넘치는 탐험을 즐길 수 있다.



4세기에 걸친 역사탐방: 스트로베리뱅크 박물관과 스타브리지 마을

하루 동안 4세기에 걸친 경험을 하고 싶다면 스트로베리뱅크 박물관(Strawbery Banke Museum)을 방문할 것을 추천한다. 10에이커 규모의 야외 역사박물관인 이곳은 뉴햄프셔 주의 포스머스에 위치해있다. 1870년도 뉴햄프셔 주의 주지사의 부인이었던 미세스 굿윈(Mrs. Goodwin)이 정원을 꾸미는 모습을 재현하는 가 하면, 제2차 세계대전 중 해군조선소에서 일 하던 에디 잘리키(Edie Jalicki)가 아침 통근을



하는 동안 인사를 건네기도 한다.

이보다는 뉴잉글랜드의 전원생활을 탐방하고 싶다면 1830년대로 돌아가서 우스터의 스타브리지 마을(Sturbridge Village)을 방문하는 것도 좋다. 이는 미국 내 가장 오래된 살아있는 역사박물관으로 200에이커의 부지가 그 당시 분장을 한 역사학자들로 가득 차있다. 19세기 뉴잉글랜드 마을의 일상을 재현하고 있는 이 마을에 있는 미국의 2대 대통령 존 애덤스와 그의 아들 존 퀸시 애덤스의 생가를 방문하는 것도 한 꼭 해야 할 일 중의 하나다.

sun@bostonkorea.com

광어,우럭
사시미에
한잔 생각하시면
오빠 스시로
오세요

185 Harvard Ave. Allston

617 202 3808

김성애(Seong Ae Kim) Realtor



Newton, Brookline, Boston, Cambridge, Belmont, Lexington, Waltham, Yonkers

보스톤에 처음 오시거나 내 집 마련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보스톤 일대의 아파트/콘도/주택 매매 렌트를 성심 성의껏 세심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상담을 통해 고객님의 희망사항에 맞춰 찾아드립니다.

김성애(Seong Ae Kim) Realtor

COLDWELL BANKER Coldwell Banker Residential Brokerage

1261 Centre St. Newton, MA 02459
Office: 617.969.2447 Cell: 857.919.3055
Email: SeongAe.Kim@NEMoves.com

惠民 Park Acupuncture and herbal medicine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최상의 선택
혜민한의원

617-787-0789 www.acupark.com
60 Leo M. Birmingham Parkway, Suite 101, Brighton, MA 02135



리틀야구월드시리즈에서 2년만에 우승을 노렸던 한국팀은 올해 미국 뉴욕주 대표에 이어 준우승을 차지했다 (제공: LLBWS.org)

아쉽지만 잘싸웠다, 한국팀 준우승

(서울 = 보스톤코리아) 김시훈 기자 = 2년 만에 미국땅을 밟은 한국 리틀야구 대표팀이 리틀야구월드시리즈 (Little League Baseball World Series)에서 값진 준우승을 이뤄냈다. 내심 우승을 노렸던 한국팀은 비록 목표를 이루지 못했지만 패자부활전에서 대회결승까지 올라가는 등 포기하지 않는 저력으로 아시아 최강팀으로서의 자존심을 지켰다.

한국대표로 아시아 지역예선에 나선 동서울 리틀야구리그팀은 퀴라소를 3-0, 캐나다를 10-0 콜드게임으로 각각 물리쳤다. 일본을 제치는 이번을 일으킨 캐나다를 상대로 한명의 타자를 제외하고 캐나다 타자를 전원 삼진 시켜 한국팀의 기세는 하늘을 찔렀다. 그러나 남미 대표 파나마에 2-3으로 역전패 당해 패자부활전으로 떨어졌다.

패자부활전으로 밀려난 소년태극전사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패자부활전 결승에서 멕시코를 상대로 7-0 화력쇼를 선보인 한국은 인터내셔널 그룹 결승에서 파나마를 다시 만나 7-2로 물리쳐 복수에 성공했다. 이로써 한국은 미국 그룹 우승팀과 월드시리즈 우승을 놓고 최종 승부를 벌이게 되었다.

월드시리즈 결승에서 한국팀을 상대한 미국팀은 테네시(동남부 대표)를 꺾고 올라온 뉴욕(미드 애틀랜틱 대표

팀)이었다. 한국팀은 사이드암 투수 정준호를 내세우며 사이드암투수를 상대해 보지 못한 뉴욕팀을 당황시켰다. 그러나 한국팀의 타자 또한 뉴욕팀의 선발 라이언 하로스트의 크게 떨어지는 슬라이더와 빠른 스플리터를 공략하지 못했다.

4회 말에 미국에 2점을 먼저 내준 한국은 5회초 이우민이 우측 담장을 넘기는 솔로 홈런을 때려냈지만 승부를 뒤집지는 못했다. 1983년에 첫 우승을 차지한 이래 1984년, 2014년 세 번의 우승을 거머쥔 한국은 네 번째로 참가한 이번 대회에서 네 번째 우승을 노렸지만 값진 준우승을 거둔 것에 만족해야 했다.

이번 대회에서 한국팀의 활약의 배경에는 뒤에서 미국 교민들의 응원이 있었다. 대회가 열린 펜실베이니아의 인구 6천여명의 작은 마을 윌리엄스포드의 50여명의 한인교포들은 2014년에 이어 올해에도 응원단을 꾸려 한국팀을 응원했다. 현지 주민 뿐만 아니라 다른 펜실베이니아의 마을이나 4시간을 차로 달려 뉴저지에서 온 교포들도 있었다. 이들은 경기장 안에서는 한국팀을 응원하고, 밖에서는 선수단에 한식으로 이뤄진 식사를 제공하는 등 대회기간 내내 한국팀을 불심양면으로 지원했다.

itshunne@bostonkorea.com

젊은이들이 주목하는 퓨전 레스토랑

업소탐방 316

코레아노스 (Coreanos)

주소 : 172 Brighton Ave, Allston, MA 02134
전화번호 : 617-208-8822
홈페이지 http://www.coreanosallston.com
페이스북 : Coreanos Allston

양념치킨, 불고기타코, 김치 프리타 인기 메뉴. 저렴한 가격, 특색있는 메뉴로 젊은 층 공략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김시훈 기자 = LA의 코기(Kogi BBQ), 뉴욕의 김치타코 (Kimchi Taco)의 인기메뉴를 보스톤에서도 맛볼 수 있다. 6월 중순, 한인들이 많이 모이는 하버드@브라이튼 애비뉴에 새롭게 문을 연 한식-멕시칸 퓨전 레스토랑 '코레아노스 (Coreanos)' 가 젊은이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고 있다. 코레아노스는 오픈 전부터 보스톤매거진닷컴으로 부터 주목 받은 바 있다.

코레아노스가 내세우는 메뉴는 불고기타코, 갈비케사디아, 김치프리타같은 한식재료로 만든 멕시칸 퓨전이다. 보스톤 한식당들의 메뉴가 정통 한식이나, 한식에서 입맛을 약간 변형시킨 정도였던 것과 비교하면 색다른 발상이다. 이 가게에 정통한식메뉴가 없지 않지만 이들 퓨전요리는 양념치킨과 함께 이 가게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인기 메뉴다.

코레아노스의 또 다른 특징은 가족경영이다. 아버지인 김용식 씨와 어머니인 지나 김씨가 주방을 맡고 장남 알렉스 씨와 장녀 애니 씨가 계산대를 맡는다. 퓨전 한식이라는 레스토랑의 컨셉은 장남의 아이디어였다. "서부의 젊은이들에게 김치타코같은 퓨전음식이 인기가 많은데, 보스톤에는 없어서 시도해 봤다" 는 것이 알렉스 씨의 생각이



6월 올스턴에서 개점한 코레아노스(Coreanos)는 저렴한 가격과 차별화된 메뉴로 젊은이들의 인기를 얻고 있다

었다.

손님이 많은 저녁시간, 코레아노스의 주 고객은 젊은층의 한인 2세나 외국인이었다. 지나 씨는 "이전에 경영했던 한식당에서는 외국손님이 40%였다면, 코레아노스에서는 70%인 것 같다" 고 말했다. 비싼 돈을 내가며 끼니를 해결하는데 부담스러운 학생들에게 코레아노스의 음식 가격은 부담이 없다. 고객들에게 인기가 많은 타코는 \$3.5, 프리타는 \$5.95이며 치킨메뉴도 라지 사이즈가 \$15.95로 주변 한식당보다 저렴했다.

코레아노스가 애초부터 저렴한 음식을 팔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다. 지나 씨는 "주 고객층인 올스턴에는 자녀 또래의 학생들이 많이 산다" 며 이들을 타겟으로 한 틈새시

장을 공략했다. 그는 "주머니 가벼운 학생들을 위해 싼 음식을 만들면서도, 자식들을 위해 요리를 하는 부모의 마음으로 음식만큼은 MSG 없이 좋은 재료를 쓰려고 노력한다" 고 말했다. 1주일에 180파운드씩 쓰는 김치도 가게에서 직접 담고 있다.

코레아노스의 다음 목표는 캐터링 서비스와 배달 서비스의 시작이다. 지나 씨는 "학생들이 캐터링 서비스를 이용하기에는 금전적으로 부담이 크다. 우리가 가진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입맛의 메뉴와 저렴한 가격을 적극 활용하여 가을학기부터 캐터링 서비스를 시작하려고 한다" 며 많은 학생들의 관심을 부탁했다.

itshunne@bostonkorea.com

Grace Acupuncture and Oriental Medicine

은혜한의원에서

희망을 도와드립니다.

- ① 요통, 목통, 관절통, 근육통, 통풍
- ② 두통, 편두통, 어지럼증, 메스꺼움, 구토
- ③ 비뇨, 소화, 불면증, 각종 스트레스 장애
- ④ 만성 알러지성 비염, 축농증
- ⑤ 소화장애, 변비, 과민성 대장증후군
- ⑥ 심혈관 질환 예방, 비뇨, 기생충
- ⑦ 만성 질환, 만성 통증, 만성 스트레스
- ⑧ 노인, 재활치료, 노인성 질환, 노인성 질환
- ⑨ 노인, 재활치료, 노인성 질환, 노인성 질환

781.862.1842

www.graceaom.com

442 Marett Rd, Suite 6
Lexington, MA 02401

"당신의 환한 미소가 마름압습니다."

거의 모든 보험 받습니다
매스헬쓰도 받습니다

978.689.9363
(한국어문의)

465 South Broadway Lawrence MA 01849

GB Family Physical Therapy

가족 물리치료 병원

REDCORD식 치료법 도입

진료분야
목, 허리 통증, 디스크
어깨, 팔, 무릎, 다리 및 각종 운동 후 통증
척추 측만증 및 자세교정

고통사고/직장상해 보험, 유학생/여행자 보험,
메디케어 외 정부보험 및 미국보험

대표: 781-365-1876 한국어 781-365-1867
83 Cambridge St, Suite 2B Burlington, MA 01803

www.gbfamilypt.com



조기유학 및 학업지도 대표 기관

BOSEC 보스톤 유학원

www.bosec.com

보스톤유학원은 가장 오래 전통을 가진 유학원으로 많은 학생들을 명문 중/고등 사립 학교와 명문 대학에 입학 시켜온 교육 컨설팅 대표기관입니다. 보스톤 유학원은 학생들이 미국에서의 학업에서 성공하도록 최상의 컨설팅과 수준높은 학업지도를 제공합니다

중 고 대학 입학 컨설팅 (강남 사무소 운영)

1. 조기유학, 초/중/고 /대학 입학, 전학, 인터뷰 가이드 전문
2. 한국에서 갓 전학 온 학생 교육컨설팅
3. 대학 입학 상담, 지원서 작성 (College Consulting) : 하버드 입학담당관 출신이 전문위원으로 활약
4. 가디언, 홈 스테이, 여름/겨울 캠프
5. 주말 봉사활동, 특활 지원
6. 상세 사항: 웹사이트 참조 www.bosec.com

■ 컨설팅 서비스의 특징: 다년 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성공적 상급 학교 진학을 보장하는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 서울 사무소: 부모님 들의 편의를 위해서 도곡동 타워팰리스 단지 내에 서울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주소 참조)

■합격한 중, 고등 학교: Fay, Choate Rosemary, St. Paul, Milton, Groton, Kent, NMH, Loomis Chaffee, Hotchkiss, Lawrenceville, St. George, Middlesex, Concord, Governor Dummer, Eaglebrook, Cardigan Mountain, Fessenden, Cushing, Brooks, Westover, Dana Hall, Holderness, Kent, Worcester Academy, Eaglebrook, Philips Academy, Pomfret 등. 상세 사항 웹사이트 참조.

■합격한 대학: Harvard, Yale, Stanford, Cornell, Columbia, NYU, Bowdoin, Dartmouth, Trinity, Emory, U. Mich., U. Penn. Brandeis, Boston College, Bowdoin 등 다수

튜터의 자질과 경력을 보고 프로그램을 선택하세요!

학업 지도 튜터링

ACT SAT SSAT TOEFL AP 전문

강사진: 전원 Harvard, MIT 등 명문 대 교수진, 박사과정,

대학원생 및 미국인 현직 교사.

튜터링 경험이 풍부한 보스톤 지역 최고의 강사진.

- 대상 학생: Native Speaker, 유학생, 보딩스쿨/데이스쿨 학생
- 한국식 엄격한 지도, 숙제 관리. 공부를 하지 않을 수 없게 지도 함.
- 시험 요령 습득이 아닌 실력 향상 위주.
- SAT, TOEFL, SSAT수강생 전원에게 정선된 필수 단어 목록 제공

Private Tutoring

English, Essay Writing
 Math, History, Science
 Latin, French, Spanish, Chinese
 SAT II, AP, 수학 / 과학 경시

여름 방학 특강 (보스톤)

SAT ACT SSAR ISEE TOEFL 집중반 6월 - 8월
 개인 지도 전 과목 집중지도

추수감사절, 겨울방학, 봄방학 (보딩스쿨)

2001년부터 제공되어온 전통있는 프로그램

2015년 추수감사절 프로그램: 11/21-11/30

ACT, SAT, SAT II, AP, 학교 수업 과목 개인지도

프로그램 특징:

- 학생별 필요에 따른 개인지도 및 그룹지도
- 최고의 강사진 (하버드 대학 캠퍼스 옆 위치)
- 원하는 경우 호텔에서 재우지 않습니다

보스톤 유학원

미국: 545 Concord Avenue, Suite 214,
Cambridge, MA 02138

한국: 서울 강남구 도곡동 대림 아크로텔 2914호
(삼성 타워팰리스 단지 내 02-579-9731)

대표: 원장 공학박사 송영두

Tel 617-491-0041
617-491-0043

* 교사 수시 모집: info@bosec.com 으로 resume를 보내 주십시오.

* 홈스테이 가정 수시 모집: 뉴잉글랜드 전역. info@bosec.com 으로 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사절.

* 사무 직원 모집: 미국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닌 분. humanresource@bosec.com 로resume를 보내 주십시오.

"주차는 보스톤유학원 옆의 Fresh Pond Mall 의 Whole Foods Market에 하시면됩니다."

MBTA, 안 쓰는 휴대폰만 없애도 65만 달러 절감

MBTA 명의 사용하지 않는 휴대폰 550개 이상
휴대폰 시스템은 한 번도 감사를 받은 적 없어

(보스턴 = 보스턴코리아) 정성일 기자 = 재정난 해소를 위해 힘쓰고 있는 MBTA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발견하였다. MBTA 명의로 되어 있는 안 쓰는 휴대폰을 정리 시키는 것이다.

MBTA는 550개 이상의 휴대폰이 사용하지 않는데도 등록되어 있어 이를 정리 시킬 예정이다. 또한 MBTA에서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의 요금제도 실제 필요에 맞게 변경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향후 2년 동안 MBTA는 연간 32만 5천 달러를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브라이언 쇼슬리브 MBTA 최고 책임자는 “우리는 감사를 진행했다. 500개 이상의 전화가 사용하지 않는 전화기였다. 우리는 모든 전화기에 일일이 전화를 걸어보고 사용하지 않는 전화기는 제거했다” 고 인터뷰에서 밝혔다.

쇼슬리브에 따르면 MBTA 경영진

은 이전에 휴대폰 시스템과 관련해서 감사를 진행한 적이 한 번도 없다. 또한 MBTA의 휴대폰 요금제 역시 전혀 관리가 되지 않고 있었다. 오랜 기간 동안 사용하지도 않는 휴대폰들이 방치되어 돈이 새어나가고 있었다는 것이다.

MBTA의 비용은 절감하고 수입은 늘리기 위해 임명된 현재의 경영진은 지나간 일에 대해서 누군가를 비난하



새로운 MBTA의 경영진은 비용 절감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고 있다

거나 책임을 지게 하지는 않고 있다. 쇼슬리브는 “왜 휴대폰에 대해서 한 번도 감사가 진행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 고 덧붙였다.

사용하지 않는 휴대폰을 없애는 것 외에도 MBTA는 비용 절감을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할 예정이다. 이 모든 작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향후 2년 동안 1,100만 달러 가까이 아낄 수 있을 것으로 MBTA는 예상하고 있다. 비용 절감 계획에는 여러 개로 나누어져 있는 은행 계좌를 통합하고, 휘발유로 운행되는 기차를 디젤 차량으로 바꾸는 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다.

jsi@bostonkorea.com



보스턴 경찰바디캠 프로그램 시행 지연


(보스턴 = 보스턴코리아) 정성일 기자 = 9월부터 시작될 예정이었던 보스턴 경찰의 바디캠 프로그램이 지연되고 있다. 보스턴 경찰 노조는 바디캠 프로그램 시행을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일단 보스턴 경찰서와 보스턴 경찰 노조는 프로그램 시행일을 9월 12일로 늦춘다는데 합의했다.

보스턴 경찰의 바디캠 프로그램은 9월 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당초 계획은 바디캠을 장착할 지원자를 받을 예정이었지만, 지원자가 단 1명도 없자 무작위로 100명의 경찰을 선정해 바디캠을 장착하겠다고 보스턴 경찰은 발

표했다. 당초 보스턴 경찰서와 보스턴 경찰 노조는 지난 7월에 바디캠 프로그램 시행에 대해 합의했다. 그러나 보스턴 경찰 노조는 자발적으로 지원하는 경찰에게 바디캠을 장착하는 것에 대해 합의한 것이지, 무작위로 배정된 경찰에게 바디캠을 장착하는 것은 합의된 사항이 아니며 반발하고 있다.

결국 보스턴 경찰 노조는 법원에 바디캠 프로그램의 임시 정지 신청을 했고, 이에 대한 법원의 심리가 9월 6일에 열릴 예정이다.



jsi@bostonkorea.com




서울설렁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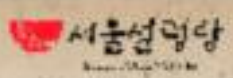
한식 세계화의 종갓집이 되겠습니다

1245 Commonwealth Ave, Allston | 617.505.67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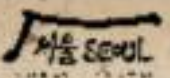




다가오는 봄, 서울설렁탕의 미역, 콩비, 보쌈, 두육과 함께 각종 두류를 즐기세요!





서울설렁탕 in Allston
1245 Commonwealth Ave, Allston
617.505.6771
BeefSoupSoup.com



서울 or Deacon Hill
158 Cambridge St., Boston
617.877.8888
SeoulFoxMarket.com

“고객의 이익을 늘 앞자리에 두겠습니다”



스티븐 손
SINCE 2001
수석부사장, 브로커
부동산전문, 리얼터



주책, 콘도, 사업체, 건물, 투자

617.290.0623 | Sson@ownnewengland.com
Son2323@gmail.com

"HOT" 비즈니스 매물 정보!

RT.128 & I-95 안쪽에
모든 장비 갖춘 세탁소:
부부 운영 Net \$100K이상 \$150K(강추)

Waltham 불안의 픽업 스토어:
많은 확대 가능성!
신규 또는 확장에 적격 \$149K(곧건)




세인트폴 성추행 피해자 얼굴 공개 "다른 피해자 없기를"

프라우트 양 NBC 투데이 쇼 당당히 출연
학교에서 친구였던 남학생들 못본 척 외면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뉴햄프셔 사립 명문 세인트폴에서 2014년 성추행 사건의 피해자인 체시 프라우트 양이 30일 NBC Today에 출연해 피해 이후 당당하게 자신의 얼굴을 공개했다. 프라우트 양의 얼굴을 공개하면서 다른 피해자들이 결코 창피함 없이 당당함을 느끼게 하기 위함이었다고 이유를 밝혔다.

2014년 세인트폴 사립학교에서의 성추행 사건은 미국을 비롯한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다. 성추행 가해자인 당시 졸업반 오웬 라브리에 군은 법원에서 성추행혐의로 기소돼 유죄판결을 받았다. 또한 입학 예정이었던 하버드 대학도 포기해야 했다.

당시 15세의 고등학교 1학년이었던 프라우트 양은 가족들과 함께 만약 오웬 라브리에 군이 공식적으로 편지를 통해 사과를 했을 경우 소송을 취하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고 밝혔다. 당시 오웬양의 가족은 세인트 폴 학교를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함께 소송했다.

프라우트 양은 가족들과 상의 후 가족들의 전적인 지원을 받았으며 자신의 고통을 어린 동생에게 숨기기 위해 공황상태가 왔을 때 벽장 속에 숨었다고 눈물을 흘리며 밝혔다.

프라우트 양은 현재 여성의 권리에 관한 이슈들에 매진하고 있으며 "나는 권리가 있다"라는 내용을 널리 알

리고 있다. 프라우트 양은 인터뷰에서 "나는 사람(여성)들이 당당하고 강해서 '나는 내 몸에 대한 권리가 있다. 아니라고 말할 권리가 있다'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프라우트 양은 인터뷰에서 자신이 세인트 폴 사립학교에 돌아갔을 때 자신의 친구였던 남학생들이 자신을 무시했으며 이야기하거나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고 털어냈다.

오웬 라브리에 군은 현재 보스톤의 유명 변호사 JW 카니가 이끄는 변호팀의 변호를 받고 있으며 카니는 화이트 벨저 등의 사건을 수임했던 변호사다. 라브리에에는 중형인 강간혐의에서 무죄를 받았으나 3건의 성추행 경

범죄에 대해서는 유죄선고를 받아 1년형을 선고받았다. 현재는 보석으로 풀려났으며 항소심을 청구한 상태다. 그러나 라브리에에는 올해 초 법원이 정한 통금시간을 어겼다가 다시 구속됐지만 지난 5월 다시 보석으로 풀려났다.

프라우트 양은 "아직도 그가 많은 사람들의 눈을 가릴 수 있다는 사실이 힘들게 하며 분노하게 하고 있다"고 재판 결과에 대해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라브리에에는 세인트 폴 졸업생들 중 에 하나의 통과이례인 (시니어 살루트) 즉 하급생 여학생과 성관계 맺기에 참여해 경쟁을 벌였으며 프라우트 양을 학교 빌딩에서 성추행했다. 라브리에의 부모들은 최근 법원에 피해자의 신원을 공개할 것을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hsb@bostonkorea.com



30일 NBC 투데이쇼에 출연해 자신의 의사를 밝히고 있는 체시 프라우트 양



2021년부터 미국 북동부의 대도시를 잇게 될 알스톰사의 '아벨리아 리버티'

프랑스 TGV, 미국 북동부를 달린다

보스톤, 뉴욕, 워싱턴을 연결, 2021년부터 개통 예정

(보스톤=보스톤코리아) 정선경 기자 = 프랑스 고속열차인 TGV가 조만간 미국에서도 달리게 된다. 미국 철도회사인 암트랙(Amtrak)은 프랑스의 고속열차 제조사인 알스톰(Alstom)으로부터 초고속 열차 총 28대를 도입하기로 했다.

18억 불에 달하는 이 계약은 미국 정부가 암트랙(Amtrak)의 초고속 열차 확충 및 시설개선 사업을 위해 투입한 24억5,000만 달러(약 2조 7,300억원)중 일부로 이루어졌다.

2021년부터 '아벨리아 리버티'라는 이름으로 운행될 새로운 고속열차는 보스톤, 뉴욕, 워싱턴DC 등 북동부의 대도시를 잇게 되며 총 730킬로미터에 달하는 구간을 연결한다. 현재 북동부를 운행 중인 암트랙 열차 '아셀라'는 23대로 모두 노후 된 상태다.

40%가량 더 많은 승객수송이 가능하며, 현재 시속 135마일(약 217km)인 속도가 160마일(257km)로 빨라진다. 이 새로운 고속 열차 운행

으로 인해 알스톰사로부터 400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날 예정이다. 또한 관련 사업으로 인해 미국에 총 1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의 북동부 열차 노선은 2002년부터 2014년 까지 이용객 수가 2백4십만에서 3백5십만 명으로 증가했다. 비행 노선을 이용하는 승객 수는 그에 반해 3/4로 감소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미국 정부는 초고속 열차 확충 및 개선을 위한 투자를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알스톰사는 향후 샌프란시스코와 로스앤젤레스, 휴스턴과 달라스, 라스베가스, 팜데일을 잇는 노선을 또한 연결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알스톰의 미국 부사장인 제롬 월렛(Jérôme Wallut)은 지난 28일 독일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인과의 인터뷰를 통해 밝혔다.

알스톰은 이전에도 한국, 인도, 이탈리아, 두바이 등에 고속열차를 수출한 바 있다.

sun@bostonkorea.com

잘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집을 사시거나 파실때 맡겨 주시면 최선을 다해 일 하겠습니다.

집을 사고 팔면 언제든 **승진(GINA)**과 **승원(PETER)**을 찾아 주세요.

TEL) 978.866.3248(최승진), 617.780.7839(주승원)
gchol@ownnewengland.com, pju@ownnewengland.com

BERKSHIRE HATHAWAY
HomeServices

미 대선 26일부터 TV 맞짱 토론 '준비된 토론가' vs '타고난 쇼맨'

(서울=뉴스1) 손미혜 기자 = 힐러리 클린턴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와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후보 간의 첫 대선 TV토론이 다음달 26일 열린다.

이번 토론은 그간 간접적인 설전을 벌여온 두 후보가 직접 맞부딪치는 첫 자리면서, 동시에 가을 본대결을 한 달여 앞두고 대선 판세를 가르는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유권자로서는 각 후보를 나란히 두고 자질을 평가하는 첫 기회로 모두의 이목이 집중되는 시간이기도 하다.

이같은 '진검승부'를 약 한달 앞두고 클린턴과 트럼프는 모두 TV토론장을 자신의 판으로 만들고자 전략 모색에 고심하고 있다. 그러나 극과 극의 서로 다른 스타일을 보이는 클린턴과 트럼프 두 사람의 토론 대비태세는 사뭇 대조적이라고 워싱턴포스트(WP)는 전했다.

클린턴이 베테랑 변호사답게 인생 최대 재판을 준비하듯 체계적으로 한 발한 발 토론준비에 임하고 있는 반면, 트럼프는 공식 토론팀도 갖추지 않은 채 비공식 참모들을 자신의 골프클럽에 불러 모아 치즈버거에 콜라를 곁들인 회동을 이어가는 등 '아웃사이더'의 면모를 여실히 드러내 보이고 있다.

클린턴은 두꺼운 정책자료집과 반론 자료들을 두손에 끌어안는 한편 민주당 내 가장 베테랑 토론 코치로부터 얻은 조언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데 한창이다. 또 완벽에 가까운 프레젠테이션을 이끌어내기 위해 사전에 수차례 토론 리허설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철저히 준비된 토론가로서의 면모를 선보이겠다는 목표다.

클린턴 참모들은 이번 토론이 클린턴의 경험과 판단력, 사령부로서의 위엄 등을 선보이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으로 확신했다.

브라이언 펠런 대변인은 "클린턴은 이번 TV토론을 대통령 임사면접으로 여기고 있다"며 "그는 진지하고 뚜렷한 목적의식을 갖고 있으며, 도널드 트럼프가 (위협이 될)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사실도 날카롭게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이 트럼프의 모욕과 빈정거림으로 얼룩지지 않도록 대비해야 하며, 또 불신과 비호감 문제를 해소하는 교두보로 삼아야 한다는 판단이다.

최근 전국 여론조사는 물론 경합주 여론조사에서도 뒤처지고 있는 트럼프에게 이번 토론은 대통령직에, 무엇보다 미국의 최고사령관직에 부적합하다는 대중의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최선의 기회다.

그러나 트럼프는 공화당 지도부로부터 내려온 격언이나 방대한 자료집이 아닌 루돌프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 보수언론 라디오 진행자인 로라 잉그레ียม, 로저 에일스 폭스뉴스 전 회장 등 '말 많은' 측근들을 곁에 두고 토론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측근은 참모들이 트럼프에게 꼼꼼히 정리한 자료집을 건네줬지만, 트럼프는 이를 읽는데 별다른 시간을 투자하고 있지 않다고 토

로했다. 트럼프는 준비된 대본에 의존하기보다는 리얼리티쇼 진행자 출신으로서 즉흥 대응에 발빠른 자신의 재능을 한껏 과시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약 1억명의 시청자를 TV앞으로 끌어모을 미 대선 TV토론은 9월26일 뉴욕 호프스트라대학교에서 1시간30분 가량 진행되며, 이후 10월9일 미주리, 10월19일 네바다 순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10월4일 버지니아 팜빌에서 트럼프의 러닝메이트인 마이크 펜스 인디애나 주지사, 클린턴의 러닝메이트인 팀 케인 상원의원(버지니아) 두 부통령후보 간 토론도 예정돼 있다.

현재 트럼프는 경합주 플로리다, 오하이오, 아이오와에서 클린턴과 각축전을 벌이거나 뒤지고 있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클린턴은 경합 지역으로 분류된 11개주에서 모두 우위를 점하고 있다.

한편 자유당의 게리 존슨이나 녹색당의 질 스타인 후보는 대선토론회가 요구하는 전국여론조사 최소 기준치인 15% 지지율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토론에 참여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yeoulim@news1.kr



미 공화·민주 양당 대선후보인 도널드 트럼프(좌)와 힐러리 클린턴(우)

역대급 '비호감' 대선후보들 지지 망설이는 유권자

클린턴 비호감도 56% vs. 트럼프 63%

(서울=뉴스1) 손미혜 기자 = 힐러리 클린턴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의 호감도가 바닥을 모른 채 끊임없이 떨어지고 있다. 다시 한번 클린턴의 비호감도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미 워싱턴포스트(WP)와 ABC 방송이 공동실시해 31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가운데 56%는 클린턴이 '비호감'이라고 답했다. 이는 3주 전보다 6%포인트(p)나 올라간 것으로 WP/ABC 공동여론조사 역대 최고치다.

트럼프에 대한 비호감도도 63%로 압도적이었다.

등록 유권자에 한정할 경우 두 후보의 비호감도는 거의 막상막하를 기록했는데, 클린턴이 비호감이란 응답자는 59%, 트럼프가 비호감이라는 응답자는 60%로 사실상 동일했다.

등록 유권자 중 클린턴에 호감을 표한 응답자는 38%, 트럼프에 호감을 표한 이들은 37%에 그쳤다.

WP/ABC방송에 따르면 이같은 비호감도는 최근 미국 대선 역사상 전례 없는 수준이다. 1992년 당시 가장 낮은 인기를 기록했던 조지 H.W. 부시 전 대통령의 비호감도도 53%로 트럼프, 클린턴보다는 낮았다.

특히 클린턴의 이미지는 최근 다시 불거진 '이메일 스캔들'과 클린턴재단의 국무부 유착 의혹 등으로 큰 타격을 받았다. 이로 인해 클린턴의 탄탄한 지지계층이었던 여성과 히스패닉 사이에서의 지지율도 각각 54%에서 45%, 71%에서 55%로 급락했다.

가을 대선을 불과 2개월여 앞둔 시점에, 클린턴의 최근 평균 지지율은 42%로 트럼프(37%)에 5%p 차이로 살짝 앞서고 있다.

여론조사 분석가 찰리 프랭클린은 응답자 가운데 약 5분의 1가량이 양당 후보의 비호감 때문에 선호하는 후보가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yeoulim@news1.kr

SAPPORO
JAPANESE ASIAN RESTAURANT
뉴 사っぽ로 레스토랑
한식·일식·중식
617.964.8044
81 Union Street, Newton Center, MA 02459

HAPPY
해피돌상
문의 617.248.3131 Happydol@com

RE/MAX
Eileen Park (마일린 박)
REALTOR®
RE/MAX Unlimited
주백 | 콘도 | 커머셜
섬삼짱 도와드리겠습니다
Tel: 617.935.3241 | 카카오톡: Eileen0311
Email: EileenBostonRE@gmail.com
420 Harvard Street, Brookline MA

YOUNG DENTISTRY 손영권 치과
좋은 치과, 좋은 치아
Young K Son, DMD
youngdentistrypc.com
978.459.0594
674 Rogers St. Lowell, Massachusetts 01852

애플, 이달 7일 신제품 공개 행사 '초대장 발송'

(서울=뉴스1) 황윤정 기자 = 애플이 이달 7일에 신제품 공개행사를 가진다. 애플의 론칭 행사는 오전 10시 샌프란시스코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애플은 29일 성명을 통해 다음 달 신제품 공개 행사의 개괄적인 내용을 발표했다.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애플의 초대장에는 신제품 공개 여부를 비롯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기술 관련 블로그인 나인투파이브 맥은 행사에서 애플워치2와 새로운 맥북프로 또한 공개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어폰이 제거되고 새로운 색상 옵션이 추가된 아이폰7의 공개도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월가 전문가들은 아이폰7이 애플의 향후 성장 전망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BGC의 콜린 길리스 애널리스트는 "새로운 아이폰에 대한

요구는 과거 6s모델보다 부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yung@news1.kr



월가 레전드 투자자 "넷플릭스 매도...M&A매물 될 것"

쿠팡만 회장, 주식 투자 비중 줄여... "85%→60%"

(서울=뉴스1) 황윤정 기자 = 지난 7월 19일 부진한 2분기 실적을 발표한 뒤 미국 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업체 '넷플릭스'는 하루 만에 13% 이상 급락했다. 이후 낙폭을 만회하며 8월 한 달간 주가는 7% 가까이 올랐지만 넷플릭스의 미래를 바라보는 투자자들의 시선은 여전히 곱지 않다.

월가의 전설적 헤지펀드 투자자이자 오메가어드바이저스의 회장인 레온 쿠팡만은 31일 CNBC에 출연해 "특별한 이유는 없지만 더 이상 넷플릭스에 투자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른 IT기업이 매우 좋은 가격

조건에 넷플릭스를 인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 2분기 실적 발표를 지켜본 투자자들은 넷플릭스의 향후 성장성에 대해 짙은 의구심을 드러냈다. 성장의 핵심 축인 구독자수가 정체됨에 따라 실적 부진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었다. 지난 2분기 넷플릭스는 168만명의 신규 가입자를 확보하는데 그쳐 시장 전망치인 200만명에 크게 미달하는 수치를 기록했다.

이에 쿠팡만 회장은 "넷플

릭스는 잠재적 매물"이라고 진단하며 "넷플릭스가 아닌 다른 기업에 투자할 것이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현재 그는 전체 운용자산의 65%를 주식에 투자하고 있다. 과거 그는 평균적으로 운용자산의 85%에서 90%가량을 주식에 투자해왔다.

yung@news1.kr



리드 헤이스팅스 넷플릭스 공동창업자 겸 최고경영자(CEO)



버락 오바마, 미셸 오바마의 20대 시절 첫 데이트를 다룬 영화 '사우스사이드 워드 유'

드니로 제친 오바마? 버락·미셸 첫데이트 그린 영화 '순풍'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미셸 오바마의 첫데이트를 그린 로맨스영화 '사우스사이드 워드 유(Southside With You)'가 개봉 3일만에 310만 달러(34억 8719만원) 흥행 수입을 냈다.

미 박스오피스모조 집계 결과 지난 26일 미 전역 813개관에서 개봉한 '사우스사이드 워드 유'는 저예산 영화임에도 주말(26~28일) 박스오피스 13위에 올랐다. 같은 날 개봉한 로버트 드니로 주연 '핸즈 오브 스톤'의 성적도 크게 제친 것이다.

영화는 1989년 시카고 로펌에서 함께 근무하던 버락과 미셸이 '첫 데이트'에 나선 달콤한 순간을 다룬다.

극중에서 미셸은 오바마를 부드러운 남자로는 보지만 이날은 데이트가 아니라고 못박으며 다소 방어적인 태도를 지닌다. 버락은 "그녀가 맞다고 하기까지" 데이트가 아니라며 미셸을 존중하면서도 경청과 공감으로 그녀의 맘을 조

금씩 흔들어 놓는다.

흑인감독 스파이크 리의 '뚝박로 살아라'를 즐긴 버락과 미셸은 '베스킨 라빈스' 가게 앞에서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첫키스를 나눈다.

이 장면은 오바마가 2007년 인터뷰에서 말한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이다. 당시 오바마는 첫키스에 대해 "그녀에게 키스했는데 초콜릿 맛이 났다"고 말했다.

극중 버락은 과거 소녀, 미셸은 티카 썬터가 연기했다. 감독 리타 드텐은 이 영화가 첫 연출작이다. 선댄스영화제에 출품돼 호평을 받았던 이 영화는 비평사이트 로튼 토마토에서 93% 지지율을 받았다.

yjw@news1.kr



"전문적인 치료, 진실된 치료, 진심을 담은 치료, Smart Dental이 추구합니다"



JEONG LEE, D.M.D., MMSc., PhD.
원장 이정숙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1990년 졸업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박사학위 2000년 취득
- 서울부부치과원장 1994년-2006년
- Tufts School of Dental Medicine 2009년 졸업
- Harvard School of Dental Medicine 보철과 2012년 졸업

SMART DENTAL
452 Pleasant St., Malden MA 02148
Office: 781 322 4914
Fax: 781 605 3797
Email: maldensmartdental@gmail.com



정관장 정품은 정관장만 취급하는 "브랜드스토어" 에서 구입해야 안전합니다.



우리가족 면역력 지킴이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홍삼의 주요효능 | 면역력 개선 / 동맥경화, 고혈압 예방 / 혈당강하, 당뇨 합병증 예방 / 혈액순환 개선 /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 기력회복 / 간기능 개선

잔치 하나

240g 홍삼정 구입시
50g(\$50상당) 증정



잔치들

추출액, 홍삼톤골드 구입시
홍삼캡슐(\$50상당) 증정



MART Burlington점 안에 위치해 있습니다
보스톤 정관장 브랜드스토어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 타주로도 배송 해드립니다.
781-238-0303

정관장
한가위
대잔치

9월 15일까지



추석

9월 15일 (목) 까지

전화주문 서비스

FedEx 로 주문 다음날 편하게 받으세요.
\$100 이상 주문시 무료배송

보스톤코리아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전화: 617.792.6876 이메일: bostonkorean@hotmail.com

JESSICA BEAUTY

한국 종합 화장품 | 참존 화장품 직영

시선집중 잡티개선, 주름개선, 탄력개선, 미백까지...

"화장품에도 당신의 인격과 품격이 묻어납니다"

나만의 화장품으로, 내 피부는 내가 만든다. 소비자의 선택을 도와주고 행복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드디어 상륙 참존 스킨타우샴에서 피부관리 하시는
멤버에게만 사용하는 제품

처진 피부에 회소식
스킨타우 샴프리미엄 리와이징 크림으로
처진 피부를 개선 (탄력강화 조직이 살아납니다)
잡티 개선 천연셀 비타민C.E크림



617.770.0188
온라인 쇼핑몰 오픈 | 무료배송

JessicaSecret.com

219 Quincy Ave. #31-A, Quincy, MA 02169
金門 Kam Man Food 중국마켓 안에 있습니다

본회의의 무산 · 의장실 점거...정기국회 첫날부터 파행

與, 정세균 국회의장 개회사에 반발 · 본회의의 거부
丁, 사과 · 사회권 이양 거부...與, 2시간 의장실 농성

(서울=뉴스1) 최종무, 서송희, 김정률, 이정우 기자 = 20대 국회의 첫 정기국회가 시작부터 파행으로 얼룩졌다.

1일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었던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과 김재형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등이 무산됐다.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야당 단독으로 진행했고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도 불발됐다.

발단은 정세균 국회의장의 정기국회 개회사였다.

정 의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국회의장은 영어로 '스피커'인데 상석에 앉아 위엄을 지키는 '체어맨'이 아니라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스피커로 쓴소리 좀 하겠다"며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과 사드 등 여권에서 민감하게 생각하는 현안을 꺼냈다.

그는 "국민의 공복인 고위공직자, 특히 청와대 민정수석이라는 자리는 티끌만한 허물도 태산처럼 관리해야 하는 자리"라며 "민정수석은 검찰에 대한 영향력을 크게 행사하는 자리다. 그런데 그 당사자가 그 직을 유지한 채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을 국민들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라고 했다.

정 의장은 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을 주장했고, 사드 배치에 대해선 "정부의 태도는 우리 주도의 북핵 대응이라는 측면에서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비판했다.

정 의장의 이날 발언은 무당적일 의 무화할 정도로 정치적 중립을 요구받는 국회의장으로서 부적절한 게 아니냐는 논란을 낳기에 충분했다.

당장 새누리당은 정 의장의 발언에 즉각 반발했다. 연설 도중 여당 의원석에서는 "사과하세요"라는 고성 이 터져나오다가 하면 일부 의원들은 본회의장을 박차고 나가기도 했다. 개회사가 끝나자마자 "국회의장의 태도가 아니다"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새누리당은 개회식 직후 예정됐던 단체 기념사진 촬영도 거부했다.

새누리당은 개회식 직후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정 의장을 성토했다.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정 의장의 개회사에 대해 "중증의 깊은 대선병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내년 대선에서 본인이 나가든 자기가 과거 소속된 정당이 집권하기 위한 대권병 이외에 다른

결로 해석이 안되는 헌정사상 초유의 도발"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야당의 대변인 역할을 하는 국회의장을 믿고 상대하고 국회 의사일정을 맡길 수 없다"며 "의장의 납득할만한 사과조치가 후속되지 않으면 새누리당은 이 시간부터 정기국회 의사일정에 임하지 않겠다"고 보이콧 의사를 밝혔다.

새누리당은 정 의장에 대한 사퇴촉구결의문을 채택하고, 국회 윤리위 제소 방침도 세웠다. 이정현 대표, 정진석 원내대표 등 새누리당 지도부는 국회의장실을 찾아 항의를 하면서 정 의장의 사과를 요구했다.

하지만 정 의장은 개회사 관련 입장 표명을 통해 어떠한 정치적 의도 없이 국민의 뜻을 받들어 현안에 대한 입장을 사심없이 얘기했다면서 물러서지 않았다.

그러면서 "추경 등 시급한 현안처리를 위한 본회의의 참석을 여야 의원들께 간곡히 요청한다"며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추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두 차례에 걸쳐 의장실을 방문했지만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자 밤 10시 25분께 기자회견을 열고 정 의장을 향해 "추경이 시급하니 사회권을 부의장에 넘겨라. 여당도 좋고 야당도 좋으니 사회권을 넘겨라"고 요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정 의장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면서 "지금 누구 때문에 추경 처리가 뒤로 미뤄지고 국회가 파행되고 있는데 아무일 없다는 듯이 의장 사과를 듣지 않고 추경 처리를 하라는 말이냐"고 반문했다.

정 의장과 새누리당의 갈등 속에 급기야 새누리당 의원 70여명이 국회의장실을 사실상 점거하는 사태로까지 이어졌다.

정 원내대표를 비롯한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날 밤 의장 비서실장 등 의장실 직원들의 저지를 뚫고 의장실로 물러들었다. 이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지고 고성과 폭언이 오가는 등 소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의장실을 점거한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날 정 의장의 정기국회 개회사를 강력 성토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의원들의 항의를 한참 듣고 있던 정 의장은 "여러분들은 지금 예의를 넘으셨다. 지금 이게 뭐하자는 거냐"고 발끈했다. 그러면서 "이게 지금 뭐하자는 겁니까. 이 상태로는 대화를 나눌 수 없으니 돌아가세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정진석 원내대표는 "오늘의 파행은 국회의장이 원인을 제공한 것"이라며 "최소한 일말의 책임감을 느끼셔야 한다"고 지적했다.

결국 정 의장이 2일 아침까지 합리적인 방안을 알려주기로 하면서 새누리당 의원들은 약 1시간 50분 동안의 의장실 점거를 풀었다.

새누리당의 격앙된 반응과는 달리 야당 측은 정 의장의 개회사에 대해 "잘했다", "할 말을 했다"는 반응을 보였다. ykjm@news1.kr



새누리당 의원들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을 찾아 정세균 국회의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전병렬 산부인과

“여성의 건강을 생각합니다”



임산부 산전후 관리 및 분만

- 임신진료
- 초음파 검사
- 출산 케어

전 연령대 여성들을 위한 포괄적 진료

- 자궁암 검사 및 예방 주사
- 부인과 대소수술
- 각종 성병 검사, 치료
- 각종 피임법 및 갱년기 장애

절대 비밀 보장

지금 전화하세요! **781.787.3003**
다음날 예약 진료 가능

Women's Healthcare of Woburn

444 Washington Street, Suite 100
Woburn, MA 01801
www.billchunmd.com

H MART

CUSTOMER SERVICE

TOLL FREE T. 877.427.7386
Customer_care@hmart.com



For events, coupons & exclusive deals, subscribe at www.hmart.com, and Visit our Facebook, Twitter, Pinterest & Instagram to stay up to date on special offers!

BURLINGTON WEEKLY SALE SEP. 2ND - SEP. 8TH, 2016

KOREAN SPICY RIBS 노동절맞이 바베큐 파티를 위한 H마트 스타일 특제 바베큐, 고추장 등갈비!

Fall apart juicy ribs with Korean sweet-spicy sauce, welcome to heaven.

Share it facebook.com/hmartofficial Learn to cook it pinterest.com/hmartusa Hmart.com에서 다양한 벡투스쿨 상품을 만나보세요!



White Nectarine 백전도 \$1.69 lb.	Ginger 생강 \$0.88 lb.	Crown Broccoli 크라운 브로콜리 \$0.88 lb.	Korean Wonhwang Pear 한국산 원황배 5cmt/box \$29.99	Organic King Oyster Mushroom 유기농 새송이 버섯 \$3.99 8oz./pkg.
Packed Garlic 떡 마늘 5cmt/pkg \$2.99 pkg./for	White Peach 백도 \$1.69 lb.	Eddo 토란 \$1.49 lb.	JINGA Tofu 진가네 두부 Firm/Soft - 16oz. \$0.99	ZESPRI Sun Gold Kiwi 제스프리 썬골드 키위 \$21.99 box

MEAT at unbeatable low prices

Beef Rib Eye Steak 꽃등심 스테이크 \$15.99 lb.	Sliced Pork Single Belly for BBQ 바베큐용 상등 삼겹살 \$4.99 lb.
Beef Eye Round Chunk 장조림용 콩두개 \$6.99 lb.	Chicken Drumstick 치킨 드럼스틱 \$1.49 lb.
Boneless Pork Loin for Cublet 뼈없는 돈까스용 돼지고기 \$4.99 lb.	Marinated Sliced Beef Rib Eye Steak 양념 불집 등심 스테이크 \$6.99 lb.

SMART CARD Get smart and save more & big.

Kyong Gi Medium Grain Rice 정기미 15 lb. \$9.99	SHIRAKUJ Calrose Shirakuj Rice 저알카리 정미 15 lb. \$8.99
MONGSHIM Zha Wang Noodle with Roasted Black Bean Sauce 4.7oz. x 40/pkg. \$3.99	DAECHUN Seasoned Fried Seaweed Laver All Varieties - 5.7oz. x 100/pkg. \$9.99

2016년 하반기 34년 전통의 미국 최대 고국산품인 한아름 고국통신함에 9월 15일 추석맞이 고국통신 선물세트 최대 20%할인

- 2016년 9월 25일까지 -

한아름 제철 고추를 선별해 정미의 여생을 즐기세요. 한아름 고국통신에 34년 전통의 정미와 함께 추석맞이 선물세트입니다. 최고의 품질과 34년 전통의 정미로 20%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전화 주문 : 201-229-1111 / 인터넷 주문 : www.hmart.com

SEAFOOD at shockingly low prices

Whiting 생선 \$1.99 lb.	Louisiana Wild Headless Shell-on White Shrimp Shrimp from Louisiana. Never frozen. Never boiled. 부엌에서 바로 조리할 수 있는 흰색우 26-30's \$8.99 lb.
Cooked Chilean Mussel Meat 질계산 용량상 80-100's \$3.99 lb.	Scallop 조개 편지 40-60's \$5.99 lb.
Striped Bass 농어 \$3.49 lb.	Salted Yellow Croaker 저염 삼골비 \$5.99 lb.

CJ 햇반 백스 CJ Cooked White Rice 7.4oz. x 12ea/box \$14.99	PULMUONE Cold Noodle Buldog - 55oz. (Shredded with Radish Korea 200' - 30oz.) \$3.99	개미마을 울미역 회생면 K-TOWN Korean Style Cold Noodle w/ Raw Rdy Fish \$4.99 1.25 x 2.46 lbs.	KADOYA Pure Sesame Oil 가도야 정제들 588 oz. \$14.99	두부용 소고개 양념 HAIKORUM Korean Style Beef BBQ Sauce \$3.99 8oz./pkg. 2.11 lb.
장미 쌀국수 \$3.99	CJ 비빔고 울면두/굴면두 CJ Bi-bim Classic Dumpling/Onion Potstickers 1.25 - 2.46 lbs. \$6.99	빙그레 향어 케이크 BINGGRAE Samanco Ice Cream Sandwich \$3.99 5.07oz x 4ea. (PKG)	GLIND Paddy Biscuit Sticks Chocolate - 4.17oz. Strawberry - 4.17oz./2ea. (pkg.) \$2.99 글리노 박제	INJICORN Aloe Vera Drink 제주도 물결이 배려 드링크 All Varieties 5L 2.11 lb. 2\$5
BONNE MAMAN Fruit Preserves 본 마담 잼 All Flavors/3oz. \$2.99	정가네 라우미 드링크 SANGARIA Ramune Drink All Flavors - 200ml x 40/pkg. \$5.99	LIVING MODERN Stainless Steel Stock Pot 리빙 모던 스테인리스 공업 \$39.99	글라스락 제식각형 현대형 열병용기 GLASS LOCK Food Container \$9.99	디글라스 리빙 플라워 종이 꽃병 세트 THE GLASS Herb Flower Printed Water Bottle Set \$5.99

During the editing process, there may be misprints/typos. Each location may be subject to limited availability, as well as their sale prices. Some products may be sold out. If a product is not listed as a boxed sale item, it cannot be purchased as a boxed sale item. All H-mart locations accept all major credit cards. H-MART BURLINGTON STORE 42 Middlesex Turnpike, Burlington, MA 01803 / TEL: 701-221-4370 / STORE HOURS: Sun - Thu: 9am - 9pm / Fri - Sat: 9am - 10pm

정세균 개회사에 추경 불발 · 정기국회 올스톱...정국 급랭

丁의장, 우병우 · 사드 등 민감 현안 작심 비판
與, 의사일정 보이콧 반발...추경안 처리 등 무산

(서울=뉴스1) 김현, 김정률, 박승주, 박승희 기자 = 여야가 20대 국회의 첫 정기국회가 개최한 1일 정세균 국회의장의 개회사를 둘러싸고 충돌을 빚으면서 출발부터 험로를 예고했다.

정 의장이 개회사를 통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의혹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등 여권이 민감해하는 쟁점현안을 작심하고 비판하자, 이에 반발한 새누리당이 의사일정을 전면 거부하고 정 의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등 '강(強) 대 강(強)' 대처로 전환되면서 정국이 급랭하고 있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여소야대'로 재편된 의회 구도에서 민감한 쟁점현안이 산적할 뿐만 아니라 내년 대선까지 염두에 둔 각 당의 전략과도 맞물릴 경우 정기국회가 난항이 예상되는 것은 물론 정국 대치가 장기화할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당장 여야간 대처로 이날 의결할 예정이었던 11조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과 김재형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등이 무산됐고, 김재수 농림축

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야당 단독으로 진행됐으며,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인사청문경과 보고서 채택도 불발됐다.

정 의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국회의장은 영어로 '스피커'인데 상석에 앉아 위엄을 지키는 '체어맨'이 아니라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스피커로 쓴소리 좀 하겠다"며 우 수석 논란과 사드 등 민감한 현안을 꺼냈다.

국회의장이 여야간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정치적 현안들에 대해 이처럼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정 의장의 이날 발언은 무당적을 의무화할 정도로 정치적 중립을 요구받는 국회의장으로서 개인적인 의견을 직설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정치적 논란을 야기하게 됐다.

정 의장의 발언에 여당 의원들은 즉각 반발했다. 연설 도중 여당 의원석에서는 "사과하세요"라는 고성 이 터져나오다가 하면 일부 의원들은 본회의장을 박차고 나가기도 했다. 개회사가 끝나자마자 "국회의장의 태도가 아니다"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개회식

직후 예정됐던 단체 기념사진 촬영도 거부했다.

새누리당은 개회식 직후 긴급 의원 총회를 열고 정 의장을 성토했다.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정 의장의 개회사에 대해 "중중의 깊은 대선병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내년 대선에서 본인이 나가든 자기가 과거 소속된 정당이 집권하기 위한 대권병 이외에 다른 걸로 해석이 안되는 현정사상 초유의 도발"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야당의 대변인 역할을 하는 국회의장을 믿고 상대하고 국회 의사일정을 맡길 수 없다"며 "의장의 납득할만한 사과조치가 후속되지 않으면 새누리당은 이 시간부터 정기국회 의사일정에 임하지 않겠다"고 보이콧 의사를 밝혔다.

새누리당은 정 의장에 대한 사퇴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고, 국회 윤리위 제소 방침도 세웠다. 이정현 대표, 정진석 원내대표 등 새누리당 지도부는 항의방문차 국회의장실을 찾아 정 의장의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새누리당은 현재 오후 9시까지 정 의장의 입장 표명을 요구한 상태다.

이에 대해 야당 측은 개회사가 끝난 뒤 박수를 치며 "잘했다", "할 말을 했다"는 반응을 보였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정을 책임지는 집권당답지 못하다"라고 비판했고, 같은 당 이상호 원내대표도 "거슬리는 소리가 있다고 다 (의사일정) 거부하면 어떻게 여당을 하느냐"고 쏘아붙였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역시 "중차대한 추경을 보이콧해 버리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성토했다.

정 의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야당의 목소리가 아니라 국회의장이 국민을 대신해 말씀드린 것"이라고 밝혔고, 여당 의원들의 반발에 대해서는 "내 진의를 잘 아실 것"이라며 사과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여야가 정면으로 대치하면서 이날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해 소집될 예정이었던 본회의가 열리지 못했고, 새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상임위법인사청문회도 파행하거나 아예 공전했다.

현재 여야가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어 국회 공전 상황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번 정기국회를 대선 전초전으로 생각하고 있는 여야가 초반 기선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국회 파행의 장기화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gayunlove@news1.kr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기국회 개회식에서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개회사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



1일 서울 중구 한 식당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지도부 조찬모임에서 김종인 전 비대위 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종인, 與에 "丁의장이 못할 소리했다"

"본회의 안할 작정인지 이해안돼...與가 견뎌야"
"시작하자마자 정화...앞날 걱정" 폐북에 글 남겨

(서울=뉴스1) 조소영, 서미선, 박승희 기자 =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전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1일 정세균 국회의장의 정기국회 개회사에 반발해 20대 국회 의사일정 보이콧 방침을 밝힌 새누리당을 향해 "정 의장이 못할 소리 한 것도 아니잖나"라고 비판했다.

김 전 대표는 이날 정기국회 개회식 뒤 국회에서 뉴스1과 만나 "그렇다고 (20대 첫 정기국회 개회식) 사진을 안 찍으면 어떡하느냐. 오늘 추가경정예산안도 (처리)해야 하고 대법관 임명동의안도 (통과)해줘야 하는데 본회의를 안해버릴 작정이냐"며 "나는 이해가 안 된다"고 이같이 말했다.

김 전 대표는 "저렇게 (새누리당이) 크게 반응을 보일 일도 아니다"며 "의장이야 자기 위치에서 하고 싶은 말을

한 건데 그걸 갖고 국회의원이 시비를 걸면 어떡하느냐. 참고 견뎌야지"라고 했다.

김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도 "오늘이 20대 국회의 정기국회 첫날이다. 시작하자마자 정화됐다"며 "앞날이 무척 걱정된다"고 글을 남겼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 개회식에서 개회사를 통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자진사퇴와 사드(THAAD) 배치 공론화를 주장했고, 새누리당은 야당 편을 들어준다고 반발하며 본회의장을 박차고 나갔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정 의장의 사과표명이 없다면 정기국회 의사일정에 임하지 않겠다고도 했다.

cho11757@news1.kr

추미애, 이승만 · 박정희 묘역 참배로 시작...'통합' 강조

세월호 농성장도 방문 예정...선명성 경쟁도 의식

(서울=뉴스1) 조규희, 박승희 기자 =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號)의 키를 잡게 된 추미애 신임 당 대표가 29일 출항 첫 날부터 여야, 진보·보수를 넘나드는 광폭행보에 나섰다.

추미애 대표는 이날 오전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이승만·박정희·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다. 전직 대통령 참배에 있어 죄우를 따지지 않는 '통합' 행보다.

더민주 당대표 자격으로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것은 문재인·김종인 전 대표에 이어 세번째다.

추 대표는 묘역 참배 후 기자들과 만나 "한 시대마다 시대의 과제가 있었는데 오늘날의 시대는 '민생을 살리라. 대한민국 국민이 하나가 돼라. 통합하라'는 시대의 과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첫 최고위원회에서도 "독재에 대한 평가는 냉정하게 하되 공과(功過)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국민통합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박근혜 대통령도 연속 3년

추 대표는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와 상견례 자리에서는 "야당 대표로 국민이 바라는 것을 잘 전달할테니 제가 전달하는것을 국민의 목소리로 여기시고 경청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추 대표는 오후에도 백범 김구 선생 묘역을 참배하고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 김재원 청와대 정무수석 등을 만날 예정이다.

아울러 추 대표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연장 등을 요구하며 단식에 들어간 세월호 유가족 단식농성장을 방문해 유가족에게 위로와 격려를 전할 것으로 보인다.

playingio@news1.kr



참배하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

**보스톤의 한글교육,
보스톤한국학교가 책임집니다!**

- ☑ **교재가 확실하다!**
- ☑ **교사진이 확실하다!**
- ☑ **한국문화가 확실하다!**

첫째, 뉴잉글랜드 유일의 단계별 학습교재 **아눔이(Anopi) 교재** 사용!

둘째, 교사 경험 3년 이상의 **한국, 미국 교사자격증 보유교사** 유치!

셋째, 붓글씨, 발음, 부채춤, K-POP, 민중놀이, 한국요리 **체험학습!**

결론은 보스톤 한국학교입니다!

BKS 등록금 안내

Tuition: Half Year (16 Saturdays)
 Regular Classes:
 \$310 (one child)
 \$580 (two children)
 \$770 (three children)
 Afternoon Class: \$190 (lunch included)
 개학날: Sep 10 2016
 준비물: 필기도구, 3ring 바인더, 문방, 스낵

28년 전통의 보스톤 한국학교에서 2016-2017 학년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연락처 | 강상철 교장 Email: uno@sangkang.com Tel: 978-509-8708 Web: www.bostonkoreanschool.org

보스톤코리아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전화: 617.792.6876 이메일: bostonkorean@hotmail.com



MSTA
Massachusetts State Taekwondo Association

메사추세츠주 태권도 협회

Massachusetts State Taekwondo Association



고문단장: 안 남 열



고문: 이 강 원



회장: 정 제 형



부회장: 허 훈



부회장: 리치안



사무총장: 전 명 호



회계: 김 희 용

www.masta.us



고문: 구 정 회



고문: 조 형 구

웹사이트: 강 창 남

시범단장: 홍 순 우

경기위원장: 강 민 석

심판위원장: Michael Agosti

홍보부장: Maureen Maher-Killelea




2016년 메사추세츠 주 태권도 협회원 가입현황

• 단계회원(\$200/년): 정제형, 허훈, 리치안, 홍순우, 김희용, 전명호, 강민석

• 정회원(\$100/년): 강창남

370 Boston Tpk., Shrewsbury, MA 01545
 Phone 508-792-5534 . FAX 508-767-0113

조윤선 청문회 단전, 여당의원들 강한 항의로 막말·고성

누리과정 추경 야당 단독처리에 여 강력 반발 청문회의 막장 싸움에 조윤선 후보자는 여유, 웃음도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위해 31일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누리과정(3~5살 무상보육)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절차 문제를 놓고 여야가 거세게 충돌하며 막말과 고성으로 이어졌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10시로 예정된 교문위 전체회의에 55분 '지각' 출석하며 지난 29일 야당이 교문위 전체회의에서 지방교육채 상환을 위한 추경안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킨 것을 두고 유성엽 교문위원장이 사퇴해야 한다고 거세게 항의했다.

국민의당 소속 유 위원장은 "지난번 회의때도 (여당이) 1시간반을 기다

리게 해놓고, 이게 아주 버릇"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여야 의원들은 청문회 시작도 전 서로 반말을 하며 비속어에 가까운 말을 쓰고, 손가락질을 하는 등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한선교 새누리당 의원이 유 위원장이 야당 편향적이라 취지의 비판을 하자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선교! 창피한 줄 아세요"라고 소리치다 바로 반말을 사과했다. 그러나 여당한 의원은 "그렇게 사과하면 뭐냐"고 맞받았다.

이은재 새누리당 의원이 유 위원장에게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이자 손혜원 더민주 의원은 "닥치세요"라고 했고, 이 의원이 "멍텅구리"라고 하자

손 의원은 거듭 "닥치세요"라고 소리쳤다.

이 의원은 "창피하다. 제대로 배웠어야 말이지, 그런 용어밖에 모르잖아"라고 했고, 손 의원은 "저렇게 수준 없이 떠들고 있다. 창피한 줄 모르고"라고 맞섰다.

이장우 새누리당 의원은 안철수 국민의당 전 상임 공동대표에게 화살을 돌려 "이게 새정치냐"고 공격했고, 안 전 대표는 대응하지 않았으나 같은 당 이동섭 의원이 반말을 하며 반박했다.

결국 오전 중 청문회 본 질의는 진행되지 못했고, 오후에도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채 야당만 참석한 '반쪽 청문회' 사태가 발생했다.

손 의원은 오후에 속개된 회의에서 자신의 질의순서가 되자 "극도로 소란스러운 것을 자제시키려 하다 다소 과한 표현을 사용한 것에 위원장과 동료 의원, 국민 모두에 사과드린다"고 고

개를 숙였다.

이어 "야당 의원들에게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언사로 싸잡아 폄훼한 새누리당 의원들이 있었지만 앞으로 그분들이 어떤 표현을 쓰건, (어떻게) 의사 진행발언을 방해하든 다시는 그런 과한 표현을 쓰지 않을 것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유 위원장은 "거기까지는 의사진행 발언으로 보이기 때문에 다시 10분(질 의시간을) 드리겠다"며 "아주 발언 잘 하셨다. 잘한 발언은 자주 격려해드려야 한다"고 언급했다.

smith@news1.kr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이은재, 이장우 새누리당 의원이 유성엽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 하고 있다

조윤선 청문회 野 단독 진행...재산·역사관 공세

누리과정 예산 증액 절차 문제로 파행...與 '보이콧'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31일 야당 단독으로 진행됐다.

이날 오전 인사청문회를 위해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는 누리과정(3~5살 무상보육)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절차 문제로 시작부터 여야 간 막말·고성이 오가는 등 파행을 거듭했다.

새누리당 소속 교문위원들은 앞서 지난 29일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세계잉여금 1조2000억원 중 6000억원을 지방교육채 상환으로 쓰도록 한 추경안을 야당 단독으로 처리한 것에 문제삼으며 국민의당 소속 유성엽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유 위원장은 정회를 선포했고 오후 들어서도 여당 위원들이 출석하지 않아 야당 위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조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시작했다.

야당은 박근혜정부에서 여성가족부 장관과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을 지냈고 문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조 후보자에게 재산과 변호사인 남편의 사건수입 문제, 역사관 문제 등을 거론하며 공세를 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 후보자 배우자가 2008년 8월부터 2010년 5월까지 공정거래위원회 관련 사건 26건을 수임한 것이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방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조 후보자는 당시 18대 국회의원으로 전반기 2년간 공정위를 피감기관으로 둔 정무위원회에서 활동했다.

조 후보자는 "남편과 저는 변호사 시절부터 지금까지 어떤 회사를 어떻

게 대리하는지 가족간에도 말하지 않는 걸 철칙으로 삼았다"며 "남편이 수임한 사건과 관련해 내용을 받거나 검토한 적은 추호도 없다"고 해명했다.

재산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신동근 더민주 의원은 지난 5년간 조 후보자 부부가 36억원을 지출했다면서 하루 평균 200만원을 쓴 셈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민기 의원은 "지난 13년간 136억원을 썼다"고 주장했다.

조 후보자는 "부부 한달 카드대금이 2000여만원 정도"라며 "생활비와 남편의 사무실 운영비, 제가 사회생활을 하며 사용하는 카드대금이 모두 합해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2011년 아파트 전세보증금 4억 5000만원 증액된 것을 당시 재산신고에 누락했다고 시인, 이듬해 재산이 갑자기 늘어난 것처럼 보인다고 "제 불찰"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역사관 검증도 이뤄졌다. 안민석 더민주 의원이 최근 정치권에서 불거진 '건국절 논란'을 질의하자 조 후보자는 "건국 용어를 쓴다고 임시정부 법통을 경시하는 건 아니라 생각한다"며 "건국절 문제는 국회에서 국민의 의견과 함께 논의할 문제"라고 했다.

같은 당 조승래 의원은 한일 정기간 위안부 합의를 언급, 당시 여가부 장관으로 위안부 할머니와 관련한 적극적 활동을 한 것과 관련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지 물었다.

조 후보자는 "당시 위안부 할머니들..."이라며 답변을 하려다 울컥하며 말을 잊지 못하기도 했다. 그는 일본의 소녀상 철거 요구에는 "개인적으로는 (소녀상 철거에) 동의하지 않는다. 정부가 결정할 문제도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노웅래 더민주 의원은 "관련 경력이 없는데 (문체부)장관이 되는 건 국민 입장에서 '박(박근혜 대통령)의 여인'이라 개인 친분을 통해 장관, 민정수석을 시키냐고 할 수 있다"며 '회전문 인사' 문제를 제기했다.

또 노 의원이 장관 후보자 임명 30분 만에 정부서울청사에서 조 후보자가 인사말을 했으며 "장관이 아니면 서울청사에서 브리핑, 인터뷰를 하면 안 된다"고 꼬집자 조 후보자는 "맞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인사만 드리고 온다는 게 오히려 소지가 있는 부적절한 행동이 됐다"며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생각이 짧았던 점이 많아 책임을 통감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마무리되면 교문위는 1일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smith@news1.kr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김재수 청문회, 전셋값·금리·노모

야당 공세에 여당은 방어 주력

(서울=뉴스1) 조규희, 박승희 기자 = 회에서는 전셋값·대출금리 특혜 의혹, 부동산 투기 논란, 모친 차상위 계층 의료비 수급 등이 도마에 올랐다.

야당은 각종 의혹에 대해 김 후보자를 매섭게 몰아붙였다.

김현권 더민주 의원은 대출금리에 대해 "김 후보자의 가계자금 대출이 2.4%, 나머지 대출은 2.0%, 주택자금 대출은 1.42%"라며 "도저히 서민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저리의 이자를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사 짓는 사람들이 진짜 이자를 많이 낸다. 빛도 많고, 그런데 농업계 고위 공직에 계신 분이 이런 '별나라' 같은 이자를 쓰고 있으면 (국민이) 울화통이 터지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박완주 더민주 의원은 김 후보자의 1억 9000만원 93평 아파트 전셋값 의혹을 집중 추궁, "김 후보자가 살았던 2014년 6월 30일에 같은 평수의 아파트 전셋값이 최저 3억 5000만원, 최고치는 5억원이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경기 용인의 93평 아파트를 7년간 전셋값 인상없이 전세로 거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철민 더민주 의원은 김 후보자 어머니의 의료비 차상위계층 대상자 선정을 따졌다.

김 의원은 "장관 후보자가 노모를 잘 부양하지도 않고 잘 보살피

지 않았다"며 "이런 후보자가 장관이 됐을 때 농민들은 '노모도 제대로 못 모시는 사람이 300만 농민을 어떻게 챙기겠냐'는 의구심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불거진 의혹에 대해 김 후보자를 방어하는 데 주력했다.

이양수 새누리당 의원은 아파트 전셋값 논란과 관련해 "1억9000만원에 7년간 거주한 그 아파트는 안 나간(매매·전세) 아파트가 더 많았다"며 "그래서 공짜로 와서 살아달라고 업체가 한 적도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만희 의원은 "1층이고 오래 방치된 집이라 주변 시세가 2억2000만원정도인걸로 안다"고 말했다.

김태흠 의원은 노모의 의료비 수급과 관련해 "아픈 가족이지만 이혼하시고 생모가 혼자 사시다보니, (김 후보자가) 모시지 않아 소홀했던 부분"이라며 "지자체에서는 어머니가 주민등록상 혼자로 돼 있고 하니 차상위계층으로 분류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playingjo@news1.kr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무제한 BBQ 스페셜

All You Can Eat!
맛있는 배부름~~

다양하고 신선한 고기를 마음껏 즐기세요!

COURSE "A" \$25.95

불고기/짜들백기/치킨 테리야게/치킨 불고기/불닭/돼지 갈비
돼지 삼겹살/돼지 통심/돼지 불고기/참양구이/돈까스/치킨캐스
야채/계란/순두부찌개/당장찌개/계란찜/공기밥/안주 튀김

COURSE "B" \$28.95

COURSE "A" 포함

갈비/LA갈비/통심구이/흑돼지 삼겹살/매운 흑돼지 삼겹살
새우구이/푸꾸미구이/오징어구이/새송이버섯/허리구이
오살불고기

LUNCH SPECIAL \$18.95

불고기/치킨불고기/짜들백기/갈비 삼겹살/돼지불고기
돼지갈비/치킨 테리야게/불닭/모듬 야채구이/순두부찌개
당장찌개/계란찜/공기밥/피전



영업 시간
화-목 : 오전 11시 30분 - 오후 10시
금, 토 : 오전 11시 30분 - 오후 11시

단체모임에 좋은
Private Room 제공
(90-95인)



특징하고 맛있는
수라 BBQ와 함께
소주 한잔 어때요?

수라 BBQ 보스톤
781.391.5606

27-29 Riverside Ave. Medford, MA 02155
(구) 청기와 식당 위치

쌀쌀한 가을을 보내기 위한 필수품! 가족들에게
안티비를 선물하세요!
하루 \$1로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대로!

아직도 불법 다운로드 하세요? 아직도 비디오를 빌리세요?

합법적인 안티비를 적극 추천합니다!

지금바로 전화주세요! 617.955.9112 / 617.254.4654

NEWS CHANNEL, ABC, CBS, FOX, NBC, PBS, OCN

Dedicated to Your Health
Icon Dental
아이콘덴탈
Ultimate Smile
Quality Dental Care

복합면과 톤코드에 편리하게 위치한 마이콘 덴탈은 여러분과 가족 모두에게 적합한 맞춤형 치료 계획을 통해 미용치과, 성형 및 소아 치열교정 및 최선 임플란트 시술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의 치과 진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선 기구와 진로기술 그리고 편안하여 현대적인 진료실에서 친절한 스태프와 함께 양질의 치과 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표원장 치의학박사 안형준

57 Bedford St Suite 220, Lexington MA 02420
전화 781-861-8978

97 Lowell Rd. Suite A8, Concord MA 01742
전화 978-369-0254

이메일 info@icondentallexington.com
www.icondentallexington.com

Dr. 차영주
치과 일반의
Dr. James Kim
치과 일반의
Dr. Larisa Turkerich
치과 일반의
Dr. Charles Braga
임플란트 및 잇몸 수술 전문의
Dr. 오종현
교정 전문의

조선일보, 송희영 사태 사과...宋-禹 연계 음모론엔 반박

靑 음모론 제기엔... "청와대가 할 일이 아니다" 강력 반박

(서울=뉴스1) 이정우 기자 = 조선일보사는 31일 2011년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호화접대를 받고 유리한 기사를 써준 의혹을 받고 있는 송희영 전 주필 사태와 관련 "독자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이날 오전 1면 사고 '독자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를 통해 "조선일보를 대표하는 언론인의 일탈행위로 인해 독자 여러분께 실망감을 안겨드린데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고 밝혔다.

아울러 "송 전 주필에 대해 제기된 의혹들은 향후 엄정하게 시시비비가 가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선일보는 "앞으로 언론 및 기자 윤리를 더욱 엄격히 실천하고 언론 본연의 기능을 다함으로써 독자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고 덧붙였다.

송 전 주필은 지난 29일 '최근 검찰의 대우조선해양 수사 과정에서 저와 관련된 각종 의혹들이 제기된 것을 보고 이런 상황에서 조선일보 주필직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해 주필직을 사임한다'고 사임의사를 밝혔다.

이에 조선일보는 29일 송 전 주필의 보직을 해임했고, 30일 송 전 주필의 사표를 수리했다.

하지만 조선일보는 사실 '언론인 개인 일탈과 권력비리 보도를 연관 짓지 말라'를 통해 송 전 주필 문제와 우병우 민정수석 관련 의혹 제기 보도 문제는 별개라는 입장을 밝혔다.

사실은 "청와대 관계자는 조선일보 간부가 대우조선해양 사장 연임 로비를 하다가 안되고 유착관계가 드러날까봐 우병우 처가 땅 기사를 쓰게했다는 식으로 주장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송 전 주필 일탈에 대해선 당사자는 물론 그가 속했던 언론사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그러나 송 전 주필이 자신의 흠을 덮기 위해 조선일보 지면을 좌지우지했다고 하는 사실과 다른 음모론에 대해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사실에서 "우병우 처가 땅 의혹은

제보를 바탕으로 조선일보 사회부 법조팀 기자들이 발로 뛰어 확인하고 취재 보도한 내용"이라며 "우병우-진경준-넥슨 권력형 비리 의혹을 확인하고도 보도하지 않는다면 언론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특종일 경우 최종인쇄판에만 보도해 사장과 발행인도 아침 신문에

서 처음 봤다. 송 전 주필은 말할 것도 없다"면서 "현장기자들이 권력 비리를 발로 뛰어 파헤친 기사를 그 언론에 있는 다른 특정인의 도덕적 일탈과 연결지어 음모론 공격을 퍼는 것은 적어도 청와대가 할 일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krusty@news1.kr



청와대와 조선일보전경

김진태 '폭로' 개인적 일로 치부하는 與 지도부 속내는?

(서울=뉴스1) 김영신, 김정률 기자 = "저 혼자 총알 막기 어렵습니다. 당 지도부에서 나서줘야하는 게 아닙니까"

조선일보 송희영 주필이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호화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30일 당 의원총회에서 답답함을 토로하며 한 말이다.

김 의원은 지난 27일과 29일 두차례에 걸쳐 송 주필이 대우조선으로부터 비용이 수억원에 달하는 유럽 외유를 제공받고 호화적인 사설을 내보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두번째 기자회견에서 송 주필의 실명을 공개했고, 송 주필은 이런 논란에 휘말린 이상 정상적인 직 수행이 불가하다는 변을 남기고 사표를 냈다.

집권 여당 의원이 유력 보수 언론 매체를 상대로 파괴력이 큰 폭로를 한 여파가 여권을 비롯한 정치권을 덮쳤으나 당 지도부에서는 이와 관련한 언급이 일절 나오지 않고 있다.

아권에서는 현재 김 의원의 폭로 배후에 청와대가 있다고 보고 있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관련 의혹을 최초 제기한 조선일보와 청와대 간 '전쟁'이 시작됐는데, 이 가운데 김 의원이 청와대의 반격을 대리하고 있다는 설이다.

청와대가 사정기관을 동원해 조선일보 관련 정보와 자료를 김 의원에게 제공하고, 김 의원이 그 선봉에 서게됐다는 시나리오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김 의원을 겨냥해 '청부 폭로'라고 규정하고 "그것이 청와대가 제공한 것이라면 국회의원으로서는 자기 자존감을 버린 그야말로 '하수인'으로 전락한 것이다. 같은 국회의원으로서는 치욕스럽다"고 직격했다.

청와대와 김 의원 모두 이런 지적에 분명히 선을 긋고 있다. 김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 신상발언과 개인 성명을

통해 "우병우 수석과 송희영 주필 건은 완전한 별개로 오히려 우병우 사건으로 송희영 사건을 몰타기 하지 마라"며 "폭로 근거의 출처가 청와대와 검찰·경찰, 국가정보원이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고 분명히 했다.

김 의원은 자료의 출처를 밝히지 않는 것은 '제보자 보호' 때문이고, 자신이 폭로에 나서는 이유는 "위낙 사안이 심각해 국민에게 알리는 것이 도리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말하자면 본인의 의협심에 따른 행동이라는 얘기지만, 아권을 중심으로 쏟아지는 역공을 김 의원 혼자 고스란히 받는 데 대한 부담감 역시 상당해 보인다.

김 의원은 의총에서 "(당에서) 다들 너무 점잖게 구니 저 혼자만 총대를 메고 총알을 막기 어렵다. 그러니 무슨 하명을 받아서 한다는 얘기가 퍼지는 게 아니냐"며 "당에서 목소리를 내줘야하는 게 아니냐"고 호소했다.

당 지도부는 공식적으로 이 폭로 건에 대해 언급을 자제하는 분위기다. 자칫하면 여권 전체와 유력 언론사의 전면전으로 비쳐질 수 있다는 부담감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 핵심 관계자는 "야당의 공세가 있더라도 김 의원 폭로와 관련해 당 차원의 브리핑 등 대응을 하지 말라는 지도부의 암묵적 방침이 있다"며 "김 의

원 개인의 일이기 때문에 당 차원에서 나설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의원 개인의 문제 만으로 덮고 넘어가기에는 사안의 중대성과 파장이 워낙 심각한 터라, 당 안팎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 중진 의원은 뉴스1과 통화에서 "솔직히 청와대 배후설이 제기될만도 하다"며 "개인 행동이라고 하더라도 그 영향이 당 전체에 미치고 있는데 그냥 김 의원 혼자 총알받이로 돌 건지 답답하다"고 말했다.

비박계를 중심으로 당내에서는 친박계 청와대 수석비서관을 지낸 이정현 대표가 '민생행보'를 방패삼아 우병우 수석 논란과 김 의원 폭로 건을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데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편 김 의원은 강원도 춘천시 지역구인 재선으로, 새누리당 내에서도 손꼽히는 보수·강경파다. 19대 국회 초반부에는 중립 성향으로 분류됐지만 각종 현안에 대한 그의 강경론은 주로 친박계와 궤를 같이하며 친박 쪽으로 기울었다는 시각이 크다.

결정적으로 19대 국회 때 유승민 전 원내대표 사퇴 정국, 최근 김희옥 비대위 당시 권성동 사무총장 경질 요구 등에서 강성 친박계와 단체행동을 함께 하며 친박으로 거듭났다는 평이다.

birakoca@news1.kr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박수환 게이트'에 연루된 유력 언론인이 조선일보 송희영 주필이라고 밝히고 있다

우병우 사퇴 압박에도 꿈쩍않는 靑

(서울=뉴스1) 유기림 기자 = 청와대는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사표 제출 이후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향한 야당의 사퇴 요구가 증폭되고 있음에도 꿈쩍 않는 모습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30일 이 특별감찰관의 사의 표명과 우 수석의 거취를 연계하는 시각과 관련해 "별개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 특별감찰관이 전날(29일) 사표를 제출한 만큼 함께 검찰 조사를 받게 된 우 수석 또한 직에서 내려야 한다는 지적을 일축한 셈이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 역시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송희영 조선일보 주필의 보직 해임과 이 특별감찰관의 사의 표명이 우 수석 거취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관해 "지금 특별히 달라진 게 전혀 없다"고 언급했다.

여기엔 특정 언론에 감찰 내용을 누설했다는 이 특별감찰관의 의혹이 사실이라면 '중대한 위법 행위'인 반면 직무와 직결되지 않은 우 수석의 의혹은 책임을 묻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특별감찰관의 사표는 검찰 조사 중인 상황에서 책임을 회피하는 일이며 '우 수석 흔들기'의 연장선상이라는 시각도 반영됐을 것으로 관측된다.

청와대나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9일 김성우 홍보수석을 통해 이 특별감찰관의 의혹이 "국기를 흔들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한 이후 우 수석 문제와 관련한 공식적인 언급은 삼가고 있다.

한편으로 지난 21일 한 언론사를 통해 우 수석에 관한 의혹 제기

를 '부패 기득권 세력과 좌파 세력'의 정권 흔들기로 인식하고 있음을 밝히는 등 청와대의 '되지기' 정황도 포착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날 한 언론사는 청와대의 한 관계자 말을 빌려 송 전 주필이 대우조선해양 고위층의 연임을 부탁하는 로비를 해왔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친박(親박근혜)계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송 전 주필의 대우조선해양 호화 접대 의혹을 꺼내들어 해당 자료의 출처를 의심받는 상황에서 청와대가 이같은 논란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됐다.

김 의원의 폭로나 청와대 인사의 발언으로 우 수석 의혹을 처음 보도한 조선일보를 겨냥하고 있다는 의구심은 더욱 확산되는 분위기다.

정치권에선 이 특별감찰관의 사표 제출을 기점으로 우 수석이 직에서 내려와 검찰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금 높아지고 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정기국회에서는 버티기와 물타기로 넘어갈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 드린다"고 우 수석의 국정감사 출석을 주장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 말씀처럼 성공을 위해서라도, 검찰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우 수석의 발자취를 지워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김무성 전 대표 등 비박(非박근혜)계를 중심으로 사퇴 요구가 나왔다. 김 전 대표는 "우 수석은 하루빨리 사퇴해야 한다. 그래서 대통령을 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girin@news1.kr



**BERKSHIRE
HATHAWAY**
HomeServices

**N.E. Prime
Properties**



Clara Paik
617.921.6979



김형진
781.956.0409



주승원
617.780.7839



박성종
617.304.7001



William Glanton
978.394.2017

안녕하세요?

그동안 보스톤 뉴스타 부동산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저희 회사가 이렇게 크게 성장 했습니다.
저희는 다음의 단계로 도약하기 위해
미국 경제계의 대부인 웨렌 버핏이
소유하고 있는 버크셔 해서웨이
(Berkshire Hathaway)와
새로 손을 잡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보다 폭 넓은 정보와
질 높은 서비스로 여러분을 모시게 됨을
약속 드립니다.
저희의 새 얼굴인 버크셔 해서웨이
뉴잉글랜드 프라임은
매사추세츠와 로드아일랜드에만도
20개의 지점을 가지고 있고,
미 전역에 연결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넓은 세상에서 일하실
큰 꿈을 키우고 계신
에이전트 선생님을 모십니다.

감사합니다.

대표 백영주 올림



Allen Quinn
978.897.2781



이현주
401.935.3397



제니스 리
978.806.6023



Michael Yoon
617.459.5985



Kevin Curry
978.852.2969

Berkshire Hathaway HomeServices N.E. Prime Properties
40 Waltham Street, Lexington, MA 02421
Tel 781-259-4989 Fax 781-259-49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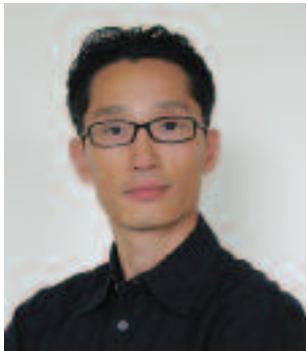
보스톤 뉴스타가 버크셔 해서웨이로 다시 태어납니다!



Steve Son
617.290.0623



Shell Yu
781.526.2416



OT Kim
617.620.82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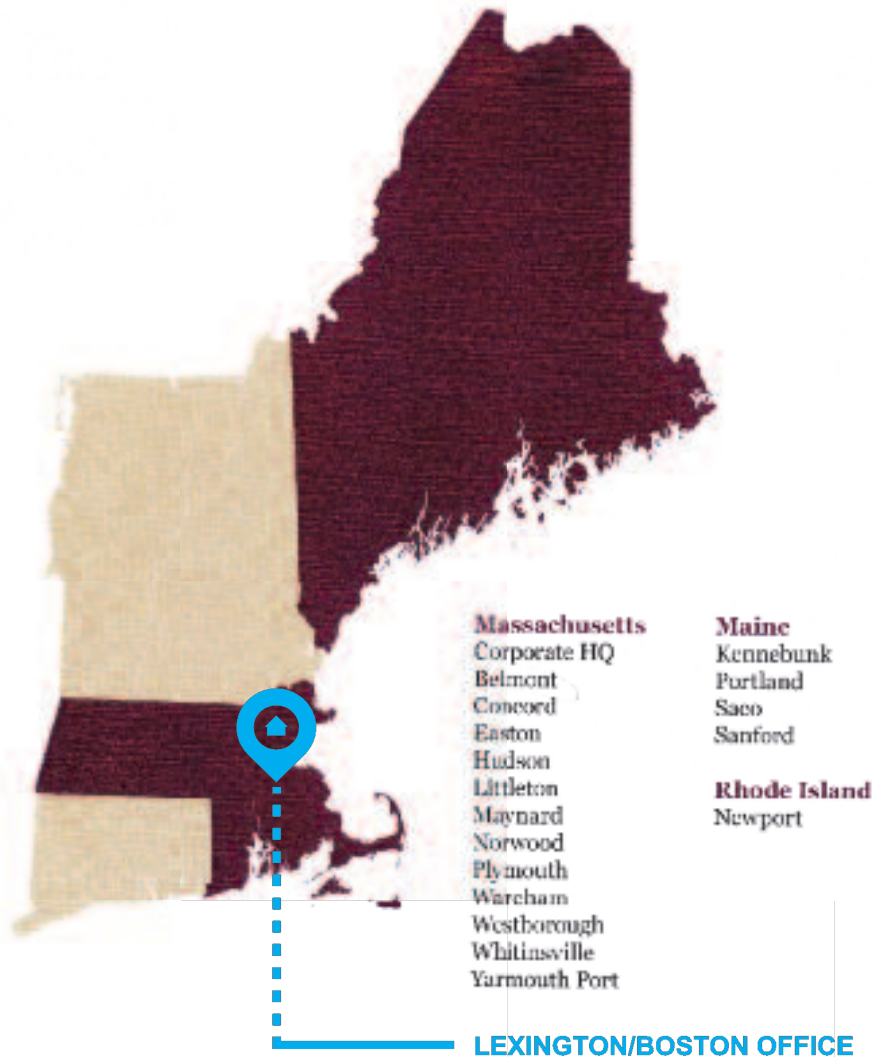
Gina Choi
978.866.3248



AI Magurn
508.733.2949



OFFICE LOCATIONS



Good to know™

18 Offices in Maine, Massachusetts & Rhode Island
 Find your next home with us online at bhhsneprime.com



Maria Koral
978.973.6043



Nancy Marcis
713.817.6970



Clif LaPorte
978.424.3045



Leslie Luppold
508.423.1535



Johanna Parlon
978.501.4753

패트리어츠 2016 시즌 스케줄과 승패 예상 - (1)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다음은 스포츠 전문 채널 ESPN에서 올해 각 경기별로 패트리어츠의 승패를 예상한 것이다. 참고로 작년에 ESPN은 시즌이 시작하기 전에 패트리어츠가 11승 5패를 할 것으로 예상했고, 실제 결과는 12승 4패였다.

Week 1: 9/11 @ Cardinals, 8:30 p.m.

패트리어츠는 시즌 개막전에 버거운 상대를 만나게 되었다. 승패와 상관없이 불꽃 튀는 경기가 예상된다. 패트리어츠의 스타 플레이어였던 잭슨슨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 경험이 부족한 지미 거라폴로를 보호할 것인가 승부의 열쇠가 될 것이다.

패배, 시즌성적: 0승 1패

Week 2: 9/18 vs Dolphins, 1 p.m.

돌핀스는 올해 새로 부임한 신임 감독이 지휘봉을 잡고 있다. 돌핀스는 첫 경기를 시애틀에서 치르고, 그 다음 경기가 패트리어츠와의 원정 경기다. 돌핀스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게 시즌을 시작하는 셈이다.

승리, 시즌성적: 1승 1패

Week 3: 9/22 vs Texans, 8:25 p.m.

NFL은 2016 시즌에 모든 목요일 경기에서 칼라 러시(color rush) 유니폼을 입을 예정이다. 질레트 스타디움에서 칼라 러시 유니폼을 입은 선수들의 경기를 보는 것도 색다른 재미를 줄 것이다. 패트리어츠에서 오픈시브 코디네이터로 일을 했던 빌 오브라이언이 텍사스의 감독으로 패트리어츠와 경기를 하는 것도 감회가 새로울 것이다.

승리, 시즌성적: 2승 1패

Week 4: 10/2 vs Bills, 1 p.m.

탐 브래디는 빌스를 상대로 25승 3패를 기록 중이다. 브래디가 빌스와의 경기에서 1승만 더 추가한다면 브렛 파브르가 갖고 있는 한 팀 상대 최다승(26승, 디트로이트 상대) 기록과 같아진다. 그러나 브래디는 올해 4주차 경기까지 출전할 수 없다.

승리, 시즌성적: 3승 1패

Week 5: 10/9 @ Browns, 1 p.m.

패트리어츠가 마지막으로 브라운스 경기장을 찾았던 때는 2010년이었다. 당시 루키였던 타이트엔드 랍 그롱코스키의 연이은 실수는 결국 패트리어츠에게 참패를 안겼다. 그러나 이후 상황은 많이 달라졌다. 그롱코스키는 리그 최고의 타이트엔드로 성장했다.

승리, 시즌성적: 4승 1패



패트리어츠는 카디널스와의 원정 경기로 2016 시즌을 시작한다

Week 6: 10/16 vs Bengals, 1 p.m.

2014년에 벵갈스가 질레트 스타디움을 방문했을 때의 경기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 당시 패트리어츠는 벵갈스와의 경기 이전에 치프스에게 대패를 당하며 브래디 은퇴론까지 거론되었지만 벵갈스를 상대로 압도적인 경기를 펼쳤다. 1986년 이후 패트리어츠는 홈구장에서 벵갈스 상대 전적이 6승 0패다.

승리, 시즌성적: 5승 1패

Week 7: 10/23 @ Steelers, 4:25 p.m.

지난 15번의 슈퍼볼 경기에서 패트리어츠의 쿼터백 탐 브래디와 스틸러스의 쿼터백 벤 로틀리버가 선발 출전한 경기는 총 9번이다. 최근 슈퍼볼 경기의 절반 이상에 두 쿼터백이 출전한 것이다. 매년 스틸러스와의 경기는 패트리어츠의 플레이오프 경기 성적을 가늠할 수 있는 좋은 지표를 제공해준다.

패배, 시즌성적: 5승 2패

Week 8: 10/30 @ Bills, 1 p.m.

패트리어츠는 빌스에게 수 년 동안 초강세를 보여왔다. 2000년 이후 패트리어츠의 빌스전 전적은 28승 4패다. 그러나 항상 짝짝 승리, 또는 패배가 늘 존재한다. 올해는 8주차 경기에서 패트리어츠의 짝짝 패배가 나올 수 있다.

패배, 시즌성적: 5승 3패
jsi@bostonkorea.com

'1이닝 무실점' 오승환, 시즌 4승...이대호 멀티히트

(서울=뉴스1) 나연준, 이재상, 권혁준 기자 = '끝판대장' 오승환(34·세인트루이스)이 타구에 맞는 위기 속에서도 무실점 경기를 펼치며 시즌 4승째를 거뒀다.

이대호(34·시애틀 매리너스)는 시즌 7호 2루타를 터뜨리는 등 멀티히트 경기를 펼치면서 팀 승리에 힘을 보탤다. 김현수(28·볼티모어 오리올스)는 대수비로 출전했지만 타석에 들어서지는 못했다.

오승환은 30일 밀워키 밀러파크에서 열린 2016 메이저리그 밀워키 브루어스와의 경기에서 1-1로 팽팽하던 9회말 등판, 1이닝 동안 2피안타 2탈삼진 무실점을 기록했다.

전날 14세이브째를 기록했던 오승환은 이날은 동점 상황에서 나와 무실점 경기를 펼쳤고, 팀이 2-1로 승리하면서 시즌 4승째를 올렸다. 오승환은 평균자책점을 종전 1.72에서 1.70으로 끌어 내렸다.

오승환은 9회말 팀의 3번째 투수로 마운드에 올랐다. 이를 연속 등판한 오승환은 선두 타자 조나단 빌라르를 1구만에 우익수 라인드라이브로 돌려세웠다.

가볍게 첫 타자를 잡아낸 오승환은 2번 제넷에게 묵직한 돌직구를 뿌렸다. 2스트라이크의 유리한 카운트를 가져간 오승환은 4구째 낮은 슬라이더로 제넷을 헛스윙 삼진으로 돌려세웠다.

호투하던 오승환은 2사 이후 라이언 브론

에게 투수 앞 내야 안타를 허용하면서 흔들렸다. 브론의 타구는 오승환의 가슴 부위를 맞고 튀었고, 그는 관창다고 신호를 보낸 뒤 곧바로 마운드에 올랐다. 그렇지만 그 여파로 오승환은 4번 헤르난 페레스에게 중전안타를 맞고 1,3루의 위기에 몰렸다.

'돌부처' 오승환은 위기에서도 표정 변화가 없었다. 5번 크리스 카터를 상대로 풀카운트까지 가는 승부를 펼쳤고, 결국 93마일(150km)짜리 돌직구를 던져 헛스윙 삼진으로 돌려세웠다.

세인트루이스는 1-1로 맞서던 10회초 무사 2,3루에서 터진 6번 랜달 그리척의 결승 적시타에 힘입어 2-1로 이겼다.

이대호는 텍사스 레인저스와의 경기에 6번 타자 1루수로 선발 출전, 5타수 2안타 1타점을 기록했다.

메이저리그 복귀 후 안타가 없던 이대호는 3번째 경기 만에 안타를 때려냈다. 지난 5일 보스턴전 이후 무려 8경기 만에 터진 안타다. 이대호의 타율은 0.242에서 0.245로 상승했다.

이대호는 2회초 2사 후 들어선 첫 타석에서 상대 선발 콜 해멀스의 3구째 92.1마일 투심 패스트볼을 당겨쳐 좌익수 왼쪽에 떨어지는 안타를 기록했다. 이대호는 전력 질주 끝에 2루에 안착, 시즌 7번째 2루타를 기록했다.

팀이 1-4로 추격하던 4회초 이대호는 무사 만루 찬스를 잡았다. 하지만 해멀스의 체인지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 오승환

업과 커브볼을 공략하지 못해 삼진으로 물러났다.

5회초 시애틀은 2점을 뽑아 4-4 동점을 만들었고 이대호는 2사 2, 3루 찬스에서 3번째 타석에 들어섰다. 이대호는 해멀스의 바깥쪽으로 떨어지는 체인지업을 밀어쳐 우익수 앞에 떨어지는 안타를 만들었다. 그 사이 3루 주자가 홈을 밟았고 시애틀이 5-4로 리드를 잡았다.

이대호는 7회초 1사 1루에서는 구원투수

알렉스 클라우디오의 바깥쪽 66.3마일 체인지업에 헛스윙 삼진을 당했다. 9회초 마지막 타석에서는 3루수 땅볼에 그쳤다.

시애틀은 7-6으로 앞선 9회말 루그네드 오도어에게 역전 2점 홈런을 맞고 7-8로 패했다. 4연패에 빠진 시애틀은 68승 64패(아메리칸 리그 서부지구 3위)가 됐다. 4연승을 질주한 텍사스는 시즌 79승(54패·아메리칸리그 서부지구 선두)째를 기록했다.

yjra@news1.kr

POSPay



EMV 도입이 시급합니다



아직도 카드를 긁고 계십니까?
고객님의 안전한 금융거래를 위해
EMV 도입이 시급합니다!
지금 바로 문의해 주십시오!



본손: Boston



돼지곰: NJ



Mr. Sushi: Arlington



VIP Nails: RI



Queena Nails



Great Nails: GA



My Cleaners: CT



Classic Cleaners: Boston



Professional Cleaners: GA

<고객 절약 사례>
본손: 20% 절약
돼지곰: 16% 절약
Mr. Sushi: 19% 절약
VIP Nails: 22% 절약
Queena Nails: 24% 절약
Great Nails: 37% 절약
My Cleaners: 41% 절약
Classic Cleaners: 13% 절약
Professional Cleaners: 23% 절약

www.pospay24.com



Agent / 상담원 모집

TEL **617-466-2212**

TOLL FREE **888-604-2190**

150 Eastern Ave #2FL Chelsea, MA 02150



성양뚜안 다블뤼 보스톤 한인성당
St. Ann's Donga Parish St. Dominic Chapel

하느님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삶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고 찾아 나서고자 하는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성양뚜안 다블뤼 한인 성당에서는
새입교자를 위한 교리반을
9월 21일부터 시작합니다.

교리시간 : 매주 수요일 저녁 8시
환영회 : 9월 11일 주일 교증미사 후

45Ash St. Newton MA 02466
617-558-2711, 617-244-9685
office.kccb@gmail.com / stdaveluychurch.org
Mass: 10:00am(영어미사), 11:30am(교증미사),
4:30pm(청년주관)

하나님을 기뻐하는교회살을 노래하는교회

나사렛사람의교회
KOREAN CHURCH OF THE NAZARENE

주일예배 오전 11시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십니다.
나사렛사람의교회도
가까이 있습니다."*

900 Main Street
Reading, MA 01867
보스톤 북쪽
I-95 Exit 38B
(Rt. 28N)로 나와서
2 마일 왼쪽에 있습니다.
Tel. 781.439.1840

www.npeople.org
담임목사 유경일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보스톤은혜장로교회
BOSTON GRACE PRESBYTERIAN CHURCH

이 길은 살아가신 하나님의 길이고 권리와 거룩의 미나리 (행 9:14)

주일예배 / 오후 2시 | 금요일기도회 / 저녁 7시
송년 / 송년 / 찬양 / 경오봉부예배 / 청년부요청
Grace Bible Study / 수 12시 | LIFE 모임 / 주일 10시

담임 목사 / 무시환

7 Clarendon Road, Lexington, MA 02421
(In the Trinity Covenant Church)
Tel: (781) 715-0571 / Fax: (781) 645-0407
bostongracechurch.org

보스톤 밀알 한인 장로교회

가르치고 전파하라
(약 4:25)

예배시간:
주일 1부 9:30, 2부 11:00
금요일 9:00

말씀한국학교 운영(주일 오후)

담임목사: 박일종

주소: 15 Alpha Rd,
Chelmsford MA 01824
전화: 978.578.9887
www.millal-church.org
Lexington에서 25분,
H-Market에서 15분 거리

유세부: 임성경 목사
유년부: 임경숙 목사
유소: David Hwang 권도사
영남/360: Erika Kim 권도사

성경대로 열으며
성경대로 가르치고
성경대로 실천하는 교회

사랑제일교회
SARANGJELGWO CHURCH

담임목사: 권충성
Faith Theological Seminary, Ph.D.
New York Univ. M.F.S.
한양대학교 대학원
한기총 대한예수교장로회 미주노회 소속

교회 예배 안내

주일 예배	오후 2시
주일 학교	오후 3시
전도인 공부	오후 4시
목요 공부	오후 7시
수요 예배	오후 7시
구별 예배	각 구역별

* 모든 예배는 영어로 동시에 진행됩니다.
All services are translated in English simultaneously

461 King St. Lynn, MA 01904 Tel: (978) 985-0285, (978) 944-3404
www.sarangjelgwo.com

보스톤 서부 장로교회
Boston-West Korean Presbyterian Church

어머님 마음 같은 교회

주일예배: 오후 2시 | 주일학교: 오후 2시
공교동부: 오후 2시 | 대학부모임: 주일 12시
금요일기도회: 오후 8시 | 구역모임: 구역별로

담임목사: 김학수
www.bostonwestchurch.org

657 Boston Post Road, Weston, MA 02493
교회 : 781.894.3958 목사관 : 817.969.5809

골프 레슨

US GTF 최성조 프로
Master Golf Professional

텍서스 US 월드 리저 프로
ej.usgwf@gmail.com

857.600.6755

코리아 여행사

617.267.7777
1.800.473.1922

보스톤 봉사회

의료보험안내
무료세금보고

508-740-9188

CHOISIGNS & DESIGN

LED Sign, Channel Letter, Truck Lettering, Banner, Poster, Window Letter, Car Sign, Lighted Box, All Types of Signs.

간판 및 사인

617.470.1083
e-mail choisigns@yahoo.com

보스톤코리아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전화: 617.792.6876 이메일: bostonkorean@hotmail.com

‘성령 안에서 하나되는 교회’

하나님의 나사리에 따라 언제든 사랑의 문을 열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사랑으로 주님께 새로 사랑하며, 그 사랑으로 열린 교회를 이루고 싶습니다.
같은, 같은, 같은, 사랑, 사랑, 사랑, 부활날에 열매를 맺을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예배를 준비합니다.

금요일예배 저녁 8:00
주일예배 오전 10:00

주일예배 오전 10:00
주말학교, 송년 예배 오전 10:00
금요일예배: 금 오후 8:00
새벽예배: 월-금 오전 6:30, 토 오전 7:30
영년예배 주일오후 12:30
속회예배 수-주일 속회별
유년예배 화, 목 오후 8:00, 주일 오전 9:30
성령공부 주일 오후 12:30, 수 오전 6:50, 목 오후 9:30

비전교회
The pastor of The United Methodist Church

80 Mt. Auburn St., Westport, MA 02472 Tel: 617.744.8587
www.growwithus.org

UMS
신용카드결제 전문 기업 SINCE 1994

15년동안 한인 비즈니스의
크레딧 카드 솔루션을 책임져 왔습니다.

전문성과 기술력으로
탁월한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UMS

flex 2it UP SOLUTION

내외는 뉴저지에 본사를 둔 카드결제 전문회사로서 미 전체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Flex2it는 신용카드 결제, 가맹점 UP Solution을 통한 POS 시스템, 모바일 결제 시스템 등
필요한 모든 카드결제 서비스를 제공, 최적의 경쟁력까지 패키지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대표 신용카드사 감사협력 이선호
781.266.7245



HAPPY 해피돌상

고급격 전통상 대여 (백일상, 돌상)
한국보다 더 한국적인 고품격 전통상차림,
소중한 내 아기에겐 한국의 미를 보여주세요!
저렴하고 무집하게!







- 품격을 더하는 최첨단 현수막
- 다양한 수공예 소품들

- 엄마의 마음으로 만든 거저귀 케이크
- 국내산 용가림시와 한기, 공기

- 화려하고 우아한 나비꽃대
- 풍성한 상차림 세트

문의 617.249.3131 Happydolsang@gmail.com



크라우저 앤 서 로펌

MIAMI - BOSTON - D.C.

이민법 / 국제법 전문 로펌 Specializing in Immigration / International Law



Henry Crouser
변호사

스티브 서
변호사

전문 분야

- 전문인력 취업비자 (H-1B)
- 단기연수원 비자 (H-3)
- 주재원 비자 (L-1)
- 특가자 비자(O-1, P-1)
- 취업이민 (EB-2, EB-3, EB-4)
- 종교비자 (R-1)
- 투자이민 (EB-5)
- 투자비자 (E-2)
- 교수 및 연구직 (EB-1, NIW)
- 가족초청이민
- 시민권 신청
- 추방제안

VISIT US AT :
www.stevesuh.com / www.suhladyer.com

Crouser & Suh PLLC

251 Harvard Street Suite 6, Brookline, MA 02446

Tel: 617.566.7979 Fax: 617.566.7982

Email: info@stevesuh.com

페이스 & 목 리프팅으로 탄력있는 젊음을 유지하자!

휴람 네트워크와 제휴한 'K-BEAU LINE 성형외과' ... "리프팅은 주름과 피부처짐 개선 외에 동안의 모습을 회복하는데, 큰 효과 있어"

Face Lifting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피부는 노화되고 피부결도 변하게 되어, 팽팽하고 윤기 있었던 피부도 20세 이후 피부 노화가 시작되면 피부의 콜라겐 섬유가 줄어들어 탄력이 없어지고 건조해지면서 피부가 위축되고 주름살이 생기게 된다. 깔끔하고 호감가는 인상을 만들기 위해 피부 탄력을 관리하고 주름 관리에 대해 관심을 갖는 분들이 증가하면서 원하는 범위에 따라 볼 처짐이나 입가주름, 목주름 등에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페이스 리프팅(face lifting)에 대한 관심이 날로 늘어나고 있다.

페이스 리프팅은 안면 전체에 리프팅 효과를 주는 수술로 최근 각광받고 있는 주름 성형 중 하나다. 우리의 안면부는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피부와 그 아래 피하지방, 표정을 연출하는 여러 근육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면 된다. 그런데 여기에 피하지방과 근육층 사이에 SMAS(Superficial Musculoaponeurotic System)라고 부르는 일종의 근막층이 넓게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SMAS층은 안면 근육의 표면에 넓게 분포하고 있다.

페이스 리프팅 수술에서 SMAS층을 중시하는 이유는 SMAS층을 당겨 올리게 되면, 안면부의 모든 연부조직이 하나의 판으로 당겨 올려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다른 조직층에 비해 SMAS층이 강한 결합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SMAS층을 조작하지 않고 피부층만을 당겨 올리는 경우 그 리프팅 효과가 상대적으로 미약하다. 따라서 리프팅 수술을 고려하는 경우, SMAS층 리프팅을 꼭 해주는 것이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늘어진 피부 속의 근육(SMAS) 조직을 박리하고 당겨 올려줌으로써 탄력 있는 피부로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다.

페이스 리프팅은 귀 앞면에 절개를 가하여 볼과 턱의 조직들을 후상방으로 당겨주는 방법으로 진행되며 절개는 귀의 앞면을 따라 흉터를 최대한 감출 수 있는 방법으로 시술한다. 수술의 깊이 또한 과거에는 피부만을 수술하여 당기는 것이 고작이어서 수술 후 흉터의 문제가 발생했었는데 최근에는 유지 인대를 끊어 주고 얼굴의 표재성 근막(SMAS)를 단단하게 당겨주어 피부 자체에는 거의 긴장이 가해지지 않는 상태에서 자연스러운 위치에 피부를 봉합하기 때문에 수술 후 흉터가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개선되었으며 효과 또한 오랜 기간 지속된다.

만약 처짐의 정도가 심하지 않거나 실리프팅을 받았지만 효과가 없는 경우라면 미니 페이스 리프팅을 통해서도 효과를 볼 수 있다. 미니 페이스 리프팅도 페이스 리프팅과 마찬가지로 최소 절개창을 통해 SMAS 거상과 유지 인대를 박리하여 최대의 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으며 리프팅 실을 사용하

지 않아서 이물감이 없다는 장점이 있다.



Neck Lifting

페이스 리프팅과 더불어 같이 하였을 경우 더욱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수술이 목 리프팅(neck lifting)이다. 목 리프팅은 턱 아래 주름져 있는 목살과 피부를 양 옆 외측 상방으로 당겨주어 처져있는 목살 피부를 팽팽하게 위로 당겨주는 수술이다. 페이스 리프팅을 시행할 때 귀 앞과 뒤까지 절개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수술시야를 통해 목 부위까지 피부를 박리하여 목부위에서 안면의 SMAS층과 연결되는 광경근(platysma muscle)을 위로 당겨주고 여분의 피부를 당겨 올려 절제해 줌으로써, 목 피부의 늘어지고 처진 모습을 개선해 줄 수 있다. 수술 범위가 넓어진다는 점도 있지만, 페이스 리프팅과 더불어 목 리프팅을 같이 하는 경우 양 볼의 처짐과 더불어 목 부위의 피부 처짐을 동시에 개선함으로써 동안의 모습을 회복하는데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리프팅 수술 후 관리가 더 중요 : 페이스 리프팅은 목 리프팅과 더불어 넓은 면적의 피부층을 박리하여 당겨 올려 새로운 위치에서 아물게 함으로써, 동안의 얼굴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아무는 과정에서 수술한 부위에 대한 압박과 세심한 상처관리가 필요하다. 넓은 부위에 걸쳐 수술을 하기 때문에, 넓은 면적에서 진물과 출혈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꼼꼼한 관리가 반드시 따라주어야 한다. 또한 수술 전과 수술 이후에 미세한 출혈을 일으킬 수 있는 약물, 예를 들어 아스피린이나 오메가 III의 복용은 금지하여야 한다. 그리고 수술 후 1주일 이상 가급적 무리한 활동을 자제해야 한다.

페이스 리프팅은 동안 수술에서는

비교적 스케일이 큰 수술이다. 따라서 안면 노화가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마일드한 실 리프팅이 많이 추천되고 있다. 하지만, 환자의 선택을 적절히 하고, 몇 가지 준수 사항을 잘 지키면서, 세심하게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페이스 리프팅은 우수한 결과를 보여주는 수술이라고 할 수 있다.

휴람과 의료네트워크를 맺고있는 K-BEAU LINE 성형외과에서는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페이스 리프팅과 목 리프팅을 전문으로 시술하고 있다. '페이스리프팅 & 목리프팅'에 대한 기타 궁금증이나 휴람의 전반적인 서비스에 대한 문의는 보스톤 코리아(전화 617-955-9112)로 하면 된다.

동안 성형의 첫 걸음: 눈밑 주름 성형과 지방 재배치

연세 있는 분들의 얼굴을 살펴보면 먼저 눈에 띄는 것이 눈 밑에 볼록하게 튀어나온 눈꺼풀 피부와 깊게 패인 주름이다. 나이가 들면서, 피부의 탄력이 떨어지게 되어 아래 눈꺼풀의 피부 밑에 있던 지방이 튀어나와 보이게 되고, 피부의 탄력이 떨어짐과 동시에 앞 광대 부위에서는 피부 밑 조직들이 위축되기 시작하면서 소위 '눈 밑 고랑'이 깊게 패여 보이기 시작한다.

이러한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으로 생긴 눈 주변부의 나이든 인상을 개선하기 위해서 적용되는 수술 중 하나가 아래 눈꺼풀 성형수술, 즉 하안검 성형술이다. 아래 눈꺼풀 밑으로 깊은 고랑이 패여 있는 모습을 가진 분들의 동안 성형술에서는 하안검 피부 절제, 지방 제거, 지방 재배치가 동시에 이루어 지는 것이 이상적이다.

즉 피부를 볼록하게 만드는 과잉 지방을 제거하고, 동시에 눈꺼풀 아래 고랑을 메우기 위해 여분의 지방을 고랑을 이루는 피부아래에 채워 고랑부위의 피부가 솟아오르도록 도와준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아래 눈꺼풀의 여분의 피부를 절제함으로써, 아래 눈꺼풀의 나이든 모습을 온전하게 개선해 주게 된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아래 눈꺼풀 부위의 피부가 채워진 볼록하고 팽팽한 인상을 가질 수 있게 된다. 경우에 따라서 지방 재배치를 할 지방이 부족한 분들의 경우, 지방 이식이나 필러(filler) 주사로 대신하는 경우도 있다. 더 젊어진 인상으로 개선하기 위한 하안검 성형술의 경우 윗 눈꺼풀, 즉 상안검 성형술을 동시에 시행하는 경우 효과가 더욱 배가될 수 있다.

BOSTON GONSTEAD CHIROPRACTIC

“카이로프랙틱이란?” : 우리 몸은 남녀노소 모두 31쌍의 척추신경을 가지고 있으며 뇌로부터 이 신경을 통해 신호를 몸 구석구석까지 원활하게 전달해야만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부적인 충격 즉, 교통사고나 잘못된 생활 습관 등으로 척추가 어긋나게 되면서 척추신경 압박 및 염증으로 뇌로부터의 신호를 제대로 전달받지 못하여 우리 몸에 통증과 같은 이상이 생깁니다. 이러한 척추의 어긋난 곳을 정확하게 찾아 가장 안전하게 바로잡는 것이 바로 카이로프랙틱입니다.



원장 : Dr. 이정호, D.C.
(Dr. Jeongho Yoo, D.C.)

- Graduated Palmer College of Chiropractic
- Member of Gonstead Seminar of Chiropractic
- Member of Gonstead Methodology Institute
- Certified International Board of Extremity Chiropractors
- 한양대학교 졸업 및 ROTC 47기
- Active license in MA(#3524)

진료과목

- 척추계통 : 목 / 등 / 허리 / 골반 통증, 디스크 질환
- 사지계통 : 어깨, 무릎, 손목, 발목, 턱관절 통증
- 신경/순환 계통 : 손발 저림, 좌골신경통, 두통, 알러지, 소화불량
- 교통/직장/운동 사고: 물리치료와 병행하여 후유증 최소화
- 어린이/학생/성인 자세 관련 통증 및 척추측만 교정

개원기념 스페셜

- 카이로프랙틱 상담
- 정밀 척추 검사 \$20(reg. \$250)
- 7월18일 - 9월30일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주요보험: 일반보험PPO, 메디케어, 학교/유학생/여행자/교통사고 보험 등 다수

진료시간

월-금(M-F) : 8am-5pm
토(Sat) : 9am-12pm
일(Sun) : Closed



한인 업소록

Korean Business Directory

한인들과 함께 하는 좋은 신문



현재 한인업소록의 각종 전화번호를 업데이트 하고 있습니다. 혹 누락된 번호가 있으면 617-254-4654나 bostonkorean@hotmail.com으로 바로 연락 주십시오. 즉각 반영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긴급 주요 전화

가정폭력상담소(Ex. 33)	617-338-2352
견인	800-632-8075
고등교육위원회	617-727-7785
고등교육정보센터	800-442-1171
공중위생국	617-624-6000
구세군	617-536-7469
국제청	800-829-1040
날씨문의	617-976-6200
로간국제공항	800-235-6426
미아찾기	888-477-6721
백메이역	617-345-7958
보스턴공립학교	617-635-9000
보스턴수도	617-989-7000
보스턴시청	617-635-4500
보스턴총영사관	617-641-2830
사우스익	617-345-7958
사회보장국	800-772-1213
성폭행	781-237-9110
성폭행	617-492-8300
시간문의	617-637-123
아동보호	617-418-2000
아동학대	800-792-5200
알고올/마약	617-445-1500
여성학대	617-248-0922
온전연하	617-351-4500
벨러	617-348-8500
자원봉사	800-522-8086
적십자	800-564-1234
전화신청 (Verizon)	800-941-9900
전화교정선교 (Verizon)	617-555-1515
택시	617-343-4475
AAA	800-222-4357
FBI	617-741-5533
MBTA	800-392-6100
NSTAR가스	800-572-9300
NSTAR 전기	800-592-2000
RCN케이블TV/전화	800-746-4726

한인회

뉴잉글랜드 한인회	781-933-8822
뉴햄프셔 한인회	603-767-1356
로드아일랜드 한인회	401-368-0467
메인 한인회	207-756-0092
버몬트 한인회	802-734-2521

주요 단체

국립캘리포니아문화재단	978-407-7554
국립캘리포니아문화재단	603-889-8201
뉴잉글랜드골프협회	617-438-9763
뉴잉글랜드공군전우회	978-902-8305
NE교역자협의회	978-394-3060
뉴잉글랜드문인협회	978-688-3137
뉴잉글랜드신약회	774-270-1948
뉴잉글랜드시민협회	508-962-2689
뉴잉글랜드교회협의회	978-394-3060
뉴잉글랜드해병대전우회	617-833-1360
대사추진위원회	603-894-5425
민주평통보통협의회	413-535-0916
보스턴 대한체육회	781-326-9009
보스턴산악회	978-569-3256
보스턴한미노인회	978-994-5490
재미과학기술자협회	857-998-7043
재향군인회	339-298-7187
세탁인협회	508-826-5270
이탈리아도민협회	978-514-3399
한인학교연합회	781-424-5269
FH한인경제인협회	401-481-4900
한국인야구협회(메인)	207-878-5652
625참전유공자회	978-725-9597
보스턴 한미예술협회	781-367-5993

동창향우동호회

건국대학교동창회	401-738-8735
경기고등학교동창회	508-995-7242
경기여고동창회	781-861-0437
경복고동창회	617-921-8799
고려대학교 교우회	617-795-1779
뉴잉글랜드신약회	774-270-1948
배재중고등학교동창회	978-474-4780
보스턴 신약회	978-569-3256
보스턴한인사회관	617-789-4964
산사람	774-270-1948
서강대동문회	617-599-9869
서울고 동문회	617-792-2635
서울대학교동창회	978-821-9434
서울대학교동창회	978-821-9434
성균관대동창회	802-734-2521
영등포고등학교동창회	508-541-6969
이화여고동창회	617-277-0730
이화여대동창회	978-390-1552
중앙대학교동창회	603-622-8883
강원도민회	617-875-1801
충청향우회	678-717-8800
한양대동문회	781-708-3160

언론

보스턴코리아	617-254-4654
한인일보	781-933-8822
한국일보(뉴욕)	718-482-1111
Grapevine Times	781-548-9945

종교

기독교	
구세군 물동교회	617-792-8780
그린랜드 연합감리교회	603-430-2929
글로벌 미션 보스턴교회	617-913-3074
나사렛사람의교회	781-439-1840
낮아짐교회	781-832-2014
뉴잉글랜드감리교회	617-969-0507
뉴튼 아름다운 교회	617-869-8159
갈보리교회	413-789-9888

구세군물동교회	617-792-8780
그리스연합감리교회	203-459-8517
그리니치한인교회	203-861-1134
그린랜드연합감리교회	603-430-2929
나사렛사람의교회	781-439-1840
내슈아한미음악교회	603-888-8040
뉴잉글랜드감리교회	617-969-0507
뉴잉글랜드한미교회	413-567-9142
뉴튼 아름다운 교회	617-869-8159
뉴햄프셔감리교회	617-990-7619
뉴햄프셔한인교회	603-437-5134
라이코스교회	603-264-6799
라이스한인침례교회	978-387-1115
로드아일랜드성동교회	508-926-8236
로드아일랜드제일교회	401-353-0983
대생명의길장로교회	401-944-2520
대생명의길장로교회	401-821-2311
메리맥 교회	978-806-1363
목양교회	617-223-1690
무지개교회	207-774-1617
밀양한인교회	978-244-0691
렉싱턴 풍성한교회	617-953-0856
버클랜드 침례교회	617-864-5948
보스턴 국제교회	617-459-6479
보스턴 감리교회	781-393-0004
보스턴 사랑의교회	617-285-8870
보스턴 사랑제일교회	978-844-2404
보스턴 은혜장로교회	781-715-0571
보스턴 새로남교회	617-947-6765
보스턴 새생명교회	978-777-1800
보스턴 생명의교회	978-578-6987
보스턴서부장로교회	781-894-3958
보스턴 성결교회	781-275-8233
보스턴 한울교회	781-396-1004
보스턴 소망교회	617-686-5526
보스턴시온성교회	978-758-4541
보스턴안식교회	781-279-3270
보스턴 온누리교회	781-933-7044
보스턴웨슬레감리교회	781-393-0004
보스턴 장로교회	508-435-4579
보스턴 제일교회	617-458-2733
보스턴 주님의교회	617-966-9608
보스턴 중앙교회	617-230-5004
보스턴침례교회	857-636-9985
보스턴 한인교회	617-739-2663
보스턴 한우리교회	978-454-0454
보스턴한인연합교회	617-923-9581
북부보스턴감리교회	978-470-0621
비전교회	617-308-2391
새빛교회	781-652-0001
새미루살렘교회	774-249-0022
선한목자장로교회	904-400-9386
성요한 교회	781-861-7799
순복음 보스턴교회	617-413-5372
스프링필드한인장로교회	413-789-4522
스프링필드제일교회	413-781-2477
시온감리교회	401-739-8439
안디옥 교회	617-534-3394
열방교회	617-620-3352
에이더 벨렘교회	978-274-2369
엘리트 한인장로교회	413-549-6495
엘리트 시온교회	413-549-9200
올스톤한인교회	617-642-7403
올스톤교회	508-799-4488
우스타장로교회	781-354-1843
워싱턴프린더 교회	918-876-2815
임마누엘 연합교회	978-394-3060
자연교회	603-437-6151
좋은땅교회	978-930-6613
지구총방주교회	617-838-6434
케임브리지한인교회	617-491-1474
케임브리지연합장로교회	781-861-3877
켄싱턴성교회	617-770-2755
하버드 한인선교회	617-441-5211

간판

문수사	781-224-0670
서운사	508-755-0212
심광사	617-787-1506

원불교

원불교보스턴성당	617-666-1121
----------	--------------

천주교

보스턴 한인천주교회	617-558-2711
로드아일랜드한인천주교회	401-499-8258

건강식품

보스턴 정관장브랜드스토어	781-238-0303
---------------	--------------

건축

글로벌건축	617-645-6146
김원대 건축사	617-620-8242
미남건축	508-650-8844
선아건축	508-230-5878
솔로몬 DRYWALL	978-761-0623
신중축 루팡사이딩 청문	617-999-9616
이놀드 건축	617-833-1360
파인한건축	617-688-6833
한샘(주)	781-487-0101
ECO Construction	781-608-2971
E/Y 건축	617-590-3472
J.C건축	781-738-7871
J&D 인테리어	617-645-6661
LEE'S건축	617-538-0558

골프개인

골프레스	617-458-2733
골프스쿨	617-775-5527
남궁연골프교실	978-474-4780
ABC골프	603-401-7990

최현주 골프 레슨 339-223-4700

공인 회계사

김영일 회계사	617-901-0707
김창근 세무사	781-935-4620
노성일공인회계사	781-863-2232
이현주 회계사	781-944-2442
이명원 회계사	617-455-8073
정진수회계사	508-584-5860
한미선회계사	617-792-2355
한성애회계사	617-283-7151

꽃

미스틱화원	617-666-3116
대교플라워	617-875-0648
앤더슨꽃집	781-894-1843

금융/모기지

인디펜던트(퓨얼유)	617-777-2929
에이저리	781-591-2722
이중수파이낸스	617-799-6158

냉동/에어콘/히팅

JK 플러밍	978-303-7000
Nirvana Air	508-473-3429

노래방

진 노래방	617-782-9282
-------	--------------

도서관

뉴햄프셔한인도서관	603-644-1991
보스턴공립도서관	617-539-5400

당구장

올스톤당구장	617-782-0969
--------	--------------

동물병원

김문소 동물병원	978-851-3626
윤상대 동물병원	978-343-3049
제임스킴 동물병원	978-658-5282

떡/진차/반찬(주문)

형제떡집	978-975-3303
참음식주문	781-648-0584
한아름	617-547-8723

미용실

가위소리	617-782-8111
그레이스스킨케어	978-468-0039
그레이스커팅클럽	617-331-1011
단오 헤어살롱	617-206-4560
뷰티풀 헤어살롱	857-284-3879
세리 미용실	781-676-7374
압구정동알골방	617-437-0378
송현미미용실	508-734-0446
순옥위너미용실	508-737-8636
신현칠미용실	617-947-6293
에이비미용실(채혜경)	617-868-2253
오성희미용실	617-275-3109
이경혜미용실	800-867-9000
이정선	617-535-7851
이도경(condo & rental)	781-771-0047
정혜은미용실(EXT.125)	603-770-3491
정윤숙미용실	617-236-8600
조현경미용실	508-249-5838
프루덴셜(이효숙)미용실	203-255-2800
프루덴셜(김종미)미용실	603-845-2138

대상 대여/폐백

해피대상	617-249-3131
폐백	978-688-0929

방승국

엔티비보스턴사업국	617-955-9112
-----------	--------------

변호사

김경식특허변호사/변리사	617-239-0839
김성근 변호사	781-438-6170
김성희 변호사	617-884-0002
김연진변호사	617-742-7707
김성근 변호사	781-438-6170
김성희 변호사	617-884-0002
김연진변호사	617-742-7707
박현중특허변호사	978-474-8880
성기주변호사	617-504-0609
스티브 서 변호사(이민법)	203-852-9800
워드랜드/엑셈변호사	203-324-6155
장우석 변호사	781-712-1706
정선진변호사	617-230-0005
피터전변호사	203-386-0503
JOHN DOWNEY 법률사무소	647-964-5809
STEVEN S. KIM 변호사	617-879-9979
Joy Lee 변호사	617-624-0292
Young Lee Danesh	617-367-4949

병원

가정의	
그레이스 김 가정의	978-475-5656
내과	
송민근	617-696-7600
하버드뱅크(이재용)	617-421-2282
한서동내과	401-722-0305
산부인과	
최의웅산부인과	401-726-0600
이윤노산부인과	508-427-3000
소아과	
장경이 소아과	978-687-2119
심리상담	
배주은심경정신과	617-566-1055
심리상담	
김자함심리치료사	781-769-8670 x6080

양미아헤일리카운셀링 508-728-0832

재활의학

가족물리치료병원	781-365-1876
닥터스통증병원	617-731-1004
성진우추추신경전문	978-688-6999
추 남남 D.C.	617-230-4250
Hana Rehab Clinic	617-566-1199
보스턴컨테드케어	617-277-0648

치과

김동원치과	978-689-9363
김정구 치과	860-623-2601
키치아연치과	978-655-1583
신영목 치과	617-265-5606
안 치과	781-647-8000
엑셀패밀리덴탈	617-471-6970
이영완치과	508-987-8228
이요셉치과	781-431-7295
케임브리지덴탈	617-492-8210
케임브리지덴탈/엑스</	

▶광고 마감: 매주 화요일 오후 5시(신문)▶수표 보내주소: Payable to: The Boston Korea 161 Harvard Ave, Suite 13 Allston, MA 02134

**사업의 시작은
이경해 부동산**

Tel 800.867.9000
Cell 508.962.2689
email: kayleebrokers@aol.com
www.leebrokers.biz

알뜰 나눔터 안내

波士頓코리아는 2013년 5월 1일부터 새로운 알림광고 요금정책을 적용합니다.波士頓 코리아 네이션 와이드 광고를 선택하시면 LA, 애틀란타, 뉴욕, 시카고, 애틀란타, 달라스, 시애틀 및波士頓까지 총 미주 8개 지역의 오프라인 신문을 통해 광고를 동시에 내보내도록 합니다. 네이션 와이드의 광고는 총 5줄까지 가능하며 한 달 광고료는 \$50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N은波士頓 지역 외 네이션 와이드 광고임을 알려드립니다. 만약波士頓 지역 광고만을 원하실 경우 한 달에 \$30입니다. 결제는 그레딧카드도 하실 수 있으며 개인수표 또는 머니 오더 등을 보내주셔도 됩니다. 신문 광고 마감은 매주 화요일 오후 5시입니다.波士頓코리아닷컴 광고는 신청 당일 업데이트 가능합니다.

구인

광고 문의 617-254-4654

사고 팔고

광고 문의 617-254-4654

산후조리 해 드립니다.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T. 781-400-3929

Chelmsfords에 있는 Care Cleaners에서
매니저와 카운터 보실분 구합니다.
T. 603-401-0113

청소하실 부부구합니다.
영주권 소지자
T. 617-869-1698

장 음식 주문

- 김밥 및 떡 전문
- 생일잔치, 교회모임
- 돌, 회갑, 계모임 음식
- 대학교 파티, 결혼식
- 저렴한 가격
- 맛있고 풍부한 음식

Tel: 781-648-0584

**룸렌트 및
매매**

광고 문의 617-254-4654

뉴햄프셔 네슈아 한식/일식 식당 매매.
좋은 위치, 9년째 영업 중
T. 603-882-8644 (오후 4시 이후)

4989 부동산 매대는

BH HS 버크셔 헤서웨이
BERKSHIRE HATHAWAY

617-969-사구팔구
www.bhhsneprime.com

없는데 없습니다!

BOKO MART

BOKOMART.COM

波士頓코리아 + facebook = Like

www.facebook.com/bostonkorea1
혹은 페이스북 검색창에서 bostonkorea를 검색하세요

**매일 업데이트되는
波士頓 소식을
波士頓코리아
페이스북에서
만나 보세요**





'내일 그대와' 이제훈 · 신민아 벌써부터 특급 케미 예고

(서울=뉴스1스타) 명희숙 기자 = '내일 그대와' 출연진이 첫 대본리딩을 시작한 가운데 이제훈, 신민아가 케미를 예고했다.

tvN 새 금토드라마 '내일 그대와' 제작진은 지난 29일 첫 대본리딩을 시작했다.

유제원 감독은 배우와 스태프들을 향해 "좋은 작품을 함께 해줘서 감사하다"는 진심 어린 소감으로 대본리딩의 서문을 열었다. 유쾌한 유제원 감독의 리드로 시작된 대본리딩은 배우들의 리얼한 연기와 호흡으로 현장을 뜨겁게 달궜다.

신민아는 애교 가득하면서도 능청스러운 연기를 펼쳤으며, 목소리만으로도 달달한 이제훈은 전작 '시그널'과는 확 달라진 연기 색깔로 시선을 끌었다. 특유의 사랑스러움으로 무장한 신민아와 '내일 그대와'를 통해 첫 판

타스틱 로맨스물에 도전하는 이제훈의 호흡으로 작품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높였다. 티격태격 하면서도 알콩달콩 달달한 로맨스를 선보일 신민아와 이제훈은 내년 초 세젤에(세상 제일 예쁜의 줄임말) 커플로 특급 케미를 예고하고 있다.

이날 현장에는 유소준(이제훈 분)의 친구이자 같은 회사 기획팀장 강기동 역의 강기동, NGO단체 건축팀 팀장 신세영 역의 박주희, 김용진 역의 백현진, 송마린(신민아 분)의 양숙 같은 동창 이건축 역의 김예원, 세영의 아빠인 신성규 역의 오광록, 마린의 엄마 역의 이정은, 두식 역의 조한철 등 개성 강한 배우들이 함께 해 현장 분위기를 달궜다.

reddgreen35@news1.kr



'무도-무한상사' 시사회 개최

(서울=뉴스1스타) 장아름 기자 = 드디어 '무한상사' 프리미어 시사회와 '2016 무한상사' 본편이 방송된다.

멤버들은 최근 진행된 MBC '무한도전' 녹화에서 '2016 무한상사'에 특별출연한 지드레군, 연출을 맡은 장하준 감독과 함께 프리미어 시사회에 참석했다.

방송에 앞서 '2016 무한상사'를 처음 본 멤버들은 본인들의 정극 연기에 숙스러워 하다가도 어느새 내용에 빠져들어 긴장을 늦추지 못했다.

처음으로 정극에 도전하며 지난 주 방송에서 촬영 내내 부끄러워하는 모습을 보인 지드

레군은 시사회 초반까지도 고개를 들지 못하다 시사회가 끝난 뒤 누구보다 흠족해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는 후문이다.

지난 방송 메이킹 영상에 등장해 궁금증을 자아냈던 추격신과 경찰서 장면들 모두 이번 주 '2016 무한상사' 본편을 통해 방송된다.

김은희 작가가 예고했던 '무한상사' 안에서 벌어지는 이상한 일들은 과연 무엇인지, 유부장은 어떤 일 때문에 쫓기게 되었는지 공개될 예정이다. 이번 작품에도 김은희 작가 특유의 반전이 있을지 또한 관전 포인트다.

aluem_chang@news1.kr



'죽여주는 여자' 윤여정 "죽음에 대해 생각할 나이"

(서울=뉴스1스타) 유수경 기자 = 배우 윤여정이 50년 연기 인생에서 가장 과격적인 캐릭터로 돌아온 소감을 밝혔다.

윤여정은 '죽여주는 여자'(감독 이재용)에서 가난한 노인들을 상대하며 먹고 사는 '죽여주게 잘 하는' 여자 소영 역을 맡았다. 그는 사는 게 힘들어 죽고 싶은 고객들을 진짜 죽여주는 위험 천만한 인물이다.

이 영화는 이재용 감독과 배우 윤여정의 세 번째 만남으로 더욱 주목 받고 있다.

윤여정은 "노인들의 성매매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죽음에 대해서는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 나이이기 때문에 시나리오를 읽고 같이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털어놨다.

또한 "소영은 뉴스를 통해서만 봤던 특별한 직업을 가진 할머니다. 소영을 연기하면서 그녀의 삶과 인생,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고, 캐릭터에서 빠져 나오기 쉽지 않은 힘든 과정을 겪었다"고 말했다.

배우 윤여정의 선택은 언제나 새롭고 신선했다. 1970년대 김기영 감독의 영화 '화녀', '충녀'에서 당시에는 과격적인 새로운 여성 캐릭터로 한국의 팝과파탈로 불렸던 배우 윤여정은 이후에도 다양한 캐릭터로 변모했다.

'바람난 가족'에서 첫사랑과 솔직하게 바람난

쿨한 시어머니, '돈의 맛'에서 젊은 육체를 탐하는 재벌가의 안주인, '여배우'에서 화려함을 벗어내고 민낯을 드러내는 여배우, '계춘할망'에서 오매불망 손녀만 생각하는 해녀 등 매 작품마다 강렬한 캐릭터로 남다른 존재감을 보여줬다.

그러나 이번 변신은 어느 때보다 강렬하다. '죽여주는 여자'에서 배우 윤여정은 종로 일대에서 노인들을 상대하며 근근이 먹고 살아가는 박카스 할머니 소영을 연기한다.

소영은 노인들 사이에서는 '죽여주게 잘 하는' 여자로 소문난 할머니로, 하는 일에 대해 떳떳하지는 않아도 남한테 손 안 벌리고 산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어느 날, 사는 게 힘들어 죽고 싶은 고객들의 간절한 부탁에 진짜로 그들을 죽여주게 되면서 연민과 죄책감 사이에서 혼란에 빠지게 된다.

소영의 미묘하고 복합적인 캐릭터의 질감은 관록의 배우 윤여정의 깊이 있는 내공과 섬세한 표현력으로 완성되었다.

미국 버라이어티 VARIETY는 "윤여정의 작품 중 가장 뛰어난 성취를 보여준 인생작 중 하나(one of Lifetime achievements)로 기록될 것이다"라며 영화에 대한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uu84@news1.kr

한주간



시청률 순위

2016년 8월 22일 ~ 2016년 8월 28일

Nielsen Media TV 지상파 주간시청률

1	KBS2	주말연속극(월계수양복점신사들)	25.3%
2	KBS1	일일연속극(별난가족)	22.5%
3	MBC	창사특별기획(옥중화)	19.2%
4	SBS	월화드라마(닥터스)	19.2%
5	KBS2	해피선데이2부(1박2일)	18.2%
6	KBS1	KBS9시뉴스	17.0%
7	KBS2	일일드라마(여자의비밀)	16.6%
8	SBS	TV소셜(내 마음의 꽃비)	15.0%
9	KBS1	가요무대	14.9%
10	MBC	무한도전	14.7%

Tbo Play 주간시청률

1	KBS2	주말연속극(아이가다섯)
2	MBC	창사특별기획(옥중화)
3	SBS	TV소셜(내 마음의 꽃비)
4	MBC	주말드라마(가화만사성)
5	KBS1	일일연속극(별난가족)
6	KBS2	일일드라마(여자의비밀)
7	SBS	주말드라마(그래그런거야)
8	SBS	일일드라마(당신은선물)
9	MBC	일일연속극(다시시작해)
10	SBS	주말특별기획(끝에서두번째사랑)

* 한국 TV KBS, MBC, SBS를 월 \$37.99에 볼 수 있는 티보 (617-955-9112) 지금 신청하세요!

한주간 흥행 차트 순위 10

01	이 소설의 끝을 다시 써보려 해	한동근
02	휘파람	BLACKPINK
03	If You	에일리
04	목요일 밤 (Feat. 빈지노)	어반자카파
05	puzzle	씨잼
06	너 그리고 나 (NAVILLERA)	여자친구
07	Why So Lonely	원더걸스
08	여름밤에 우린	스탠딩 에그
09	Day Day (Feat. 박재범)	BewhY
10	널 사랑하지 않아	어반자카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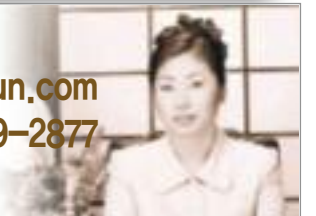
숫자 퍼즐 (Sudoku)

			5			3		7
			4	3		5		
	3		7		2			8
3			6			8		
9		7				4		2
		8			9			6
4			2		7		1	
		9		4	6			
6		2			3			

9월 4일 - 9월 10일

재미로 보는 주간 온 세 지문 철학원

www.askjiyun.com
213-739-2877



<p>쥐띠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p> <p>●운수:상황이라는 것은 그때그때에 따라 늘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당장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크게 동요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금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은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 것에 더 신경 써야 합니다. ●애정: 큰마음을 먹고 언젠가 큰 것을 해주겠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당장 작은 것이라도 상대를 위해서 해주어야 합니다. 84, 72, 60, 48, 36년생은 4, 7일 길일. 6, 9일 주의.</p>	<p>소띠 나무보다는 숲을 보는</p> <p>●운수: 기다려도 영 소식이 없었던 곳에서 소식이 옵니다. 드디어 바라던 답을 듣게 될 것입니다. ●금전: 나무보다는 숲을 볼 줄 아는 넓은 시야를 가져야 합니다. 자신에게 유리하고 원하던 결과를 손에 넣을 수 있습니다. ●애정: 둘만의 시간을 갖기 보다는 가족이나 친구 등 여럿이 함께 어울리는 것이 좋습니다. 서로의 애정을 더욱 깊게 해줄 것입니다. 85, 73, 61, 49, 37년생은 5, 8일 길일. 7, 10일 주의.</p>	<p>범띠 기와집을 수십 채 지어도</p> <p>●운수: 버스는 이미 떠났으니 팔을 흔들어도 버스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미련은 빨리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금전: 머릿속의 계산으로는 기와집을 수십 채 지어도 현실이 따라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애정: 자신도 모르게 괜히 들떠서 실수하거나 하지 않아도 되는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외출을 피하고 만남을 자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86, 74, 62, 50, 38년생은 7, 9일 길일. 5, 8일 주의.</p>
<p>토끼띠 열길 물속은 알아도</p> <p>●운수: 대인관계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합니다. 평소 싫어하던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금전: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바쁘게 움직여야 합니다. 힘은 들어도 이득이 따라줄 것입니다. ●애정: 온전히 상대를 다 알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이 왜 있는 것인지 깊이 생각해봐야 합니다. 87, 75, 63, 51, 39, 27년생은 5, 10일 길일. 8, 9일 주의.</p>	<p>용띠 침묵하고 잘 들어주는 가운데</p> <p>●운수: 스포츠나 레저 활동을 즐기기에 좋은 시기입니다. 스트레스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니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금전: 희망적으로 상황이 바뀌게 됩니다. 이 기회를 잘 포착해야만 좋은 결실을 맺게 될 것입니다. ●애정: 사랑하는 사람의 고민이나 배우자의 고충에 귀를 기울여주세요. 침묵하고 잘 들어주는 가운데 사랑이 영글어갑니다. 88, 76, 64, 52, 40, 28년생은 5, 7일 길일. 4, 10일 주의.</p>	<p>뱀띠 지금 당장 시작하도록</p> <p>●운수: 마음만 먹고 하지 못했던 일을 시도하기에 좋은 때가 왔습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시작하도록 하세요. ●금전: 노력만큼 수확하게 됩니다. 그동안 한푼 두푼 모아둔 돈을 요긴하게 쓸 수 있을 것입니다. ●애정: 멀어졌던 사이라도 다시 가까워질 수 있는 회복의 시기입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89, 77, 65, 53, 41, 29년생은 4, 9일 길일. 5, 8일 주의.</p>
<p>말띠 안전한 편을 택해야</p> <p>●운수: 주위에 알게 모르게 시기나 질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의 눈에 거슬리지 않게 조심해서 행동해야 하겠습니다. ●금전: 모험이나 도전을 해볼 수 있는 때가 아닙니다. 투자나 금전거래에 있어서 안전한 편을 택해야 합니다. ●애정: 조금만 더 일찍 그만 두면 조용히 넘어갈 수 있는 일을 망설이고 시간을 끌다가 문제를 만들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90, 78, 66, 54, 42, 30년생은 5, 10일 길일. 4, 6일 주의.</p>	<p>양띠 만족의 눈으로</p> <p>●운수: 당장 해야 할 일이 많아서 정말 하고 싶은 일에는 시간을 내지 못하고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금전: 한우물만 파야 귀한 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저기로 분산될수록 이득과는 거리가 멀어집니다. ●애정: 불만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면 스스로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만족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면 자신은 물론이고 주위 사람들도 행복해집니다. 91, 79, 67, 55, 43, 31년생은 6, 9일 길일. 4, 7일 주의.</p>	<p>원숭이띠 행복하게 해주는</p> <p>●운수: 큰 걱정거리도 없고 주변 여건이 안정된 상태이니 심신이 편안해집니다. 아프던 사람은 건강이 차츰 회복되어갈 것입니다. ●금전: 실보다는 득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주머니로 들어오는 것이 늘어나니 마음의 여유도 생길 것입니다. ●애정: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큰 위안이 되어주고 행복하게 해주는 때입니다. 92, 80, 68, 56, 44, 32년생은 7, 10일 길일. 5, 8일 주의.</p>
<p>닭띠 꼼꼼히 확인하고 넘어가야</p> <p>●운수: 작은 것이라도 꼼꼼히 잘 확인하고 넘어가야 할 것입니다. 장작 문제는 사소하다고 생각한 것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금전: 다른 사람의 사탕발림에 귀 기울이지 말고 자신의 주관을 확실히 세워야 합니다. 순간적으로 혹해서 잘못 따라가는 손해 보게 됩니다. ●애정: 어떤 형태로든 결론을 내야 합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서로 감정의 골만 깊어집니다. 93, 81, 69, 57, 45, 33년생은 4, 8일 길일. 5, 6일 주의.</p>	<p>개띠 들어오고 나가는 것이 많은</p> <p>●운수: 안 되는 일은 아무리 애를 써도 해결되지 않고 헛수고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나친 긴장감이나 걱정으로 체력저하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금전: 들어오고 나가는 것이 많은 때입니다. 그날그날에 따라 수입의 변동 폭이 클 것입니다. ●애정: 두 사람 사이에 있는 사람이 문제가 아닙니다. 두 사람이 이미 가지고 있는 문제에 집중해야 합니다. 94, 82, 70, 58, 46, 34년생은 5, 9일 길일. 4, 7일 주의.</p>	<p>돼지띠 변화의 물결이</p> <p>●운수: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해주어야 합니다. 위기에 빠지지 않으려면 미리 잘 살펴서 문제가 될만한 것을 피해가야 하겠습니다. ●금전: 아니라는 판단이 들면 하루라도 빨리 조처를 취해야 합니다. 미룰수록 손해만 커집니다. ●애정: 자신도 모르고 있었던 감정을 인식하게 됩니다. 변하지 않고 천년만년 갈 것 같은 감정에 변화의 물결이 치고 있습니다. 95, 83, 71, 59, 47, 35년생은 6, 10일 길일. 5, 8일 주의.</p>

'PD 이경규가 간다'

이경규 "PD 부담감? 영화 통해 이미 겪었다"

(서울=뉴스1스타) 장아름 기자 = 'PD 이경규가 간다'의 연출자이자 기획자, 출연자인 이경규가 PD도전에 대해 입을 열었다.

내달 7일 저녁 8시30분 방송되는 MBC 예브리원 'PD 이경규가 간다'는 예능대부 이경규가 예능인이 아닌 프로그램 기획자이자 PD로 변신해 본인이 직접 기획, 연출, 출연까지 1인 3역을 맡아 선보이는 새로운 형태의 리얼 예능 프로그램이다.

먼저 이경규는 "프로그램 연출은 한번 해보고 싶었던 일이고, 마침 제안이 와서 흔쾌히 수락했다"며 'PD 이경규가 간다'에 참여하게 된 계기를 밝혔다. 또한 이경규는 "방송국 시스템 상 출연자가 연출을 하는 일이 과거에는 불가능했는데 시대가 바뀌어 도전할 수 있게 됐다. 행운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PD 이경규는 자신의 연출관을 소신 있게 밝혔다. 이경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연출관은 시청자가 명확하게 프로그램 의도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경규는 "이거 도대체 왜 하는 거



야' 이런 말이 나오면 안 된다"며 프로그램의 명확한 목적을 중요시했다. 또한 이경규는 PD로서 현장을 장악하는 통솔력이 필요하다는 말을 덧붙였다.

국내 최초로 연예인이 PD에 도전한다는 점에서 이경규가 느낄 부담감은 클 것이라 예상된다. 이에 이경규는 "영화를 해보면서 작품에 대한 부담감은 이미 겪어냈다. 강한 내성이 생겨서 이번 PD도전에도 자신이 있고 부담감은 없다"며 PD로서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이경규는 연출자로서 100% 몰입해 있는 열정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출연자 일 때는 촬영이 힘들었는데, 연출자로서 촬영 현장에 가니 촬영 중에는 힘들다는 생각이 안 든다. 대신에 촬영이 끝나면 모든 피로가 몰려든다"며 PD 이경규의 열정을 드러냈다.

끝으로 이경규PD는 연출에 도움이 될 기억에 남는 PD가 있냐는 질문에 "송창의PD, 김영희PD, 김태호PD, 신원호PD, 당대 최고의 스타 PD들과 작업을 해봤다. 모두 나의 선배 PD이기도 하다"고 답해 웃음을 선사했다.

aluem_chang@news1.kr



MC몽, 정규 7집 앨범 발매 연기 "음악적 완성도 높인다"

(서울=뉴스1스타) 박건욱 기자 = 가수 MC몽이 정규 7집 앨범 발매 일을 연기했다.

MC몽 소속사 드림티엔터테인먼트 측은 31일 "MC몽의 정규 7집 앨범 'U.F.O.' 발표가 당초 예정일이었던 6일에서 약 3~4주 뒤로 연기됐다"고 밝혔다.

지난 2014년 발표한 정규 6집 'DISS ME OR MISS ME' 로 인기 물이에 성공한 그인 만큼, 이번 앨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던 상황. 하지만 MC몽은 더 좋은 음악을 위해 발매일을 연기하는 결정을 내렸다.

소속사 한 관계자는 "최근 믹스작업을 끝냈는데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물이 나와 부득이 새롭게 다시 작업을 해야 하는 등 음악적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발표 시기를 늦출 수밖에 없다"며 "2년간 새 앨범을 기다려준 팬들에게 보다 좋은 곡을 들려드리고 싶은 심정을 이해해 주시고 발매가 늦어진 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MC몽은 차후 다시 앨범 발매 일을 발표할 예정이다.

kun1112@news1.kr

이선빈, 걸그룹 연습생 출신다운 춤 실력 '매력 폭발'

(서울=뉴스1스타) 이진욱 기자 = 배우 이선빈이 걸그룹 연습생 출신다운 댄스 실력을 자랑했다.

이선빈은 지난 31일 방송된 MBC '황금어장-라디오스타'에서 걸그룹 연습생 출신이라는 질문에 "고3 때부

터 3년 반 정도 연습했다"고 말했다. 걸그룹 데뷔를 앞둔 그는 "(시기가) 결정된 건 아니다. 원래부터 음악을 좋아하니까 회사에서 연습을 계속 시켜줬다"고 했다.

이선빈은 준비해온 춤을 선보이기

위해 나섰다. 긴장하던 그는 음악이 시작되자 힘 있는 동작들로 가수 연습생 출신다운 실력을 보여줬다. 춤이 끝나자 민망해하는 모습으로 귀여운 매력도 선보였다.

star@news1.kr



천지보살

운명사주궁합선점

전화예약 617-947-6799

전화로도 상담해드립니다

태양자동차
Body & Repair/States Inspection

모든 차량 정비 서비스
유형, 미국, 일본, 한국

STATES INSPECTION

사고가 났습니까?
사고가 난 차를 원상 복구해 드립니다.
인슈어런스 바디워크 합니다.

617.868.2500
617.868.2600

48 NEW ST, CAMBRIDGE, MA 02138
Harvard Sq. 5 min / Lexington 10 min / Newton 20 min
E-mail: eunautobody@yahoo.com

김원테 건축사
Registered Architect (EA & NY) • BOAAB • GDT • LMSB AP
MA REALTOR® • EA Licensed Real Estate Salesperson

건축 & 시공

15년 이상의 전문적인 경험
백사후세초와 뉴욕 건축사 전문 라이선스 보유
특별 프랑크푸르트 대학교 건축학과 졸업
기법 - 설계 - 허가 - 시공 - 관리
각종 건물 신축 - 통축 - 개축
We can Design Build Buy Sell your home!
상용건물 - 콘도 - 주택 - 사업체 매매 도와드립니다

otk212@gmail.com 617.620.8242

New name for &TV

TBO PLAY RATINGS

티보 시청률

TBO Play는 한국 방송 및 영화 콘텐츠를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는 정식 라이선스를 받아 북미지역에서 유일하게 합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질투의 화신' 조정석, 마초인 듯 아닌 듯 묘한 매력

(서울=뉴스스타) 권수빈 기자 = 배우 조정석이 마초인 듯 웃는 듯 묘한 매력을 풍겼다. 지난 31일 방송된 SBS 수목드라마 '질투의 화신' 3회에서는 이화신(조정석 분)이 표나리(공효진 분)를 신경 쓰는 모습이 그려졌다. 이화신은 음주 방송을 한 표나리가 해고 위기에 놓이자 보도국장을 찾아가 따졌다.

그는 표나리가 기상 예보를 할 때 치솟은 실시간 시청률 자료를 내밀며 "해고가 아니라 상을 줘야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자신을 짝사랑했던 표나리가 자신에게 더 이상 마음이 없다는 것을 확인할 때마다 묘한 허함을 느꼈다. 남자로서 암담한 부인과 진료를 앞둔 그는 표나리에게 전화를 했고, 끊어진 수화기에 대고 "네가 생각났어"라고 고백했다.

이화신이 유방암 선고를 받고 멘붕에 빠지는 모습은 흥미를 더했다. 믿을 수 없는 진단을 받고 검사를 받는 장면에서 웃음을 터뜨리게 했다. 항상 남자다움을 추구하던 그가 분홍색 병원복을 입고 같은 병실에서 표나리와 재회하게 되면서 어떤 관계를 이어나가게 될지 주목하게 했다.

ppbn@news1.kr

티보플레이 8월 3째주 시청률 BEST10

1	KBS	아이가 다섯
2	MBC	옥중화
3	KBS	TV소설(내 마음의 꽃비)
4	MBC	가화만사성
5	KBS	별난가족
6	KBS	여자의 비밀
7	SBS	그래그런거야
8	SBS	당신은 선물
9	MBC	다시시작해
10	SBS	끝에서 두번째 사랑

티보플레이 8월 3째주 신규 방송

1	CJ	내 귀의 캔디
---	----	---------

티보플레이 8월 3째주 최신 영화

경리 "지코-우태운 형제 외모가 내 이상형"

(서울=뉴스스타) 유수경 기자 = 나인뮤지스A 경리가 지코, 우태운 형제를 이상형으로 꼽았다. 이날 방송에서는 경리와 서울대 출신 엄친아 배우 박재민, 데뷔 후 첫 예능에 출격하는 배드키즈의 루아 그리고 데뷔 20년차 개그계의 대부 김준호가 출연해 입담을 뽐낸다. 나인뮤지스A로 돌아온 경리는 이날 방송에서 데뷔 초 천생연분 콘셉트로 진행된 '올더케이팝-예능사관학교'에 출연해 차오루, 우태운과 함께 삼각

관계를 형성했던 사실을 언급했다. 당시 경리는 우태운에게 호감을 표한 이유로 "데뷔 초 이상형이 지코였다. 지코, 우태운 상을 좋아한다" 라고 밝혀 이목을 집중시켰다. 또한 경리는 대한민국 섹시 TOP3를 묻는 질문에 자신이 1위라고 당당히 밝히며, 2위로는 현아, 3위로는 설현을 꼽아 섹시 아이콘으로서의 당당한 면모를 보였다.

uu84@news1.kr



TBO PLAY

보스톤권각아
MA, RI, NH 지역 공식 딜러

내가 보고 싶은 한국방송 · 영화를 원하는 시간에 고화질로 즐기세요

무제한 시청 월: **\$39.99**

이동 고객 특별 할인
타 방송사에서 티보 플레이로 갈아 타시는 분에 한해 월 \$30도 특별 우대해 드립니다

KBS, MBC, SBS, SBS Plus, tvN, XTV, Mnet, O'live, OCN

The Best Underpaid, TBO

이정선 부동산

kw BOSTON-METRO
KELLERWILLIAMS

CHUNG S. LEE

Mobile: 781.883.5984
Office: 617.535.7851
Fax: 617.542.0016
chunglee7@gmail.com
chunglee.kwrealty.com

607 Boylston Street, Suit 500
Boston, MA 02116



Premier Realty Group



경험과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책임지겠습니다



나원태 Realtor

Direct: 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제이슨 전 Realtor

Direct: 617.642.5670
jason@bostonpremierrealty.com

LISTINGS

1. Full Plant 클리너 : 렉싱턴에 위치. 부동산 포함 \$1.39M SOLD	9. Single family : 22 Willow park, Wellesley SOLD
2. Full Plant 세탁소 : Marlborough 좋은 위치. Asking \$65,000	10. Condo : 20 Hosmer st. unit 1, Watertown SOLD
3. Full Plant 세탁소 : 보스톤 북부 인근. Asking \$150,000	11. Multi family : 23-25 Baker St., Belmont SOLD
급매 4. Full Plant 세탁소 : Tewksbury 큰 Mall 안에 위치. 넓은 주차공간. Asking \$30,000	12. 미림 식품 : Allston SOLD
5. 드롭오프 스토어 : Sharon에 위치. \$40,000	13. Single Family : 4 Bed, 2 Full Bath, 2,130 SF, 64 Oak St., Newton SOLD
6. 드롭오프 스토어 : Norwell에 위치. \$20,000	14. Condo : 47 Homer ave Unit 5-3 Cambridge SOLD
7. 보스톤 인근 임시당 : Asking \$225,000 SALE PENDING	15. Condo : 47 Gordon St. Unit 1 Allston SOLD
8. 렌트 : 701 Hammond St. Unit 2, Brookline \$3,400 RENTED	

NEW LISTINGS



렌트

12-16 Ellery St. Unit 603 Cambridge
2 Bed 2 full bath, 하버드 sq.에서 5분
Rent includes heat, hot water,
snow removal, 9월 1일 입주 가능.

월 \$2,700



렌트

11 Hibbert St. Lexington
Single Family
3Bed 1Bath

Rented



렌트

156 Porter St. Unit 236 East Boston.
Loft style 1Bed.
좋은위치 다운타운에서 15분

Rented



세탁소

보스톤 북부 세탁소
안정적인 매출

Asking \$180,000



한식&일식 식당

Plymouth 센터에 위치
Full liquor, Lots of foot traffic,
great exposure, recently renovated.

Asking \$700,000



Single Family

6 Sorens Way Bedford
4Bed 2.5Bath 3,580 s.f., 0.6 Acre
Cul-de-sac lot.

SOLD



델리&컨비니언스

좋은위치 성업중

Asking \$120,000



일식당

Beer and wine 포함
Lawrence 지역,
좋은위치

Asking \$190,000



컨비니언스 스토어

Cambridge에 위치

Asking \$140,000



비즈니스 콘도

Brookline
현재 세탁소영업중.
좋은 렌트수입

Asking \$509,000

나원태: 617.642.3156
제이슨전: 617.642.5670

신영의 **세상 스케치**

560회



시인 신영은 월간[문학21]로 등단, 한국[전통문화/전통춤] 알리기 역할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skyboston@hanmail.net

화려한 도시 속 어둠 앞에서...

아름다움이란 무엇일까? 아름다움이란 추함의 반대말일까. 그렇다면 추함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것을 정의하는 것은 무엇일까. 어쩌면 모두가 각자의 색안경을 끼고 자신의 색깔만큼 보는 것은 아닐까. 그렇다, 나는 어제 매사추세츠 주 보스턴에서 5시간 비행 시간을 지나 캘리포니아 LA에 도착했다. LA에서 문학 행사가 며칠 있어 하루 일찍 떠 나온 것이다. 그것은 여행을 시작하며 습관처럼 되어버렸다. 자유로운 여행뿐만 아니라 짜여진 모임이라 할지라도 하루 정도 일찍 가서 그 도시를 구석구석 둘러보고 그 느낌들을 통해 더 깊이 만나게 되는 것이다.

여하튼 나는 어제 LA에 도착해 코리아타운의 한 호텔에서 묵고 있다. 그리고 어제 밤 나절을 그 근처를 돌며 한국 식당에 둘러 맛난 콩국수도 먹고 여름내 먹고 싶던 팔빙수도 사 먹었다. 그런데 높은 빌딩 숲 사이 길목에서 준비하게 늘어난 텐트들을 보게 되었다. 처음에는 못 보던 광경이라 무슨 텐트 회사에서 광고를 하는 줄 알았다. 그래서 한발자국씩 옮겨가는데 가까이 가니 전부터 쿨쿨하고 쉼내나는 고약한 냄새가 잠깐사이에 머

리를 아프게 했다. 그것은 알고보니 텐트 회사의 광고가 아닌 집이 없어 떠도는 홈리스(Homeless)들의 삶의 현장이었다.

그들이 의지하며 그늘로 삼은 곳은 바로 다름 아닌 높고 웅장한 큰 교회의 담벼락과 누가 코리아를 대표하는 빠른 정보과 통신으로 알려진 방송국 담벼락이라는 사실이다. 가는 곳마다 사진 담기를 좋아하는 나 역시도 이 모습은 차마 담을 수가 없었다. 홈리스 피플이란 명찰을 저들은 언제부터 달고 다녔을까. 그들이 진정 원하지 않았지만, 어느 날 목에 달렸을 이름표를 생각하니 마음 한 구석이 멍해진다. 그것은 한 개인의 책임이라 할 수 없음을 너무도 잘 알기 때문이다. 그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고 사회와 그리고 나라의 책임이기도 하다.

물론, 자신의 게으름도 있을 테지만, 그 게으름의 일부 책임만큼은 우리의 몫이라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더불어 살아야 하는 이유이고 까닭이다. 그들에게 당장 무엇을 도와줄수는 없지만, 미안한 마음과 긍휼의 마음을 잊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정말 우리 주변에는 이처럼 생계를 꾸려가기

어렵고 사는 일이 힘들고 버거워 삶을 포기하고자 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그저 이들을 안쓰러운 눈으로 마음으로 바라보기만 하면 되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그들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이며 어떻게 할 것인가.

누구나 자식을 키우는 부모의 자리에 서게 되면 더 멀리 더 넓게 그리고 더 높고 더 깊이 바라보게 된다. 그것은 마음의 눈이 조금씩 뜨이고 혜안이 조금씩 열린다는 얘기일 것이다. 내 자식을 내어놓는 밖의 세상에 누가 사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 어떤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삶을 사는지 관심의 폭이 넓어지는 것이다. 그렇다, 이렇듯 내 자식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라면 적어도 주변을 살펴봐야 할 일이다. 그것은 끼리끼리라는 우리의 차원을 넘어서 함께라는 책임의식을 말함이다. 내 것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우리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비밀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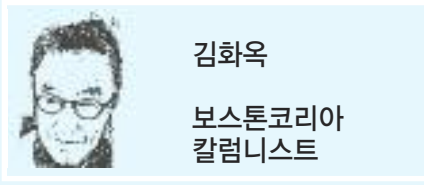
우리는 식당이나 커피숍에서 늘 보는 일이지만, 두 손 모으고 기도하는 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보지 않던가. 그나마 미국은 그렇지 않지만, 한국의 밤 풍경을 떠올려 보자.

어두운 도심 속 붉은 십자가들이 두 눈에도 담을 수 없을 만큼의 먼 바다의 수평선처럼 보이지 않던가. 그렇다면 십자가의 숫자만큼이나 세상은 더 밝아져야 하는 것이 아닐까. 적어도 두 손 모으고 기도하는 이들의 삶은 그렇지 않은 이들과 구별되어야 하지 않을까 말이다. 그렇지 않다면 과연 간절히 모은 두 손은 누구를 위한 것이며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일까.

나 역시도 이곳에 와 이 광경을 목격하면서 한 종교인으로서 참으로 부끄럽기 그지없었다. 도심 속 높은 빌딩 숲 사이 담벼락에 즐비하게 늘어난 노숙자들의 텐트를 보면서 참으로 가슴이 답답해졌다. 그렇다면 나는 이들에게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저 잠시 보고 느끼며 울컥하는 감정의 일렁임으로 그칠 것인가. 누군가 내게 종교가 뭐냐고 물으면 조금의 머뭇거림도 없이 기독교인이라고 대답하던 나를 잠시 마주하고 대면하는 시간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니 나는 무엇을 시작해야 할까. 진정 실천 없는 자비와 긍휼은 거짓이란 울림이 가슴을 헤집는다.



한담객설閑談客說: 사당역 연기戀歌



김화옥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서울 사당역 지하철에서 내리면 넓은 사거리를 만난다. 그 근방 골목은 아직도 내게 낯설지 않다. 연애할 적에, 사귀는 여자애네 집이 근처에 있었다. 그게 삼십년도 훌쩍 넘었다. 지하철 2호선이 개통되기 전이고, 사당역은 이름도 없었다. 여자애가 현재 내 아내다. 지난 여름은 더웠는데, 내가 연애 할적에도 날은 더웠다.

사당역에서 2호선 지하철을 탈 적엔 머뭇거리다. 도대체 어떤 차를 타야 하는지 헷갈리기 때문이다. 잘못 탔기에 내렸다다가 다시 탄게 몇 번된다. 내려서 출구로 나왔다가, 표를 사가지고 다시 타야 하는 수고로움이었던 거다. 촌사

람에게 지하철 타기가 긴장되는 건 어쩔 수 없다.

잘못 내린 역에서 돌아가려고 /남들 다 빠져 나온 출구 되짚어 들어가는데 /이 길 먼저 지나간 사람들 뒷모습이 하나씩 지워진다. (고두현, 지하철에서)

그날 약속장소까지 시간은 넉넉했다. 마침 목에선 두툼한 커피향내를 불렀다. 머리 속은 기쁨때가 끼어 있는듯 맑지 않았다. 사당역에서

지하철을 내렸다. 스타벅스 커피집이 눈에 띄었다. 이중 창가에 자리 잡았다. 통창으로 눈앞엔 고가도로가 지나고 있었다. 고층 건물이 들어선 길 건너편이 빼꼼히 보였다. 목은 울컥했는데, 마음은 오히려 차분해 지니 무슨 조화인가. 고향 마을을 찾은 것도 아닌데 말이다. 길 건너편, 방배동에 내 처가의 옛집이 있었기 때문일터.

뭔가 적어야 겠다는 생각에 노트북을 꺼냈다. 옆에 앉아 열심히 작업하던 젊은이와 말이 터졌다. 깔끔한 청년이었는데 이력서를 쓰고 있었다. 요새는 커피집에서 이력서를 쓰는 모양이다. 그가 내게 물었다. '책을 쓰시나 봐요.' 가볍게 고개를 저으며 내가 말했다. '책은 무슨책. 그저 옛날 추억을 끄집어 내고픈 욕망.' 잘생겨 깨끗하지만 한 청년이 원하는 직장을 얻기를 바란다. 나도 그 시절 사당동/방배동이근처를 배회할적에 미래는 캄캄했더랬다. 사당역 주변은 예나 지금이나 캄캄하기는 마

찬가지인 겐가?

창으로 밖을 내려다 볼적에 고운 노부부가 걷고 있었다. 노부부는 아들집에라도 가는 길인가. 동네 산책을 나온 길인가? 우리 부부도 노부부처럼 곱게 늙어갈 수있을 것인가. 그래서 아내의 손목을 잡고 이 길을 다시 걸어 볼수있을까. 하지만 이제는 아내를 그곳 처가에 남겨놓고 돌아서지는 않는다. 우리 같은 집에 사니 말이다.

이젠 아이도 떠나 빈 등우리에 달랑 아내와 내가 남았다. 언젠가는 아내 손목을 잡고 사당역 근방을 배회해야 할까보다. 바래다 줄 집이 윌리 없지만, 같이 걸어갈 길이기 때문이다. 스타벅스 커피집이 그때까지 있을 것인가. 대신 컴컴하고 후미진 곳으로 아내를 끌고 들어가지 않는다. 사당역 연기戀歌만 흥얼거린다.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칠 년을 며칠 같이 여겼더라. (창세기 29:27)



BOSTON NEHEMIAH INSTITUTE

BNI 평신도신학원은 지역 목회자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전문성 있는 신학강사진들을 통해 지역의 한인 평신도들에게 성서신학을 포함한 체계적인 기본 신학과정을 제공합니다.

2016년 가을학기 교과과정

요일 및 시간	학사일정	장소	과목명	교수
월요일 7:30-10pm	9/12-10/17	Central	고대 중동 문화로 읽는 신약	안창선 목사
	10/24-11/21	Central	이민신학알아가기	이영길/유경렬 목사
화요일 7:30-10pm	9/13-10/11	North	아가서에서 읽는 하나님의 사랑	김성천 목사
	10/17-11/14	North	심리이론의 이해를 통한 관계 향상과 갈등의 대처	조유연 목사

Central클래스 : 보스톤한인교회 32 Harvard St. Brookline, MA 02445

North클래스 : 나사렛사랑외교회 900 Main St. Reading, MA 01867



공개강좌: Business as Mission

Business as Mission (비즈니스 세상속의 선교적 삶)

비즈니스의 상황속에 놓인 교회와 성도들이 직면한 도전의 본질은 무엇이며, 이와 동시에 새롭게 열리는 선교적 기회와 시대적 부르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강사: 서명구 교수 (University of Maryland)

일시: 2016년 9월 10일 (토) 오후 6시 45분

장소: 보스톤 한인교회

강좌중에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Babysitter가 제공되며, 강좌후에 다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독자기고
김철

북미대륙 인디언의 역사 18. 인디언을 말살하라 (1)

인디언에 대한 정책 변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미국에는 애국주의, 반공이데올로기, 매카시즘(McCarthyism), 그리고 집단주의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이러한 움직임은 모든 소수민족을 완전 동화시켜 주류사회로 융합해 나가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어졌으며 이 흐름은 인디언에게도 예외가 아니었다. 전쟁으로 늘어난 빚을 갚기 위하여 예산지출을 줄여야 하는 입장에 있던 연방정부는 인디언에 대한 경제적 지원규모를 감소시켜서 재정적 부담을 축소시켜 나가기를 원했다. 이 무렵에 이미 자립기반을 구축한 일부 인디언 부족에서는 인디언당당국의 지나친 간섭에서 완전히 해방되어 주류사회의 보통의 시민으로 취급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펴기도 하였다.

인디언에 대한 미국정부의 정책은 '동화(Assimilation)'와 '보전(Preservation)' 사이를 왔다 갔다 했다. 1940년대 중반에는 다시 동화 정책의 계절이 시작되었다. 19세기 후반에 시작되었던 일련의 동화정책 곧, 기숙학교와 토지할당은 인디언들을 주류사회로 편입시키기 위한 기초공사이었던 반면 20세기 중반에 다시 시작된 동화정책은 본 공사쯤으로 비유될 수 있다. 그래서 정책의 이름도 동화가 아니라 말살(termination)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다. 말살은 인디언 부족국가(nation)의 완전해체 즉, 부족 주권(sovereignty)의 불인정



〈Catechetical Guild Educational Society of St. Paul〉이 1947년 발행한 반공 만화책 'Is This Tomorrow'의 표지

을 뜻한다. 말살정책 시행 이전에는 인디언들은 연방정부가 주권을 인정하는 부족국가의 구성원으로서 미국정부에 대하여는 보호자와 피보호자의 관계에 놓여 미국정부로부터 교육, 의료 등 여러 분야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말살정책이 시행된 후로는 미국의 일반 시민과 똑 같이 권리와 의무가 주어지고 더 이상의 연방정부로부터의 특별 지원은 사라지게 된다. 인디언 부족주권 말살정책은 부분적으로는 성공을 거두기도 하였으나 폐해가 훨씬

더 많아 개선의 필요성이 주장되는 가운데에 1960년대에 시작된 흑인 인권운동과 인디언들의 행동주의 인권운동단체(Indian Activist Movement) 등의 노력으로 인종차별을 철폐하고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인디언 부족국가의 자치권(Self-Determination)을 다시 인정하는 정책으로 바뀌었다.

말살정책의 준비

부족주권을 뺏기 위하여 1940년부터 1950년까지 제정된 일련의 법들이 말살정책의 기초를 닦았다. 그동안 연방정부가 행사해 오던 인디언 관련 주요범죄에 대한 사법권을 주정부로 이관하는 법률 여섯 개를 만들었다. 1943년 상원은 인디언의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인디언 담당국의 지나친 관료주의적인 간섭이 인디언의 문제를 보다 악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하고 인디언들을 종속적인 관계로부터 해방시켜 주류사회로 진출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후버 전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정부조직연구위원회(Commission on Organization of the Executive Branch of the Government)가 1949년 작성한 보고서는 인디언들을 주류사회로 통합시킬 것을 추천하였으며, 1952년 실시된 인디언국에 대한 의회 감사에서도 말살정책이 예산절감에도 보탬이 되고 인디언에게도 유리한 정책이기 때문에 말살정

책의 추진을 촉구하였다. 1953년 채택된 상하원합동결의안은 말살정책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면서 일부 지정된 부족에 대하여는 당장 연방정부와의 관계를 정리할 것을 촉구하고 향후에 개별 부족 상대로 하나씩 관련법을 제정해 나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당시의 정치권에서는 인디언 부족국가 말살정책을 어쩔 수 없는 시대적 조류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인디언 인구가 많은 서부주 출신 연방의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섰다. 다만 정치인들 간에는 정책추진의 속도와 순서에 관하여 약간의 의견 차이는 있었다. 연방정부의 지원 없이도 자립이 가능한 인디언 부족부터 말살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타당시되어 인디언담당국은 경제적 자립도를 기준으로 성적을 매겨 순위를 정하였다.

인디언클레임위원회(Indian Claims Commission)

1946년 8월 13일에는 인디언클레임위원회법(Indian Claims Commission Act)이 제정되어 인디언들이 과거에 겪은 조약위반, 불법적 토지강탈, 불공정거래, 부적절한 보상 등과 관련된 불만 사항을 미국정부에 신고하여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다음 호에 계속)



화랑도(花郎徒)와 성(性) 그리고 태권도(跆拳道) 143 화랑세기花郎世紀, 4세 풍월주風月主 이화랑二花郎(9)

박선우 (박선우태권도장 관장)

[그때 동륜공이 점차 장성했는데, 대왕이 보익하는 사람이 없음을 염려하여, 토함으로 하여 보익하도록 했다. 토함이 말하기를 “이것이 나의 임무이다” 했다. 이에 화랑의 지위를 아우에게 넘겨주었다. 공은 이에 사다함을 부제로 삼았는데, 그를 사랑함이 토함과 같았다. 그때 사람들이 공이 인재를 얻었음을 축하했다. 얼마 안 있어 가야가 반란을 일으키자, 사다함이 중군을 청하여 승리를 거두었다.]

동륜은 진흥왕과 사도왕후의 장자로 태어났지만 왕위를 잇지 못했다. 어려서부터 색사를 좋아하면서 부왕의 후궁까지 넘보았다. 어느 날 진흥왕의 후궁 중의 한명인 보명궁주의 궁을 넘다가 개에게 물려서 죽었다. 동륜은 566년 어린나이에 태자로 책봉되었다. 어느 사서에 출생년도의 기록은 없다. 다만 어릴때 태자로 책봉된 것과 일찍이 색사를 좋아하여, 월성의 또 하나의 '난봉꾼'인 미생(미실의 동생)의 무리들과 어울려 놀면서 아버지 진흥왕의 후궁인 보명궁주와 상간하였다. 어느날 혼자서 담을 넘다 그만 개에게 물려서 죽었다. 그 해가 572년이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유추해 볼 수 있는 그의 출생년도가 555년에서 560년 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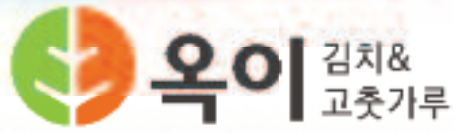
이다. 진흥왕 당시 월성에는 사도思想, 미실美室, 보명寶明, 옥리玉理, 월화月華 등 다섯 궁주가 있었다. 각 궁주는 왕후인 사도처럼 독립된 궁에서 거처했으며 물론 모두가 진흥왕의 여자들이었다. 미실은 궁에 들어가기 전에는 사다함의 연인이었다. 그래서 562년 사다함이 화랑도의 부제로서 가야정벌에 나섰을 때 연인을 선뜻 보내지 못하는 미실의 노래 '송사다함가'가 우리의 향가로 전해 오고 있다. 그리고 사다함이 승전을 하고 돌아왔을 때는, 미실은 이미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되어 있었다. 지소태후의 또 다른 남편(태종 이사부)의 아들인 세종의 아내로 입궁해 있었다. 남의 아내가 된 연인 미실을 잊지 못하고 부른 노래가 '청조가'이다. 또 한 수의 향가로서 화랑세기에 전하고 있다. 그리고 동륜이 죽을 무렵에는 미실은 이미 진흥왕의 후궁이 되어 있었고, 동륜 태자와도 색사를 즐기고 있었다. 미실과 보명은 진흥왕의 후궁이면서도 차기 왕이 될 동륜에게 색공을 하고 있었으며, 먼저 시작한 미실이 자신의 행실이 탄로가 날까봐 동생 미생을 시켜서 동륜태자를 보명에게로 '유인誘引'하였으며, 또 다른 부왕의 후궁 보명궁주에게 빠진 태자는 그녀의 치맛폭을 잊지 못하고 월

담을 하다가 개에게 물려서 죽었다. 이 사건으로 미실의 음행도 탄로가 나서 그녀는 출궁되었고, 원하인 미실이 이끌던 화랑의 직제도 대폭 개편되면서 풍월주만의 수장제도에서 국선의 등장을 예고하였다. 비록 미실은 출궁 당했지만 그녀의 타고난 미색을 그냥 그렇게 초야에 묻혀두지는 않았다. 그녀는 곧 색사와 색공의 파노라마로 월성의 뜻사내들을 핑크빛으로 물들게 하였다(미실의 이야기는 앞으로 여러대의 풍월주들과 함께 이어갈 것이다).

문노가 500명의 낭도를 데리고 합류하면서 사다함의 세력은 한층 확장되었고, 동시에 진흥왕이 어린 나이에 태자로 책봉된 동륜의 안위를 염려하여 풍월주에 버금가는 토함으로 하여금 보익하도록 하면서 토함은 모든 화랑의 지위를 동생인 사다함에게 넘겨주고 태자의 보익에만 전념하였다. 결과적으로 형 토함의 낭도들까지 인수한 사다함은 풍월주 다음가는 화랑도의 부제가 되었다. 그리고 가야정벌에 종군하여 승리하면서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였고, 형은 진흥왕의 명으로 태자 동륜을 보익하다가 동륜이 '개죽음'을 당하면서 역사의 뒷문으로 사라졌다. 화랑세기가 아니라면 도저히 알 수 없는 옛이야기이다. 그들 형

제는 구리지가 아버지이다. 구리지는 뒷간에서 태어났다. 그래서 이름이 구리지이다. 구리지의 아버지 비랑공은 비처왕(소지왕)의 후궁인 벽화부인과 측간에서 사통을 하여 구리지를 낳았다. 벽화부인은 비처왕이 날이군(현 경북 영주)으로 순시를 나갔다가 만난 후 그녀를 잊지 못하여 월성에서 낳음을 지세우다 데려온 당대 신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 중의 한 명이었다. 벽화는 변방을 지키는 군인 파로의 딸이었다. 사다함의 할아버지 비랑공은 마복칠성 중의 한 명이다. 마복칠성은 마복자 중에서도 가장 신분과 지위가 높았다. 마복자는 어머니가 임신 했을 때 왕이나 상관과 성관계를 하고 태어난 아들을 가르킨다. 그러니까 묘양이 비랑공을 임신했을 때 우리나라의 역사 속에서 옥경이 가장 크다고 기록된 지증왕과 배를 맞추었다는 말이다(마복은 배를 문지른다는 뜻이다).

참고문헌: 삼국사기, 삼국유사, 삼국사절요, 화랑세기 - 신라인 그들의 이야기(김대문 저, 이종욱 역주해, 소나무), 화랑세기 - 또 하나의 신라(김태식, 김영사), 신라속의 사랑 사랑속의 신라(김덕원과 신라사학회, 경인문화사)



한가위

김치 축제

“ 즐겁고 풍요로운 한가위 되세요.”

100% 고국의 재료로 만든
100% 한국산 김치

일자: 9월 16일, 17일
장소: 다음주 보스톤코리아
신문광고 참조



배추 김치

배추김치(포기) 22LB = \$36/BOX
배추김치(포기) 11LB = \$17.95/BOX
배추김치(포기) 3.3LB 단지용기 = \$4.99/EA



총각 김치

총각김치 22LB = \$36/BOX
총각김치 11LB = \$17.95/BOX
총각김치 3.3LB 단지용기 = \$4.99/EA



한국산 고춧가루

2.2LB =
\$9.95/EA(한국현지가 \$35/EA)



100%국산매실진액 (PLUM EXTRACT)

750ML 유리병 황매실 \$17/EA
100ML 플라스틱 청매실 \$15/EA

양미아의 심리치료 현장에서

양 미아 Licensed Psychotherapist

Private Practice: 1330 Beacon St.
Brookline, MA 02446
37 Fruit St. Worcester, MA 01609,
508-728-0832
yeungmiaj@gmail.com

"잘 노는 일, 말 처럼 쉬운 일일까? (3)"
- 마음이 바뀌면 인생도 바뀐다. XV -

많은 학교가 새 학기를 시작하였고 곧 시작이 된다. 이번 몇 주는 새로운 학기가 주는 설렘과 학교 생활을 잘 할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교차하는 시간이다. 필자는 새 학년을 맞이하는 이 중요한 시기에 공부 잘하는 이야기보다 잘 놀고 잘 쉬는 이야기를 계속하려 한다. 공부 일등의 법칙보다 놀이의 법칙이 학교 생활에 훨씬 중요하기 때문이다. 놀이의 법칙은 얼마나 다른 사람과 '공감' 할 줄 알고, '배려' 할 줄 아느냐에 달려있다. 새 학기의 첫 몇 주 안에 일 년간의 학급 관계 형성은 이루어진다. 이 관계를 '클릭' 되어진 관계라고 이야기 한다. 이미 설정된 클릭의 그룹은 점심 시간이 즐겁나 아니냐의 성패가 온다. 학교 식당에 갔을 때 아무도 같이 앉아 점심을 먹을 친구가 없다는 것을 한번 상상하길 바란다. 한 어린 클라이언트는 같이 앉아 먹을 그룹이 없어 아예 밥을 먹으려 학교 식당에 가지 않아 학교의 오후시간은 배가고파 수업에도 지장이 왔던 가슴아픈 이야기를 했다. 구강 만족의 중요성은 이미 태어나는 순간부터 운명적으로 다가온다. 신생아는 태어나자마자 울음을 터뜨린 후 엄마 품에 안겨 젖을 빨려 하지 않는가?

아이가 인간의 원초적인 구강 만족이 안되고 먹는 시간이 괴롭다는 것은 학교 생활이 주는 놀이에 적응하지 못했다는 단적인 증거이다. 학교의 놀이가 즐겁지 않으면, 아이의 학교 생활은 불행해진다. 학교 생활이 행복하지 않으면 아이는 우울감에 빠지기 쉽다. 이 우울함은 낮은 자존감을 유발시키고, 불안감, 열등감, 결정 장애로 번져갈 수 있다.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공부도 잘 하기가 힘이든다. 친구가 생겨도 대등한 관계이기 보다 주종의 관계로 다른 친구

의 결정에 따라 행동한다. 더 나아가 '관계 중독' 에 빠져서 한 친구에게 맹목적으로 매달리거나 마음에 상처를 주는 나쁜 관계를 인지한다 하더라도 그 관계를 끊기보다 더 빠져들어 간다.

이러한 관계가 회복이 안되면 계속 관계 중독의 패턴에 빠지기 쉽고 어른이 되어도 계속될 수 있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자존감의 결여, 즉, 자신의 아픈 마음을 배려하고 공감하기 보다 남의 눈치를 먼저 살피게 되는 것이다. 자신이 상처받았을 때 계속해서 위안보다 질책을 받는 경험을 하면 좋은 관계보다 나쁜관계에 빠지기 쉽다. 약해진 자신의 마음을 치유하기보다는 더 약해지는 경험을 통해 그 감정이 익숙해지면서, 자신의 마음은 그렇게 취급되어야 한다는 믿음이 생기기 때문이다. 좋은 친구는 그 상처를 무시하기보다 배려하지만, 나쁜 친구는 약해진 마음을 이용하거나 더 자존감을 잃게 한다. 아이가 이러한 악연의 관계에 고착되어지면 공부를 잘하기가 힘들다. 그러므로, 공부도 잘하고, 행복한 학교 생활을 하기를 원한다면 공부 1등의 법칙을 가르쳐 주기전에 놀이의 법칙을 일깨워 주는것이 훨씬 현명하다. 아이들에게 놀이의 법칙을 가르쳐 주기 전, 부모자신은 '무엇을 하면서 놀고 있는가?' 하고 자신의 놀이 법칙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잘 노는 놀이 법칙은 자신이 정한 생을 살아가는 의미와 깊은 연관성이 있다. 돈, 명예, 권력의 성공을 가지면 잘 노는것도 저절로 온다는 생각을 하기 쉬운데, 사실 잘 노는일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미국 문화는 한국 문화의 교육 지상주의와 다르기에 미국 생활은 돈, 명예, 권력 만으로 절대 잘 놀지 못한다. 그리하여 잘 노는 일이 한국

문화권의 생활보다 몇 배나 힘이 들어지면 서, 미국권의 문화보다 한국권의 문화에 더 빠질수도 있다. 부모는 한국에서는 공부 만 잘 해도, 잘 노는 친구들에게 인기가 있었고, 자신이 혼자서 잘 놀지 못하더라도 잘 노는 친구 절친이 여기저기 재미난 놀이에 끼워줄게 해주었던 기억이 있다. 한국 문화가 주는 공부 잘하는 아이의 혜택의 기억으로 아이들에게 '공부,공부' 할수 있다. 하지만 미국의 학교생활은 다르다. 공부 만 잘해서는 잘 노는 학교 생활에 끼여들지 못하고 친구도 사귀기가 힘들다. 미국의 놀이 법칙은 스포츠에서 시작한다. 이미 유치원의 과정부터 축구, 야구 리그가 시작되고, 수영, 테니스, 가라테, 태권도 등 스포츠를 통한 놀이 법칙이 시작되는 것이다. 그룹 스포츠를 하면서 자신의 독단성보다는 그룹을 잘 조화하는 배려법을 배우고, 하나의 같은 팀이 되어 팀이 질 때나 이길 때에 함께 하는 교감을 배운다.

놀이는 자기가 독보적으로 잘 하려고 하면 재미보다는 일의 중압감을 갖게된다. 톰의 아버지는 톰이 축구에서 부각되기를 원했고, 억지로 축구를 매일 하게하여 톰이 축구 공도 보기 싫게했다. 존의 아버지는 존이 야구리그에서 제대로 공을 못 때리자 존에게 "그걸 야구라고 하나?" 라며 비양거렸다. 그 이후, 존은 절대 야구리그를 가지 않았다. 톰과 존의 부모처럼 스포츠를 경쟁에서 이기는 도구로 사용한다면 아이가 스포츠를 좋아하기는 힘들다. 이렇게 스포츠의 놀이 법칙을 잘 전달되지 않으면, 아이가 학교 생활의 놀이 법칙을 파악하는데 그만큼 시간이 걸린다. 초등학교의 휴식시간은 운동장에서 하는 스포츠로 대부분 채워진다. 그러면서 자연히 미국의 문화는 놀이의 대

장이 공부의 일등보다 훨씬 선호되어 진다. 공부를 웬만큼 잘하고, 학교 놀이 법칙을 잘 알면서 학교에서 '짱' 이된 아이의 대부분은 미래의 리더가 된다. 미국에 똑똑한 아시아인들이 엄청나게 많다. 대부분의 학교 일등을 아시아인이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이 많은 수에도 불구하고 회사, 병원, 공공기관에 매니저, 상위 매니저급의 아시아인은 턱 없이 적다. 그 수많은 아메리칸 아시아인의 재원들이 라인 워커(Line Worker)로 자신이 주도하는 주인자리가 아닌 남이 시켜서 일하는 종의 자리로 채워져 있다. 세상이 변하고 있다. 밀레니엄세대는 놀이 법칙을 잘 알아야 성공한다. 놀이 법칙은 남을 배려하고 공감을 느끼는데서 시작됨을 잊지 말아야 한다.

불안하면 손톱을 뜯는 피터는 학교가 시작되자 손톱을 너무 뜯기 시작했고, 그만 끊어버렸다. 치료를 위해 병원을 찾은 피터에게 소아과 의사는 테라피를 권했다. 초등학교 3학년엔 올라가는 피터는 학교에 적응을 힘들어 했다. 친했던 친구마저 다른 동네로 이사를 해서 외톨이가 되어있었다. 농구를 좋아하는 피터는 동네 농구 리그에 신청을 했고, 잘 노는 놀이 법을 배우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잘 노는 흥취를 느끼게 되었고, 팀 스포츠안에서의 교감과 배려를 통해 친구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학교 점심시간에도 같이 점심을 먹을 수 있는 클릭도 생겼다. 그러면서 자연히 손톱을 뜯는일은 없어지기 시작했다. 재미있는 일이 생기자 자존감이 커져갔다. 첫 학기의 새로운 시작, 잘 노는 놀이법을 공부 1등보다 우선으로 해보자. 잘 노는 아이가 능력있는 행복한 리더가 된다.

TBO PLAY
보스톤권 지역
MA, RI, NH 지역 공식 딜러

내가 보고 싶은 한국방송·영화를 원하는 시간에 고화질로 즐기세요

무제한 시청 월: **\$39.99**

이동 고객 특별 할인
타 방송사에서 티보 플레이로 갈아 타시는 분에 한해 월 \$30도 특별 우대해 드립니다

KBS, MBC, SBS, SBS Plus, tvN, Xtv, etc.

"광고는 영화다"

동영상 광고 전문제작 유튜브/TV/모바일

Nabis Studio
6177565744
ozic@hotmail.com
175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이벤트사진, 여권사진, 그래픽디자인 서비스



KOREAN

제1회 보스톤 한인 축제

FESTIVAL



한인 학생회 또는 동아리의
참가 신청을 받습니다.

보스톤 한인회는 10월 1일 보스톤 커먼에서
제 1회 한인의 날 코리안 페스티벌을 개최합니다.
보스톤 한인회는 한인 유학생 학생회 또는 한인 동아리의
축제 참가를 적극적으로 권장합니다.
코리안 페스티벌이 미국 사회에 한인의 저력을 보여주는데
여러분의 참가가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보스톤 한인회

참가 신청 문의

박진영(617.750.0207)
남병진(646.220.3314)



이명덕, Ph.D., Financial Planner & Registered Investment Adviser (RIA)
Copyrighted, 영민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All rights reserved
www.billionsfinance.com
248-974-4212

영민 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346) 허황한 예측

우리는 미래를 알고 싶은 본능이 있습니다. 주말 아침 가족끼리 공원을 가기 전에 일기 예보를 확인합니다. 공원 가서 비가 오면 하루가 엉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루 계획도 이렇게 신경을 씁니다. 하물며 미국에 이민 와서 아이들 키우며 어렵게 번 돈을 투자할 때 조심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누군가가 “주식시장이 대폭락” 한다고 언급하면 귀가 솔깃하고 마음속에 두려움으로 가득해 집니다.

2016년 1월 8일 한 주식전문가가 “주식 몽땅 팔아라(Sell Everything!)” 외쳤습니다. 주식시장의 폭락은 ‘하락하는 오일가격’, ‘중국 시장의 불안정’, ‘세계 무역 불황’, ‘빛의 증가’, 그리고 ‘회사성장 침체’ 등의 이유 때문입니다. 주식전문가는 세계 경제의 침체기(Global Recession)로 시장이 폭락할 것이므로 일반 투자자는 매우 두려워해야 하고 주식시장에서 양질의 채권을 제외한 모든 주식을 처분하라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여기에서 언급한 ‘주식전문가’는 보통 일반인이 아닙니다. 세계적으로 이름있는 은행인 RBS(Royal Bank of Scotland)에서 수장(Chief of Credit Department)으로 일하고

있는 앤드류 로보트스(Andrew Roberts)입니다. 주식시장 폭락을 예측한 1월 다우존스는 16,346이었는데 7월 말 현재 주식시장은 18,432로 12%나 상승했습니다. 이 사람 말을 듣고 주식시장에서 나왔다면 당연히 투자 손실입니다. 하락한다고 예측한 주식시장은 상승했는데 로보트스가 일하고 있는 RBS 은행의 주식은 무려 36%나 폭락했습니다.

하루 8시간 이상을 보내고 있는 자기의 회사 주식이 폭락할 것이라는 예측은 전혀 하지 못하고 주식시장만 폭락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아마도 RBS 은행 주식이 폭락한다고 예측한 것을 잠시 정신(?)을 잃고 다른 모든 주식을 팔라고 권고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주식 폭락 예측을 한 번만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2010년에도 비슷한 예측을 했습니다. “주식시장이 벼랑 끝에 있다는 사실을 아무리 얘기해도 부족하지 않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We cannot stress enough how strongly we believe that a cliff-edge may be around the corner. Think the unthinkable)” 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때도 폭락한다는 예측과는 달리 오히려 2010년부터 현재까지 주식시장은 90%나 상승했습니다.

2012년 7월에도 주식시장 폭락을 또 발표했습니다. “주식시장이 회복한다고 웃기지 마라. 미국 증시는 대공황보다 더 나쁠 것이다. (People talk about recovery, but we are in a much worse shape than the Great Depression...)”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2013년 역시 주식 폭락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경제는 오히려 3.2 퍼센트 증가했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은 2012년 16% 증가했으며 2013년은 무려 32%나 상승했습니다.

이처럼 주식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주식시장을 예측합니다. 맞지 않을 때는 조용히 있으면 그만입니다. 예측을 자주 하면 우연히 맞을 때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죽은 시계도 하루에 정확하게 2번은 시간을 맞추는 것과 똑같습니다.

주식시장을 반복해서 정확히 예측한 사람은 없습니다. 필자는 25년간 경제연구소에서 근무하며 이러한 논문이나 연구자료를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연구자료를 굳이 찾아 이유도 없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있다면 현재 역대 부자임이 틀림없기 때문입니다.

일반 투자자는 주식시장이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 라는 말을 근거 없이 되풀이합니다. 말로만 되풀이하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 이러한 사람들의 말을 듣고 행동으로 옮깁니다. 주식시장이 잠시 하락하면 모든 것을 팔고 나옵니다. 투자실패로 바로 이어지는 결정입니다.

주식시장에서 나오는 투자자도 잘못이지만 이러한 예측이 두려워서 투자하지 못합니다. 투자하지 못한 결과는 2009년 3월 이후 215%나 상승한 수익률을 한 푼도 받지 못한 것입니다. 이러한 손실을 기회손실(Opportunity Cost)이라고 말합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주식시장 예측은 더욱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식시장을 예측할 필요가 일반 투자자는 전혀 없습니다. 지난 30년 동안의 주식시장 수익률은 연평균 11%였습니다. 수익률 11%란 10만 불이 30년 후 200만 불 이상으로 불어나는 놀라운 수익률입니다. 직장에서 받는 봉급으로 혹은 비즈니스에서 벌 수 있는 금액이 아닙니다. 적은 투자가 오랜 기간을 걸쳐서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앞으로 30년의 주식시장 수익률이 얼마가 되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허황한 예측에 의해서 투자할 것인지 아니면 적은 돈이라도 꾸준히 투자할 것인지는 여러분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앤젤라 엄



앤젤라 엄 (Angela Suh Um)
보스턴 아카데미 컨설팅 그룹(Boston Academic Consulting Group) 대표

앤젤라 엄은 매사추세츠주 케임브리지에 본사가 있는 보스턴 아카데미 컨설팅 그룹(Boston Academic Consulting Group, Inc.)의 창립자이자 수석 컨설턴트입니다. 앤젤라 엄은 하버드 학부를 졸업하고 하버드 케네디스쿨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하버드와 MIT에서 수석 입학사정관(Senior Admissions Officer)을 역임하였습니다. 보스턴 아카데미는 12학년 학생들의 대학 지원과 6학년에서 11학년 학생들의 교육 가이드 및 카운슬링을 전문으로 하는 유수의 교육 컨설팅 회사입니다. 상세 정보 Tel: (617) 497-7700, Email: info@bostonacademic.com 을 통해 문의하시거나 Homepage: www.BostonAcademic.com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No portion of this article shall be published, re-produced, or otherwise used in any form without the express written consent of the author.

최고 명문 대학 입학 전략

“대학 진학을 위한 GPS : 코넬”

아이비리그 대학들 중에서 어느 대학의 신입생 정원이 가장 많은지 아십니까? 하버드도, 예일도, 컬럼비아도 아니다. 매년 코넬대학을 지원하는 학생수가 가장 많다는 사실에 많은 사람들이 놀란다. 작년에 코넬에는 44,966명이라는 엄청난 수의 지원자가 몰렸는데, 하버드의 39,000명, 예일의 31,450명과 비교하면 그 차이가 확연하다. 코넬의 지원자 수가 이렇게 많은 이유는 바로 이 대학이 아이비리그에서 규모가 가장 큰 대학이기 때문인데, 학부 학생수만 12,000명이 넘고, 보통 신입생 규모가 3,000명을 넘는다.

하버드의 신입생 정원은 지원자 수의 엄청난 증가에도 불구하고 지난 25년 동안 1,600명 정도를 꾸준히 유지해 왔다. (지난 1988년 하버드의 지원자 수는 14,430명이었다. 올해는 39,044명이 지원을 해서 거의 25,000명이나 증가했다! 그럼에도 신입생 정원은 거의 변함이 없었다) 예일의 신입생 정원은 하버드보다 조금 더 적어서 약 1,300명

정도이다. 다트머스(Dartmouth)는 더 적어서 보통 1,100명을 약간 상회하는 정도이다. 이들 대학과 비교해서 코넬은 작년에 3,200명이 넘는 학생을 합격시킴으로써 아이비리그에서 가장 규모가 큰 대학을 유지하고 있다. 코넬 다음으로 큰 대학이 펜(Penn)인데, 2,435명의 신입생 규모를 자랑하지만 여전히 코넬과는 상당한 격차를 보인다.

뉴욕주 북부 이타카(Ithaca)에 소재한 코넬대학은 아이비리그 중에서도 장엄한 계곡과 폭포, 그리고 호수가 있는 뛰어난 자연경관으로 인해 유명하다. 학부에 7개의 대학(college)이 있는데, 코넬은 사립 아이비리그 대학이면서 동시에 반공립(semi-public) 대학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독특한 대학이다. 이는 여러 학부 대학들이 뉴욕주 정부로부터 재정을 보조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뉴욕 주민으로서 코넬의 유명 학부 대학인 School of Human Ecology 혹은 School of Industrial and Labor Relations에 들어가게 되면, 학비를 \$15,000 가량

절약할 수 있다.

코넬에 지원할 때는 어떤 전공과 대학을 지원할 것인지를 명확히 해서 그에 맞는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대학에 따라 입학 정책과 요구 조건, 그리고 경쟁 수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코넬의 문리과대학(Arts and Sciences College)은 2개의 SAT Subject 시험 성적을 요구하는 반면, 유명한 건축대학과 인기 있는 경영대학은 SAT Subject 시험 성적은 전혀 요구하지 않는다. 그리고 코넬을 지원할 때는 전공 선택 전략을 잘 짜야 하는데, 어떤 전공은 다른 전공에 비해 들어가기 훨씬 어렵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문리과대학과 건축대학은 코넬 안에서도 다른 대학에 비해 들어가기 훨씬 어렵다. 또한 코넬은 대학위원회(College Board)의 “성적 선택”(Score Choice) 프로그램에 가입하지 않은 대학 중 하나이다. 따라서 학생들은 자신들이 응시한 모든 SAT 성적을 제출해야 한다. 자신이 응시한 SAT 시험 성적 중 어

떤 것도 감출 수가 없기 때문에 본인이 준비가 되었을 때 SAT 시험에 응시하도록 주의해야 한다. 연습 삼아 시험을 쳐서는 안 된다.

캠퍼스 주위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에도 불구하고, 코넬은 지속적인 자살 사건 때문에 평판이 좋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사실 코넬의 자살률은 하버드나 MIT, 혹은 대부분의 아이비리그 대학들의 경우와 비교해 보면 전혀 높은 편이 아니다. 최근에 많은 아이비리그 대학들에서 이런 불상사들이 만연하고 있기 때문에 입학사정관들은 입학 사정을 할 때 이런 점에 매우 주의를 기울인다. 지원자들을 평가할 때 대학 4년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고난과 도전, 그리고 실패와 맞닥뜨렸을 때 이를 극복할 만한 성숙함과 인성, 그리고 끈기를 구비했는지를 어느 때보다 더 꼼꼼히 살펴 본다. 이를 위해 지원자의 에세이, 교사 추천서, 그리고 인터뷰 등을 통해 누가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고 성공할 수 있는지를 찾아 내려고 한다.



쌀쌀한 가을을 보내기 위한 필수품!

가족들에게
앤티비를 선물하세요!

하루 \$1로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대로!



아직도 불법 다운로드 하세요?

아직도 비디오를 빌리세요?

합법적인 앤티비를 적극 추천합니다!



지금바로 전화주세요! 617.955.9112 / 617.254.4654





성기주 변호사 칼럼

성기주 변호사 (Kiju Joseph Sung)
 http://www.lookjs.com
 Copyright © Law Office of Kiju Joseph Sung;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근 이민 동향 & 이민 소식 (2016년 9월 첫째주)

● NIW

취업 2순위 중 직접 신청 (Self-Petition) 이 가능한 National Interest Waiver (NIW) 에 대한 심사기간이 최근 몰라보게 빨라졌습니다. 이민국 홈페이지의 심사기간란에는 약 8개월로 나오고 있지만 잘 준비되고 정리된 케이스의 경우 2달 이내에 승인이 된 경우도 있고 대부분 평균적으로 3개월이 채 안 걸리고 있습니다.

특히 보스턴 인근에서 Postdoc Fellow로 연구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소속된 기관들이 미국내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명성이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점을 잘 이용하시면 비슷한 경력의 다른 기관 종사자들보다 훨씬 더 승인 가능성이 높은 신청서를 내실 수 있습니다. 즉, 세계적으로 명성이 있는 기관에 종사하고 있다는 점,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학자들로부터의 추천서, 그리고 이들과의 교류 등 다른 지역 신청자들이 쉽게 준비할 수 없는 준비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유리합니다.

또한, 대부분 NIW 신청서의 분량이 방대하니 되도록이면 이민국 심사관이 심사할 때 이들의 편의를 생각해 서류들의 순서, 편집 등을 보다 신경써서 보내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 이민국은 신청자의 학위가 미국이 아닌 미국 외의 나라의 대학에서 받으신 경우 그

외국 학위에 대한 미국학위와의 동등성에 대한 자료(Degree Evaluation) 를 요구하니 신청서에 꼭 그 자료도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종교비자와 H-1B 연장 신청

취업과 관련한 비이민비자들 중 종교비자 (R-1) 와 H-1B 연장/변경 신청서에 대한 심사기간이 최근 역대 최악 수준으로 느려지고 있습니다. 종교비자의 경우 약 8개월, H-1B 연장/변경 신청은 최대 10개월 이상 걸리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이민국에 신청서에 대한 조회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H-1B 연장 신청

H-1B 연장 신청 중 기존의 H-1B 와 아무런 변동없이 계속해서 동일한 고용인을 위해 일하시는 경우 연장신청서를 보내는 곳이 이번 7월부터 바뀐습니다. 기존의 California Service Center나 Vermont Service Center가 아닌 Nebraska Service Center로 보내셔야 합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취업이민 신청서, Form I-140

최근 평소보다 많은 취업이민 신청서에 대한 기각이 나오고 있는데 상당히 많은 기각 사유가 기간이 만료된 신청서를 보낸 경우입니다. 이민 신청서(Form) 들은 신청서 자체에 대한 만료일이 있고 반드시 현재 유효한 신청서를 작성해서 이민국에 보내야 합니다. 사실 새로운 버전이나 기존의 버전이나 거의 차이점

은 없습니다. 하지만, 법은 법이니 이민국은 만료된 신청서를 작성해서 신청된 케이스들에 대해선 기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다시 신청하면 되지만 노동허가서(Labor Certification)를 동봉한 경우 노동허가서에도 만료기간이 있기 때문에 다시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 변호사가 확인해서 보내지만 변호사도 실수할 수 있으니 신청서를 서명하실 때 꼭 신청서의 버전이 가장 최근 것인지 확인하시거나 적어도 변호사에게 인지 시키시기 바랍니다.

● 이민사기

얼마 전 H-1B 신청 등과 관련된 한 이민사기범에 대한 조사와 기소 내용이 언론을 통해 발표됐습니다. 이 사기와 관련된 수입금에 대한 압류 금액이 \$20million이 넘습니다. 한화로 약 240억원 정도 됩니다. 240억원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사기를 쳤는지 가늠도 안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이민국은 여기에 관련된 모든 케이스에 대한 조사를 해서 승인을 취소하게 됩니다. 이번 케이스로 다시 한번 확실한 것을 봤습니다. 설사 사기를 통해 신분을 얻으셨더라도 평생 다리 뺀고 주무실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절대로 이민사기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 이민관련 신청서 (Form) 개정

이번 달에도 몇가지 이민 신청서들에 대한 개정이 있었습니다. 그 중 종교관련자 또는 이민 4순위 관련 신청서인 Form I-360에 대한 개정이 있었습니다. 기존의 Form은 오는 10월 31일까지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 학생비자 (F-1) 소지자

학생비자와 그 소지자들을 관리하는 SEVIS 는 점점 더 전산화되고 비자발급 뿐만 아니라 출입국, 차후 신분변경/영주권 신청 등 학생비자 소지자의 차후 모든 이민관련 행위에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한번 시스템에 본인의 정보가 잘못 입력되면 앞으로 큰 불이익과 번거로움을 당하게 됩니다. 한국인에게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실수들 중 하나는 이름과 성별입니다. 한국사람의 First Name/Given Name은 대부분 두자로 되어 있고 사람에 따라 이 두 글자를 영어로 쓸 때 붙이시는 경우도 있고 띄어서 쓰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띄어서 쓰는 경우 가끔 이 중 한자를 Middle Name으로 학교 담당자가 SEVIS에 입력하는 실수를 합니다. 두 글자가 띄어 있어도 두 글자가 모두 First Name임을 확실하게 학교 담당자에게 확인 시키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미국 학교 담당자들은 한국 이름만 봐서는 성별을 인식하지 못 합니다. 본인의 성별도 꼭 확실하게 학교 담당자들에게 확인 시키시기 바랍니다.

Song Law Firm의 법률칼럼 법정에서 강하고, 고객에게 편안한 "Song Law Firm"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송동호 로펌 법률칼럼 - [이민법]

미국 내 외국인 벤처 사업을 키우는 새로운 법안 발표

Song Law Firm (www.songlawfirm.com)은 뉴저지에 본사, 뉴욕에 사무소를 두고 현재 한국지사설립을 준비 중에 있는 종합 로펌입니다. 각 분야에서 인정받은 유대인, 한인변호사들이 이민법, 지적재산법, 사고상해, 기업법, 가정법, 민형사 소송 등의 분야에서 최고의 법률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한인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미국에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미래를 개척하시는 여러 분들과 함께 새로운 성공 스토리를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소속변호사 : 송동호 대표 변호사, NJ 법무부 Deputy Attorney General출신의 Howard Z. Myerowitz 외 10여명
 www.songlawfirm.com, 보스턴 사무실 전화: 617-489-1327

지난 8월 26일 이민국(USCIS)은 외국인 벤처 사업가들이 미국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새로운 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민국은 앞으로 45일간 이민 변호사들을 포함한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적인 법안을 발표하게 될 것입니다. 의견 수렴 후 세부 내용을 포함한 최종 법안을 발표하겠지만 큰 틀에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어 송동호 종합 로펌 이민팀은 우선 현재까지 발표된 내용에 대해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민국장인 Leon Rodriguez는 이번 법안을 발표하면서 이 법안의 목적을 확실하게 밝혔고 발표된 법안도 그 목적의 실현이 가능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미국 내에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투자를 끌어와 미국 총 수입을 증가시킬 수 있는 외국인 사업가들이 미국 내에서 쉽게 창업하고 경제활동을 하게 하여 궁극적으로는 미국의 경제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발표된 내용은 영주권을 바로 주는 것이 아닌 미국 내 입국과 체류를 허락하는 형태로 허락을 하는 시점은 물론 이후 연장을

할 때에도 이러한 법안의 목표를 충족시켰다는 것을 보여줄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업가는 미국에 세우고자 하는 사업체의 최소 15%의 지분을 가진 소유주로 회사의 운영에 있어 핵심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사업체의 경우 지난 3년 내에 설립된 회사라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이 사업이 성장가능성이 매우 크며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하는데, 이민국은 이 부분에 있어 혼란스럽지 않도록 몇 가지 예시를 제안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민국은 사업체가 미국 법에 준한 합법적인 방식의 투자로 최소 \$345,000이상의 투자금을 끌어와야 하며, 이에 대한 증거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혹은 연방정부, 주 정부 혹은 지역 정부가 사업에 대해 최소 \$100,000에 해당하는 사업 장려금을 승인하거나 지원해야 합니다. 만약 위의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사업체가 빠르게 성장하거나 취업 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하는데, 저희의

경험에 따르면 사업 계획서가 얼마나 탄탄하고 구체적인가를 이민국에서 고려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민국에서 제시하는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사업가는 우선 2년 동안 사업체가 미국에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미국에 입국하여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게 됩니다. 2년 후 연장 시에는 사업체가 2년동안 성실하게 성장하여 미국 경제에 기여하고 취업 자리를 창출했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이러한 증거가 제시되면 이민국은 사업가에게 추가로 3년 동안 미국에 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입니다.

이번 법안은 중국이 해외 인재들을 빠른 속도로 흡수하며 벤처 사업을 장려하고 경제를 키워나가고 있는 것에 대한 미국의 위기의식에 따른 방어책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한국 내에서 크게 성공한 벤처 사업의 경우, 그 사업성이 이미 인정받았으므로 미국 내에서 투자를 끌어오기 더 유용할 것이고 그렇다면 이번 법안을 통해 쉽게 미국 내 합법 체류 및 사업체 운영이 용이해 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9월 중 최

종안이 발표되면 저희가 바로 정리하여 독자들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법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mail@songlawfirm.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칼럼에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www.songlawfirm.com
 Facebook으로 친근해진 송로펌
 www.facebook.com/songlawfirmllc
 생활속의 법률 매거진, 송로펌 네이버 블로그
 http://blog.naver.com/songlawfirm1
 대륙으로 진출하는 송로펌
 www.weibo.com/p/1005055593845027

SONGLAWFIRM

고객이 신뢰하는 법률 브랜드
송동호 종합로펌

songlawfirm.com



송동호 대표 변호사

법률업은 일반 비즈니스와 달리 고도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합니다.
 변호사의 판단 하나는 고객 케이스에 신의 한수가 되기도 합니다.
 송동호 종합로펌의 변호사들은 신중함의 중요성을 늘 생각합니다.
 고객 여러분이 저희의 신중함을 발견하고 신뢰하게 되기를,
 케이스 하나 하나에 강인 정신으로 다가갑니다.
 고객이 신뢰할 수 있는 법률 브랜드, 송동호 종합로펌은
 오늘도 고객의 케이스를 신중하게 고민합니다.



송동호 종합로펌 뉴저지지사 소속 변호사 및 Summer Associates

기업 고객

- 국제법
- 근용법
- 노동 및 고용법
- 보험회사 관련 소송
- 부동산
- 상업 및 M&A
- 소송
- 이민법
- 업대인, 업저인 관계법
- 지식 재산법
- 프랜차이즈법

개인 고객

- 가정법
- 노동 및 고용법
- 부동산
- 사고 상해
- 성법
- 세금, 상속, 유언
- 소송
- 이민법
- 업대인, 업저인 관계법
- 지식 재산법
- 다국, 지역 법원 관련 업무
- 파산
- 형법

T | 617.489.1327 MA@SONGLAWFIRM.COM

MA OFFICE | 125 Cambridge Park Drive, Suite 301, Cambridge, MA 02140

- songlawfirm1
- songlawfirm LLC
- songlawfirm

사업의 시작은

Lee Associates

이경해 부동산

1.800.867.9000



Broker & Realtor(1985년부터 보유) 사업 및 부동산 무료 상담

비즈니스 용자:20% 현금, 영주권, 크레딧 700+
상가건물,콘도,아파트건물 투자하실 분 환영
1031 Exchange(상가건물세금혜택)서비스
미 전역 프랜차이즈 비즈니스

E2비자 사업체 전문,비즈니스 무료상담
크고작은 세탁소들,런드로맷(Laundromat) 많음
주유소,식당,편의점,주류판매점등 다양한 사업체
항상 리스팅 80-100 보유

Cell.....508.962.2689
Tel.....781.297.5679
www.leebrokers.biz
Email..kayleebrokers@aol.com

보스톤 남쪽 컨비니언스 + 로터리, 연매상 \$900,000 + 로터리 커미션(\$70,000)

체스넛힐 드롭오프, 연매상 \$250,000

보스톤 서쪽 런드로맷, 연매상 \$240,000 소유자 부재중 경영

보스톤 남쪽 한국식당 + 풀리커, 연매상 \$300,000+ 대학교 근처

뉴햄프셔 동양식당 + 풀리커, 연매상 \$300,000+ 소유자 은퇴

다운타운 보스톤 컨비니언스 + 델리, 연매상 \$650,000

Beer&Wine 면허증, 주방 확장 가능

보스톤 북쪽 드롭오프, 연매상 \$155,000 좋은 매매가격 \$65,000

보스톤 서쪽 런드로맷 연매상 \$159,000 소유자 부재중 경영

케이프코드 동양식당 연매상 \$160,000 높은 순수익

보스톤 서쪽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500,000 고급동네

우스터 지역 런드로맷 연매상 \$225,000

보스톤 북쪽 세탁소 셔츠유닛, 연매상 \$99,000 좋은 위치

보스톤 서쪽 런드로맷 연매상 \$236,000 소유자 부재중 경영, 새 기계

동양식당 로드아일랜드 프로비던스 대학가 근처, 연매상 \$450,000

네일살롱 여러장소 연매상 \$160,000 - \$800,000

보스톤 서쪽 드롭스토어 2곳, 연매상 \$300,000 과 \$250,000 소유자 부재중 경영

뉴햄프셔 세탁소+런드로맷 연매상 \$110,000 18년만에 은퇴, 매매가격 \$35,000

여러가지 컨비니언스 스토어 소유, 문의바람

보스톤 북쪽 건물; 2층 아파트, 1층 상가, 매매가격 \$980,000

보스톤 Full Plant+드롭, 연매상 \$750,000 35년 경영, 소유자 은퇴

보스톤 북쪽 드롭가게 연매상 \$193,000 고급동네

동양그로서리 연매상 \$800,000 Beer&Wine 면허증소지, 로터리 (복권)

보스톤 남쪽 Meat+컨비니언스+로터리, 연매상 \$910,000+

보스톤 북쪽 런드로맷+부동산+임대수입 유닛, 매매가격 \$529,000

보스톤 서쪽(I-495)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500,000 고급동네

보스톤 북쪽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150,000+ 새 기계들, 부유한 동네

보스톤 북쪽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250,000 소유자 은퇴



명문 중.고.대학 진학상담및 수속

전문적인 맞춤형 진학상담
최고 에세이 편집자
최고 전.현직 입학 담당자 상담

섬머/윈터 프로그램

전문적인 관리및 실질적인 프로그램
MIT/Harvard 특별 프로그램
다양한 주말 프로그램

가디언 업무

수시 교사 면담및 성적관리
아카데믹 로드맵 작성및 실행
다양한 경시 대회준비, 섬머및 교외 활동

보스톤 교육원이 새로운 보금자리로 이전했습니다.

상담전화: 339.234.5255~7

많은 관심과 격려에 힘입어
저희가 사무실을 이전했습니다.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더욱 성장한
보스톤 교육원으로 여러분을
찾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스톤 교육원 임직원 일동

NEW OFFICE LOCATION

179 GREAT RD. #220
ACTON, MA 01720



Boston Education World, Inc.
보스톤 교육원

179 Great Rd. #220, Acton, MA 01720
Tel.339.234.5255~7 / Fax.339.234.5258

www.bostonedu.org 문의: info@bostonedu.org
수업문의: academicservices@bostonedu.org